

3420  
3420  
3420  
12-12-1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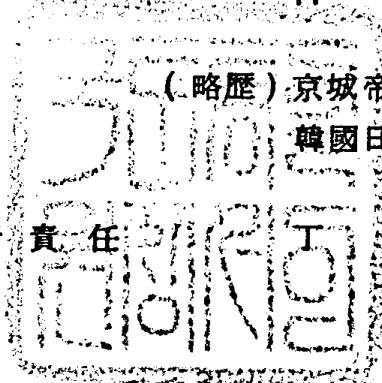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 韓 研 究

# 北韓共產主義의 特性研究

— 그 徵表와 異質化過程 —

研究執筆責任 朴 東 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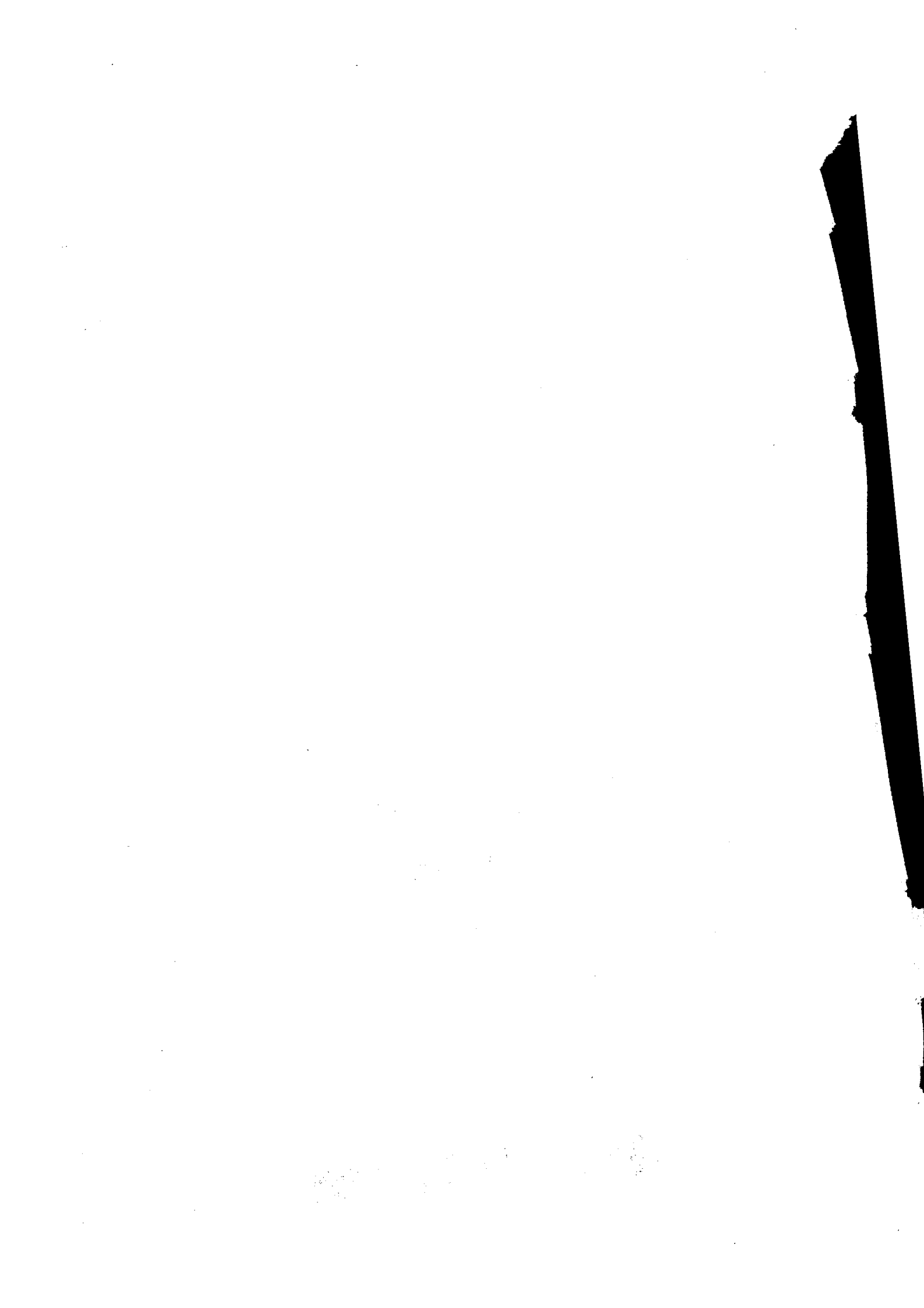


(略歷) 京城帝大 法文学部卒  
韓國日報 論說委員

刊 行 責 任 卍 世 鉉 ( 調查研究室 補佐官 )

3420  
3420  
3420  
12-12-1455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序 論	-----	3
第一章 프롤레타리아革命理論과 北韓의 現段階	-----	9
第二章 社会主義建設에서 보이는 스탈린主義의 異端的 特殊形態	-----	29
第三章 主体思想과 自主路線, 唯一思想体系의 形成過程	-----	51
第四章 領導作風과 群衆路線의 虛實: 經濟建設에 反映된 政治第一主義	-----	79
第五章 北韓憲法의 体制的 特徵	-----	103
第六章 「새형의 人間」鑄造의 問題狀況	-----	119
結 論	-----	137

目

16	...	...	...
80	...	...	...
100	...	...	...
120	...	...	...



## 序 論

오늘의 마르크스·레닌主義는 複雜多端한 混迷相을 거듭하고 있다.

現代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踐은 各國에서 各異한 多元的 變質을 觀測케 하며 이미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一元的 團結 내지 統制에 관한 神話는 崩壞되었다. 複數共產國들 간의 敵對的矛盾이 深化하여 한 共產國이 다른 共產國을 反對하기 위하여 어제까지 「資本主義」 또는 「帝國主義」라고 비난해온 나라들과 聯合하는 가운데 單一한 「共產陣營」도 存在하지 않게 된것이다.

그러한 狀況變化를 勘案할적에 종전의 用語例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나라의 마르크스·레닌主義 標榜勢力을 일개로 「共產圈」이라는 指稱 아래 간단히 概括하고 一括 취급한다는 것은 現實把握과 環境適應의 양면에 걸쳐 再檢討를 필요로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反共」의 實質的·具體的 內容도 다시 省察되고 새로 定立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世稱 「共產圈」은 第1次 世界大戰의 불길속에 태어나기 시작했으며 2次大戰의 余燼을 누비면서 膨脹해온 行程을 거쳐 현재

蘇聯을 비롯한 그 統制下的 東歐諸國 즉 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東部獨逸 그리고 不利한 立地條件에도 自主의 定向  
을 밝히려는 루마니아·蘇聯으로부터 獨立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  
아 나아가서 아시아의 中共·北韓·베트남 蒙古·라오스·캄보디아·  
이에 더하여 中南美地域의 쿠바등을 셈하면 16個國(또는 共產執  
權地區)에 달하며 아프리카의 앙골라 내지 에티오피아事態도 流動  
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地球上的 陸地와 人口의 각 3분  
지 1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共產國家」라  
고 부르는 것은 그 思想的標榜에 견주어본 便宜上的 概稱일 따름  
이다.

이미 그들 상호간에도 關係惡化가 두드러진 對象에 대해서는  
「修正主義」라든지 「마르크스·레닌主義로부터의 逸脫」이라는 비판  
정도가 아니라 이른바 「帝國主義」化나 「資本主義의 길을 걷고있  
다」는 非難応酬가 그칠 사이 없게 된 것이다. 뿐더러 지금 이時刻  
에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流血的 武力鬪爭이 展開되는 중이다.

共產圈의 兩巨頭간에 벌어진 中·蘇 紛糾의 現段階도 그 雙方이  
自認하듯이 「敵對的 矛盾」임이 명백하며, 결코 「同志간의 論爭」  
이나 「人民内部的 矛盾」등으로 類推할바 아니다. 蘇聯共產黨 中  
央委員會 機關紙 「프라우다」와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機關紙  
「人民日報」는 저마다 題号 옆에 「萬國의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  
라」<sup>1)</sup> 고한 標語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들 機關紙의 報道와 論說  
은 매일처럼 상호간의 敵意에 찬 非難応酬를 浮刻시키고 있다.

각기 「國際共產主義」의 旗幟를 치켜든다고 하면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純潔性 固守」를 号喊하는 가운데 그 標榜과 現實은 야릇하고도 심각한 对照를 느끼게 한다.

무릇 外交와 内治는 相互依存性 (Interdependence) 를 벗어날 수 없다. 또 그러한 事態進行은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 真理」란것의 「特殊形態」간에 빚어진 矛盾이라고 볼것이 아니라 다음아닌 그 「真理」 또는 「理論的指針」자체가 客觀的 与件變化와 各국의 歷史的現實에 浮刻되는 政治的 需要에 따라 「變質」이 不可避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反映한다고 볼것이다.

共產圈의 多元化가 단순한 對外政策상의 龜裂이 아니고 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指針으로 삼는다는 普遍性속의 「特殊形態」라고 볼바도 아닌 深刻한 局面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複數의 「民族文化」간의 差異가 날이 갈수록 크게 벌어져가고 있다는 事態進行에서 관측된다. 원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的教祖들은 革命後의 民族文化를 定義하면서 「內容」에 있어 社會主義的이고 形式에 있어 民族的인 文化」<sup>2)</sup> 라고 했다. 이 경우에 辯證法의 論理에 따라 「內容의 形式에 대한 優位」가 명백하다는데서 各국의 民族文化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下의 持續的인 求心作用 끝에 결국은 하나의 普遍文化로 歸一하리라고 내다보았던 것이다. 예컨대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하여 系統적으로 創造되어가는 國際文化」<sup>3)</sup> 를 力說했는데 그의 指向은 「民族文化의 國際主義的 統一」로 풀이되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共產圈 現實은 複數民族文化간

의 差異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古典的 理論家들의 予見과는 單  
으로 趨勢面에서 돌이킬 수 없는 遠心作用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世稱 「第3世界」에는 「民族共產主義」라고 불리는 現象形態도  
관찰되나 개중에는 「民族」概念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古典的定義  
를 逸脱해가는 것도 있다. 나아가서 廣義의 精神文化 즉 科學과  
藝術·倫理的規範과 價值觀, 生活傳統과 思考方式등에 걸친 實相이  
마르크스·레닌主義보다도 오히려 實시즘에 가까운 것으로 관측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北韓共產主義의 實相도 매우 錯雜한 流動性을 관측케 하는  
데 蘇聯이나 中共의 것과 다르고 마르크스·레닌主義가 予見케 했던  
原型과 判이하다. 이러한 現象은 外來文化 受容후에 발견되는  
「2次文化現象」이라고 볼지도 하지만 간단히 그렇게 규정지을 수도  
없다. 漢陽王朝가 中國으로부터 儒敎國家體制를 導入하여 朱子學  
唯一思想體系를 固守한 경우를 類推할 수도 없다.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이 유난히 강조되는 行程에서 理論과 實踐에 걸친 獨  
自의인 摸索이 제창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최초의 理念的指向이라든지 原型을 固守할 수 없는 決定  
的 轉機와 그 심각한 자극은 蘇聯과 中共을 포함한 여러 共產國  
에 발견되는 바이다. 그러한 轉機로 된 衝擊的事件과 環境條件變  
化에 관해서는 이 論文에서도 比較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主要한 關心처인 北韓의 歷史的現實이 마르크스·레닌主義

가 想定한 原型으로부터 날로 멀어져 가고 있으며, 급기야 特殊形態로 부터 異端兒的變型으로 移行한다고 할적에 그 가능한 發展方向의 測定은 韓圉(南韓)에 의한 民族史的, 誘導方向의 設定에 있어 매우 중요한 問題提起로 되게 마련이다. 나아가서 反共과 北韓批判의 基準에 관한 再省察은 우리의 統一問題와 北方政策의 存在樣式에 관한 展望과 結附된다.

무릇 共產主義體制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는 學者들 간에 여러 가지 「모델」이 提示되거나 特定한 範疇에 따른 分類등이 試圖되어 왔으나 저금껏 百家爭鳴식인 甲論乙駁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論議를 회고하거나 한몫 끼이는것은 이 論文의 主題일 수 없다. 다만 特定한 體制에 관한 概念規定 역시 諸種의 表象에 대해 그 異因을 比較하고 識別하는 判斷의 作業으로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다.

北韓 共產主義의 個性的 屬性, 그 理論과 實踐의 獨自的인 徵表를 把握하려는 接近은 그곳 主導勢力이 標榜하는 理念과 強行하는 諸般施策 및 結果를 檢討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北韓의 共產主義集團도 여타國家의 경우처럼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純粹性 固守」란것을 강조하는데는 결코 人後에 뒤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論文은 다음과 같은 諸局面의 考察에 새로 力點을 設定하면서 그동안에 未洽을 무릅쓰고 발표했거나 연구해 온 약간의 結果를 再整理 補足하고자 한다.

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古典的 革命理論과 北韓에서의 革命發

展의 現段階을 對照해 보는 作業.

②蘇聯 및 中共과 比較되는 特殊形態.

③朝鮮勞動黨(北韓共產黨)이 標榜하는 理論과 實踐의 特異한 樣相에 對한 再檢討. 그들의 進取方式과의 對比.

④北韓의 최근 對南平和統一攻勢에서 「民族」概念이 浮刻되는 것과 關連있는 南北 「異質化」問題의 再整理.

⑤北韓을 包含한 共產圈의 多元的 變質過程의 緣由.

(가)그 執權經緯에 對한 刻印.

(나)經濟發展의 水準(「社會發展」의 段階).

(다)政治文化의 差異.

(라)歷史意識과 座標認識.

(마)共產化 및 社會主義建設過程의 環境條件 특히 決定的인 轉機에 對한 分析的 考察.

이 論文은 國土統一의 1978年度 後半期 研究用役計劃에 對한 執筆된 것이다. 研究主題자체가 南北韓에 걸쳐 未開拓分野로 되어 있는데다가 執筆者의 力不足 및 時間制約등으로 內容未洽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이를 하나의 地誌들 삼은 先輩. 同學에 의한 보다 完整한 研究成果가 期待될 따름이다.

第一章 프롤레타리아革命理論과

北韓의 現段階

第一卷 中國通史

增補本 全書



## 第一章 프롤레타리아 革命理論과

### 北韓의 現段階

오늘의 共産圈 分裂은 이론바 「社会主義로 가는 多様な 道」에 緣由하는 것만이 아니며 바로 그 「社会主義」의 概念規定에 관한 論争을 포함한다. 또 그 分裂은 간단히 「革命主義 對 修正主義」로 歸結시킬수도 없는데 그들은 저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純粹性 固守」를 표방하는데 있어 人後에 뒤 지려하지는 않는다.

본시 共産圈의 多元化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걸쳐 表面에 분출한것은 대체로 20世紀 50年代後半期 이후의 일인데, 이 무렵 國際政治에서는 東西冷戰이 褪色되는 다른 한편에 있어 「大小關係」와 「南北 問題」가 注目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각국 共産黨의 「自主路線」이란 주로 對蘇關係의 再調整과 관련되어 提起되었던 것이다. 그 「自主」意識의 成長과 蘇聯의 統制弱화가 두드러지는 過程에서 각국 共産黨 指導層은 나라마다 民族마다 한 結말지않은 獨特한 歷史意識과 政治 文化 課題設定 그리고 環境條件등을 이론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 眞理」이상으로 前面에 浮刻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現象의 繼起는 執權基盤의 鞏固化 作業과 直結된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 경우라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세가지 夢, 즉 人間을 위한 自然의 改造, 근로하는 人間을 위한 社会制度의 改造, 人間 자체의 改造<sup>4)</sup>」에 관한 일련의 教條는 포기된것이 아니며 또 「레

년」이후의 「蘇聯의 實例」에 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직 그 解釈이 多樣化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프롤레타리아트 本位の 國家建設과 흔히 共産黨執權國家의 徵表라고 알려진 ① 마르크스·레닌主義政黨에 의한 一黨獨裁 ② 全社會의 劃一的인 思想組織的 動員體制 ③ 生産手段의 國有化 方向設定 ④ 計劃經濟 ⑤ 農業經理의 集團化 ⑥ 이른바 「共産主義의 人間」의 育成을 위한 教育의 計劃化 등은 적어도 現象形態에서는 지금껏 公同적으로 追求되어온 바이다.

하기야 그러한 標榜과 推進도 나라따라 方式이 差異가 뚜렷한데다가 質的으로 內容面의 溝渠가 深化되고있음이 관측이다. 드디어는 複數共産國들간에 「마르크스·레닌主義로부터의 逸脫」이 論難. 応酬되었으며 작금에는 「國家關係」만은 이력저력 維持하되 보다는 重要하다는 「黨關係」는 단절된 事例가 增加一路에 있다.

그리하여 理論과 實踐에 걸쳐 北韓共産主義의 個性的 徵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古典的 革命理論에 비추어 北韓의 革命發展의 現段階를 診斷해야 하는 必要性이 提起된다. 과연 北韓의 實態는 「마르크스·레닌主義로부터의 逸脫」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理論的 指針의 「純粹性」固守가 도리어 작금의 潮流때문에 「異端兒」의 印象을 자아내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北韓共産政權이 蘇聯이나 中共에 대한 一辺倒를 拒否한다고 할 적에 그 「自主的」 發展의 向方은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원래 1948年의 『共産黨宣言』은 第1部 序頭에서부터 「종래의

모든 社會의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이다」고 말했다. 그 階級을 定義하면서 「레닌」은 「階級이란 一定的한 社會經濟制度 속에서 차지하는 地位가 相異하는데 따라 일방이 타방의 勞動을 자기것으로 만들수 있는 사람들의 集團」<sup>5)</sup>이라고 풀이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歷史的 唯物論의 核心을 이루는 「社會發展史」에 의하면 社會經濟的 發展段階設定은 ① 原始共產社會 ② 奴隸制社會(그리스·로마時代) ③ 封建制社會(西歐의 中世) ④ 資本主義社會(近代市民社會)라고 한다. 나아가서 앞으로 도래할것이 共產主義社會라고 하는데, 그 過渡的인 第1段階가 「社會主義」體制이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든지 「能力따라 일하고 勞動(그량과 質)따라 받는다」는 原則이 實踐되리라고 한다. 이 社會主義 社會에서 生産手段의 社會化, 生産力의 高度發展,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거친 階級の 廢絶, 人間의 思想意識改變 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平和的移行을 통해 共產主義의 最高段階가 도래하리라는데 그때에는 「能力따라 일하고 需要에따라 받는다」는 健全하고 豊요한 理想社會가 구현될 것이라고 하는 未來像의 「꿈」이 그려졌던 것이다.

그러한 社會發展史의 構圖에 있어 아직 階級이 存在하지 않았던 原始共產社會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權力을 장악한 條件에서의 「社會主義로부터 共產主義 最高段階에로의 移行」의 경우를 除外한다면 모든 社會發展은 오직 「階級革命」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그들에 의하면 진정한 革命이란 社會의 生産關係와 階

級構造를 근본적으로 變革시키는 「社会革命」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革命의 原因을 마르크스·레닌主義는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資本主義社会라면 生産力은 發展을 거듭한 끝에 社会化되다시피 했는데도 生産關係는 私有財産制에 억매여 결국 發展이 막다른 限界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그 過程에서 극소수의 資本家階級과 절대다수의 勞動階級간에 階級的 矛盾이 激化되고 한편 中産階層은 餘地없이 零落되어 드디어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階級鬪爭의 결과로 社会主義革命이 「必然」視된다는 것이다. 이 「必然」을 설명한다는데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이른바 「科学的 社会主義」임을 自負한다. 그리고 「必然」이니 「科学」이니 하는 것을 주장하다보니 그 歴史的 唯物論은 다음과 같은 「公式」을 提示하게 되었다. 즉 「무릇 여하한 社会構造体라 해도 아직 生産力이 발달되지 않고 그 社会構成体가 生産力發展을 위해 充分한 餘地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沒落하지 않는다. 한편 새롭고 보다 더 高次的인 生産關係는 그 物質的 生産條件이 旧社会 자체의 胎内에서 孵化를 마치고 이전에는 결코 출현하지 않는다」<sup>6)</sup>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古典的理論자체를 상세히 다루고 비판하는 것이 이 論文의 主題는 아니지만 그들의 그릇된 立論의 몇가지 두드러진 局面은 비판을 가해두지 않을 수 없다. 辯証法的 唯物論에 의하면 認識이란 客觀的 實在의 摸写이고 人間의 意識에 있어서의 그 反映이며,

이와같은 認識은 부단한 經驗과 思考로 補完 또는 訂正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그들의 獨斷에 대한 비판도 客觀的 實在와 歷史的 經驗을 통해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社會의 發展을 階級鬭爭의 歷史로 單純化한다는 것은 人類의 心性 특히 社會通念에 있어서의 同胞愛의 擴大 내지 人種의 障壁을 超越한 紐帶意識의 增幅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國家를 「階級的 支配의 道具」로 본다는 것은 그 超階級的인 公共的 機能을 억지로 外面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모든 文明國家에서 殺人犯은 社會的 身分의 여하를 不問하고 체포되며, 郵便業務에는 階級的 差別이 없다.<sup>7)</sup>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國家觀으로는 1956年の 헝거리義拳와 1968年の 체코슬로바키아 自由化運動을 설명할수 없다.

人類의 지난날 歷史를 어떤 段階로 区分하는가는 多様な 世界觀과 理論構成나름이다. 예컨대 「로스토우」는 歷史的 唯物論을 배경하면서 經濟史的 視角에서 傳統社會, 先行條件段階, 跳躍段階, 成熟段階, 高度大衆消費段階로 구분하였다.<sup>8)</sup> 장래에 도래할 段階로 「必然」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人間의 選擇可能的 過程으로 보아야 한다. 본시 社會는 人間의 目的論的 指向과 創造的自由에 의하여 변모해왔다. 生産力의 發展 자체로 人間이 物質的인 制約을 벗어나 스스로의 自由를 實現코자 合目的的으로 思考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現代의 先進 資本主義社會도 「마르크스」의 予見과는 달리 混合經濟體制를 採択하여 大體로 安定되었으며 그 階級關係도 간단치 않다. 中産階層은 世稱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포함하여 資本과 經營이 분리되는 가운데, 沒落해 가는 커녕 社會의 中樞勢力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意識形態는 마르크스 主義者가 바라는 것과는 判異한 實情이다.

나아가서 歴史的 唯物論에 의하면 社會主義革命은 最高度로 發展한 先進資本主義國家로부터 시작하여 成就될 것 같지만 現實의 事態進行은 전혀 判異하다. 애당초 1917年의 러시아는 後進資本主義 國家였고, 1949年의 中國은 「半植民地, 半封建 國家」였던 것이다.

하물며 北韓의 경우는 8.15前夜의 時點에서 日帝의 完全한 「植民地」統治下에 놓여 있었으며 南韓과 마찬가지로 그 社會構造體는 自律的인 生産力 發展을 논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으로 말미암은 「階級鬭爭」이전에 「民族解放鬭爭」이 先決問題로 될 수 밖에 없었다. 나아가서 8.15以後에도 「마르크스」의 圖式과는 判異한 行程이 予見되게 마련이었다. 共産黨의 의거해야 한다는 「近代的 産業프롤레타리아트」도 미약하기 그지 없었으며, 애당초 共産黨의 創建부터가 문제였던 것이다. 植民地·後進社會였던 北韓의 共産化는 오직 蘇聯軍의 進駐와 그 赤化占領政策의 結果로서 풀이되기 시작하였다.

社会革命에 관한 마르크스·레닌主義 戰略·戰術은 그들의 實踐과 鬪爭形態를 좌우하는 基準으로서 重視된다. 유난히 浮刻되는 局面은 ① 革命의 原動力 ② 革命의 條件 또는 「革命的 情勢」 나아가서 ③ 革命의 性格 내지 革命의 段階設定 등이다. 우선 前二者에 관한 論議부터 整理해 보고자 한다.

革命의 原動力에 관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는 넓은 階級支配를 뒤엎을 수 있는 「先進的階級」을 前面에 내세우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資本主義 大企業에서 集團적으로 勞動하는 「近代的 産業 프롤레타리아트」를 지칭한다. 그들에게 組織性和 意識性を 期待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무리 가난해도 都市의 「스람」街 등에 散在하는 소위 「롬펜·프롤레타리아」들은 믿지 못할 存在이며 先進的階級이 아니라고 한다. 農民들도 그 意識形態가 散漫하며 雇農 (農業勞動者)나 貧農(小作農) 일부를 除外한다면 흔히 「小資產階級的」 혹은 「獨立生産者的」이어서 先進的階級이라는 評價對象으로 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後進社會에서는 近代的 産業「프롤레타리아트」의 수요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著作에 찾아볼 수 없던 소위 「勞農同盟」論을 제시하여 소수인 産業 「프롤레타리아트」를 核心으로 農民들까지 革命의 隊列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毛沢東의 中共革命에 이르러서는 그 主力이 사실상 農民이다시피 했던 것이다.

革命成功의 條件에 관해서는 客觀的 要因과 主體的要因이 구별되

고 있다. 즉 客觀的 要因이란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이 激化되는 가운데 現存하는 國家體制가 重要하고 權力의 正統性이 상실되는 情勢發展이라고 하며 특히 이 內的矛盾을 外部에 發散시키고자 戰爭을 挑發했다가 失敗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한 불이 이상으로 共產主義者들이 자주 引用하는 簡單化된 「레닌」의 教條的 表現이 있다. 「레닌」은 말하기를 「下層이 낡은것을 바라지 않을 뿐더러 上層이 종전 方式으로는 헤나갈수 없을 적에 비로소 처음으로 革命은 승리할 수 있다. 換言한다면 이 진리는 革命이란 全國民的인 (被收奪者와 收奪者를 포함하는) 危機없이는 발발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된다」<sup>9)</sup> 고 했다.

이에 더하여 共產主義者들은 革命의 「主體的 要因」의 成熟도 필요하다는데 그 내용은 「革命的階級」의 「組織性과 意識性」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오로지 그 階級的 「前衛部隊」라고 부르는 「마르크스·레닌主義 政黨」에 의해서만 배양된다는 것이다.<sup>10)</sup>

共產黨의 戰略·戰術은 理論的 批判의 對象이 아니라 警覺心을 높여야 할 對應上의 問題提起일 따름이다. 다만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實踐에 대하여 「指針」으로 된다는 만큼 그 信靠 혹은 逸脫度의 測定은 特殊形態 내지 變質過程의 分析에 있어 「原型과의 距離」를 알아보는 데 도움된다고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革命의 原動力으로서 「近代的 産業프롤레타리아트」를 지적했고 또 「레닌」은 「勞農同盟」을 말하였다.



그러나 8.15 당시의 北韓의 「프롤레타리아트」란 무엇보다도 수요에 있어 미약했다. 南北韓을 통털어 봤자 工場·鎭山·土建의 3部門에 종사하는 勞動者 總數는 1938년에 60萬未達이었다. 그후 日帝의 「大陸兵站基地化」政策으로 약간의 工業建設이 진전된 것을 사실이라 해도 1943年線에서도 모든 分野에 걸친 南北韓 勞動者總數는 175萬임에 그쳤다고 알려져 있다.<sup>11)</sup> 그 무렵 産業의 地理的 配置를 볼적에 南韓에는 輕工業·北韓에는 重工業이 偏在되어 있었다. 北韓만의 「産業프롤레타리아트」數는 8.15의 時点에서 아무리 誇張해봤자 約 100萬線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곳 1200萬 人口중의 1割未達이었으며 그나마 処遇와 意識形態가 한결 같을리 萬無했던 것이다.

그러한 事情은 蘇聯軍 占領下의 共產執權후에도 北韓指導層의 어쩔 수 없는 고민 또는 모순으로 남아 있었음이 명백했다. 1948年의 第1期 「最高人民會議」 代表員들의 社会成分別 統計에 의하면 總 572名중 勞動者 120名(21%), 農民 194名(34%), 事務員 152名(26.7%), 文化人 33名(5.8%), 企業家 29名(5%), 商人 22名(3.7%), 手工業者 7名(1.2%), 其他 15名(2.6%)이었다고 한다.<sup>12)</sup>

한편 「革命情勢」分析에 있어 8.15 당시의 北韓에는 日帝의 敗亡과 蘇聯軍의 進駐라는 國際情勢의 激動 外에는 「레닌」의 見解가 전혀 적용될바 아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革命的階級」의 「組織性과 意識性」이 거의 欠乏되었고 그 「前衛部隊」라는 共産黨도 存在하지 않았다.

金日成 자신도 회고했듯이 「붉은 軍隊가 朝鮮땅에 들어선 그 시각부터 北朝鮮에서는 共産黨이 組織되기 시작」<sup>13)</sup> 했다는 實情이고 나아가서 「붉은 軍隊가 주둔하고 있는 有利한 條件을 이용하여 共産黨의 影響을 擴大 강화하고 北朝鮮에 民主主義基地를 튼튼히 축성·강화하여야 할 革命課業이 提起」<sup>14)</sup> 되었다는 형편이었다.

요컨대 北韓의 共産化는 「革命情勢가 存在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軍事的占領을 背景으로 強要된 「밖으로부터의 革命」이었으며 또 下向式 革命이었던 것이다. 그 「土着化」過程의 「自主的」變質은 차후에 검토키로 한다.

나아가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革命的 性格」規定 따른 「革命的 段階設定」을 매우 重視한다. 「革命的 性格」 또는 그 形態는 革命的 目的과 課業에 따라서 規定한다고 한다. 例컨대 反帝·反封建·民主主義 指向이면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이라는 性格을 지닌다는 것이다. 中共의 用語例에 의하면 「資產階級性·民主革命」 또는 「新民主主義」란 것이 이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1789年의 프랑스 大革命과 比較할적에 反帝·反封建·民主主義 등 課題는 같아 하더라도 革命的 領導勢力이 그때에는 「부르조아지」였으나 오늘날에는 資產階級이 아니라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이니 하

는 새로운 指稱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은 現代革命의 特徵에 관하여 ① 革命의 領  
導階級은 「프롤레타리아트」로 移行했으며 「부르조아지」는 벌써  
퇴폐했거나 反動化했다는 것 ② 革命運動은 「前衛政黨」 즉 共產黨  
에 의하여 計劃적으로 조직·추진된다는 것 ③ 革命運動의 國際主義  
的 連帶性이 필요한데 그 支援力量은 이미 強大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강조하는데 거의 일치되어 있다. 이른바 「부르조아 民主主義  
革命」이란 것도 그 文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모스크바」  
의 불이에 의하면 「蘇聯共產黨은 세계의 革命 즉 1905年 내지  
7年의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 1917年 2月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  
同年 10月의 社會主義革命을 통해 러시아의 諸民族을 領導하여 蘇  
聯人民을 社會主義의 世界史的 勝利에 도달시켰다」<sup>15)</sup>고 한다. 어  
쨌든 歷史的唯物論의 公式에 執着하여 「社會發展史」를 金科玉條視  
하는 共產主義者들은 後進社會에서 單번에 「社會主義 革命」이 이  
루어 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現代의 後進社會에서는 먼저 「부르  
조아 民主主義革命」같은 것을 先行시키고나서 곧이어 「社會主義  
革命」으로 移行한다는 식인데 蘇聯의 경우는 그 간격이 불과 8  
개월이었으니 그들의 敎修主義도 形式的인 것에 지나지 못한다.  
하기야 共產主義者들은 先進資本主義國家라면 革命을 통해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수립하는 社會主義革命이 가능하다고 믿는  
형편이다.

그러다가 2次大戰後 아시아와 東유럽의 共產黨執權過程에서는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라는 새 用語가 慣用되기 시작하였다. 흔히 反「팍쇼」 統一戰線을 基調로 共産党이 영도하는 反帝・反封建 勢力을 규합한 聯合政府形態를 指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中共에서는 이 用語와 더불어 「新民主主義」라는 말이 混用되었다. 共産主義者들 간에도 「人民民主主義」의 概念規定에 관해 적잖은 混亂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프롤레타리아 獨裁」와의 관계가 문제 시되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人民民主主義 역시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한 形態」라고 설명하는데 滯結되었는데, 말하자면 「社會主義로 가는 多様な 道」에서 共産党 영도 아래 過渡的으로 採沢된 各層「人民들」의 聯合獨裁라는 풀이였다.

그 「人民民主聯合獨裁」란것을 「社會主義制度下의 프롤레타리아트 獨裁」와 비교할적에 두드러진 特徵으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要約되는 形편이다.

- ① 統一戰線에 입각하는 政府形態를 가진다.
- ② 따라서 一時的이나마 多黨制 같은 外樣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共産党執權下에 野黨이란 있을수 없으므로 여타 政黨들은 이른바 「友黨」으로서 둘러리 구실을 담당한다.
- ③ 당분간 農民 및 中小商工業者 등의 個人經營과 부분적인 資本家的 經營도 許容되지만 점차 「社會主義的 改造」에 들어간다.
- ④ 共産党이 統一戰線에 참가했던 여타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人士들을 「思想改造」로 흡수하거나 숙청함으로써 「프

를레타리아独裁」로 進入하고 「社会主義」를 前面에 浮刻시킨다.

여기에서 「人民民主主義」라고 할적에는 ①人民이란 무엇인가 ②民主와 프롤레타리아独裁는 어떻게 調和될 수 있는가하는 根本的疑問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이점에 관하여 毛沢東은 人民이란 「勞動階級, 農民階級, 都市小資産階級 및 民族資産階級」이고 그들이 「勞動階級과 共産党的 指導下에 團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한편 人民이 아닌 敵對勢力으로는 「帝國主義의 앞잡이 즉 地主階級과 官僚資産階級 및 그러한 階級들을 대표하는 国民党反動派와 그 共犯者들」이라고 했었다. 그리하여 「人民」의 内部에서는 民主主義를 하고 敵對階級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独裁를 한다는데 그 두가지 側面이 結合된것이 「人民民主独裁」라는 식이다.<sup>16)</sup> 北韓의 金日成도 毛沢東의 그 主張을 답습하려고 했다.

요컨대 人民民主主義란 社会主義로 향해가는 프롤레타리아트独裁의 過渡期的 移行形態로서 부르조아民主主義가 아닐뿐더러 아직은 社会主義도 아닌 것이라고 한다. 人民民主主義의 經濟「우클라트」(Uklad = 生産關係의 類型)은 다섯가지로서 ①社会主義的인 国营經濟 ②半社会主義的인 協同組合經濟 ③資本主義的 經濟 ④國家資本主義的 經濟 ⑤農民 및 手工業者의 個人經濟라는데 ①과 ②를 發展시키고 다른 모든것을 점차 소멸시켜나가면 결국 社会主義 經濟에 도달하리라는 것이다.

革命的 發展段階設定에서는 ①人民民主主義 다음에 ②社会主義建設

내지 「社会主義의 全面的勝利」 ③ 社会主義로부터 共產主義에로의 過渡的 移行段階란 것이 분별되고 있다. 그들의 社会主義 段階란 生産手段에 대한 社会的 所有가 확고히 실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노골화, 資本家와 中小企業者의 完全 소멸, 農業의 集團化完成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共產主義에로의 점차적 移行」段階에 들어섰다고 자부하는 나라는 蘇聯뿐이다. 그 段階의 특징으로는 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통한 階級의 完全한 소멸에 따르는 이른바 「全人民國家」, ② 生産手段의 生産 즉 重工業이 높은 水準으로 발전하여 消費手段의 生産 즉 輕工業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③ 協同組合 所有의 全人民的 所有에로의 轉換, ④ 肉體勞動과 精神勞動간의 차이, 都市와 農村간의 격차 解消의 本格化, ⑤ 「共產主義的 人間型」을 育成한다는 敎育과 文化活動의 高度發展 등이 謳歌되고 있으니 그들의 理想과 現實간의 거리는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共產圈과 그 바깥世界 同調勢力의 實情은 理論과 實踐의 兩面에 걸쳐 革命의 段階設定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은 中共이 지적하는 「蘇聯現代修正主義」가 새로 들고나온 「民族的 民主主義 革命」論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混亂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蘇聯은 1960年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81개국 共產黨 및 勞動 黨會議」를 主導하면서 2次大戰後 한동안 그들 자신이 떠들던 人民 民主主義도 이제와서는 新生國(舊植民地)들이 대부분 獨立하였고

한편 先進資本主義諸國에 의한 「新植民主義」가 주목되는 판국이므로 그 歴史的役割이 거의 終了된 것처럼 示唆하였다. 그리하여 新生國・後進地域의 革命은 巨視적으로 社會主義를 指向하는 점은 마찬가지이나 當面課題는 反帝(反美・親蘇)와 非同盟 中立主義면 즉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르렀다. 이에 대해 中共은 그러한 路線을 점차 「革命의 포기」이고 「現代修正主義」이며 蘇聯의 國家利益을 本位로한 「霸權主義」라고 비난하게 되었다. 그후 한동안 蘇聯의 「民族的 民主主義」와 中共의 「人民民主主義」革命論을 比較, 對照할 때 다음과 같은 路線의 差異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 ① 「人民」의 概念에 관하여 蘇聯은 넓게 해석하려 했으며 「反帝」이기만 하면 例컨대 아랍圈의 種族首長들과 氣에 찬 軍部指導層도 人民의 테두리에 포섭할 用意을 보였다. 다른한편 中共式은 封建勢力을 人民이라고 보지 않으며 주로 左派勢力만을 支援하려 했다.
- ② 蘇聯式은 「前衛黨」(共産黨)이 없어도 解放鬪爭推進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中共式은 당장 「前衛黨」의 役割을 絶對視하다싶이 했다.
- ③ 協商에 관하여 蘇聯式은 그것으로 「帝國主義」를 弱化・龜裂시키거나 더 많은 讓步를 얻어내는 手段으로 보는데 대해, 中共式은 協商을 통해 革命勢力의 伸張을 피하려 했다.
- ④ 蘇聯式은 「平和共存」으로 體制간의 競争에 이길수 있다고 보지만 中共式은 「農村에 의한 都市의 包圍」등 統一戰線

戰略을 國際關係에도 적용하려 하며, 平和共存은 戰略的 次元에서 考慮될 따름이었다.

⑤ 革命에 관하여 蘇聯式은 「平和的 移行」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中共式은 暴力革命 一辺倒였다.

⑥ 蘇聯式은 影響力을 擴張시킬 對象地域에서 實力者集團을 物色하지만, 中共式은 革命勢力 主体의 統一戰線 形成을 모색하였다.

⑦ 蘇聯式은 被援國에 대해 土地改革과 重要産業國有化등 積極적인 「進歩的」措置를 중용했으나, 中共式은 早速한 革命方式을 促求하였다.

하기야 中共의 人民民主主義 革命論도 1976年 毛沢東이 死亡하고 곧이어 華國 · 鄧小平體制가 「4人幫」을 肅清하면서 「實用主義」 · 「現代化」路線을 定着시키게되자 커다란 變質이 관측되는데 이르렀다. 急進的 「革命主義」의 褪色과 「中華 復興」위한 民族主義的 性向이 抬頭하게 된것이다.

무릇 마르크스 · 레닌主義에 의한 革命의 段階設定은 植民地 · 半植民地 · 從屬國家등 後進社會의 경우 先決問題가 反帝 · 反封建 民族解放鬪爭이고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을 거쳐 社會主義 革命으로 移行한다는 것이 骨子이다. 그런데 2次大戰後 社會主義 이전의 段階에 관하여 「人民民主主義」가 제창되다가 뒤이어 中共式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의 고립과 蘇聯式 「民族



的 民主主義」論의 對照를 보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中共式 「革命主義」도 1976年 이후로는 民族主義的 性向이 짙은 「實用主義」의 浮刻을 보게했는데 아직은 流動的인 一面이 있다.

그러면 朝鮮勞動黨(北韓共產黨)의 革命的 段階設定에 관한 理論과 實踐은 어떠한가 물론 그들은 北韓에 있어서 人民民主主義를 졸업하고 社會主義로 移行했음을 말할것이지만 事態 進行의 實相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朝鮮勞動黨(北韓共產黨)은 1970年의 제 5차黨大會에서 改正, 採択한 規約의 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보장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 社會를 건설하는데 있다」<sup>17)</sup>고 했다.

한편 제 5차黨大會 決定書는 「南朝鮮革命은 美帝國主義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民族解放革命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들인 地主·買辦資本家·反動官僚輩들과 그들의 搾取統治를 반대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고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北韓에서는 이미 쟁취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보장해 나가되, 社會發展段階를 달리한다는 南韓에서는 「反帝·反封建 民族解放鬪爭」을 앞세우면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할 것이라는 식이다. 그런데 이른바 「南朝鮮革命」에 관하여 말한 前段은 文章 表現上 蘇聯式 民族的 民主主義를

聯想케 하면서 그 後段은 中共式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을 내세운 것으로 모스크바와 北京의 雙方 눈치를 고루 본 셈이다. 그 前段과 後段이 「동시에」라는 말로 연결된 것 같으나 단번에 두 토끼를 쫓으려면 論理的 一貫性이 成立되지 않는다. 表現이야 어떻던 朝鮮勞動黨의 革命論과 그 實踐의 力點은 「人民民主主義革命」의 急進的 形態임이 명백하였다.

北韓自體의 「社會主義 建設」에 대해서는 次章에서 별도로 診斷·檢討하고자 한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의한 革命의 段階設定은 歷史的唯物論의 公式과는 달리 革命이 資本主義가 高度로 발전한 先進國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로 後進社會에서 共産黨이 執權하게 된 理論的 矛盾을 카버해 보려는 試圖와 많이 결부되고 있다. 말하자면 「事前行爲」(Anticipation)을 合理化해 보려고 한 것이다. 事前行爲란 後進社會에서 資本主義의 成熟을 거치지 않고 社會經濟的 條件과 프롤레타리아트의 準備도 欠如된 狀態에서 革命으로 갑작스러운 跳躍을 달성해 보려는 無理強行을 뜻한다. 그 過程은 類例없는 苦痛에 충만될 수 밖에 없었고 民衆의 抵抗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프롤레타리아 獨裁」라고 이름하는 가장 처참한 暴力行使를 수반해야만 했던 것이다.<sup>18)</sup>

北韓의 「社會主義」建設은 그 苛酷한 實例로서 浮刻되는데 그들의 實踐은 흔히 「스탈린主義」의 後進的 形態라고 알려져 왔다.

第二章 社会主义建設에서 보이는  
스탈린主義의 異端的 特殊形態

告第... 附... 雜... 裝... 第... 冊... 知... 詳... 詳... 接... 詳... 大...

## 第二章 社會主義建設에서 보이는 스탈린主義의 異端的 特殊形態

1961年 9月 勞動黨 제 4 차黨大會에서 한 報告를 통해 金日成은 「1958년에 와서 거의 동시에 完成」되었다는 「農業·手工業 및 資本主義的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자랑하였다. 또 이 時期까지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基礎를 築成」하였다고 했다.<sup>19)</sup>

여기에서 우선 주의할것은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先行시키지 않고 「人民經濟」의 全分野에 걸친 「社會主義的 改造」부터 強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歷史的唯物論에 비추어 異論이 있을뿐더러 蘇聯의 스탈린主義 모델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에 의하여 「해방후 우리나라 북반부에서는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북반부는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나 「전쟁 전에는 필요한 사회 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사회주의적 개조는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로는 그 준비사업」이 진행된데 불과했는데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은 모두다 1958년에 와서 거의 동시에 完成」을 보았다고 한다.<sup>20)</sup> 그의 報告는 매우 중요할 뿐더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50年 6月 25日에 발발한 韓國戰爭이 休戰協定 체결로 일단락된것은 1953年 7月 27日의 일이다. 그 3年間的 戰爭은 北韓共產政權이 認定하듯이 「北朝鮮의 經濟發展을

中斷시켰을 뿐만 아니라 全面的 破壞를 초래」하였다는 것인데 休戰 후 불과 4~5년에 社會主義的 改造가 완성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그들의 戰爭被害統計에 의하면 工業總生産은 戰爭前에 비해 40% 이상이나 감퇴되었다고 하며, 水産業에서는 漁船 및 運搬船이 戰前에 221隻이던것이 42隻만 남았고, 農村經濟에서는 많은 農地가 爆撃으로 耕作不能 상태였고 勞動力과 役畜의 부족으로 休耕地化했으며 예컨대 果樹面積은 45%가 破壞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sup>21)</sup> 나아가서 「戰後人民經濟復旧發展 3個年 計劃」(1954~6)이 그들의 表現대로 2年1個月 내지 2年半에 「超過完遂」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1956年の 일이고, 그 戰災「復旧」를 더디고 第1次 5個年計劃이 着手된것은 1957年부터의 일인데 그 다음해에 벌써 「社會主義的 改造」가 완성되었다고 하므로 이러한 日程은 外部世界 이상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信奉者 자신이 경악을 금치 못할 형편이었다. 사실 勞動黨 내부에서도 理論的 紛糾가 적지 않았는데 그점은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告白에 비추어보더라도 明白하다.

金日成은 3차黨大會 報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社會主義的 改造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生産력의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고 기술이 낙후한 조건하에서 戰後 불과 4~5年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일부 教條主義者들은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실현하지 않고는 생산관계의 개조가 불가능하다>느니 <현대적 농기계가 없이는 농업을 협동화 할 수 없다>느니 또는 사회주의적 개조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느니 하면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으며 동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후 시기 사회주의적 개조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을 반영하는 法則的 現象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읍니다.]<sup>22)</sup>

그 경우에 金日成이 제기한 自家辯明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현대적 농기계에 관하여 말한다면 물론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농업까지 포함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지 않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 수준은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 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또한 그것을 담당할만한 혁명적 력량이 준비되었을 때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지연시킬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침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조를 실현할 수 있으리만큼 공업이 발전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우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수행함으로써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특히 기술 혁명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으려는데 있었읍니다.]<sup>23)</sup> .....

—그가 反駁하려고 試圖한 對象 즉 「일부 教條主義者들」이  
란 勞動黨에 理論家들 만에 그치지 않고 차후 對蘇關係惡化  
時에 判명되었듯이 蘇聯共産党中央委員會의 見解까지를 포함한  
것이였다 (後述). 그리고 金日成의 反論내용은 理論적으로  
지극히 소박한 域지에 불과하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指針을  
벗어난 것이다. 고작해야 그들이 배격한다는 唯心論的인  
「政治第一·思想優先」의 缺點에 지나지 못한다.

蘇聯의 경우를 보면 世界列強이던 러시아帝國의 遺産을 계승했음  
에도 그 「社會主義」建設에는 僻 長久한 時日이 소요되었다.

1917年의 「社會主義 10月革命」후 1934年 1月의 第17次 黨  
大會에서 「經濟面에서 社會主義의 全面的 勝利」를 謳歌하기 까지  
는 실로 17年을 필요로 했다. 1925年 12月의 第14次 黨大會  
가 나라의 工業化·生産財 生産의 優先的 發展, 蘇聯을 資本主義의  
世界經濟의 附屬物이 되지 않게 하려는 自立經濟建設 등을 決議한때로  
부터 셈하더라도 1934年의 「勝利者의 大會」까지는 10年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 나아가서 스탈린이 「社會主義 憲法」이  
公布된것은 1936年의 일이다.

그것과 對備할때 北韓은 갓 「解放」된 後進社會的 與件에 다가  
6·25動亂에 따른 全面的 破壞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戰後 불과  
4·5年에 「社會主義的 改造의 완성」을 謳歌했으니 무엇인가 잘못  
되었고 無理強行이 차후에 큰 後遺症으로 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58년에 「社会主義的 改造의 완성」을 말한 北韓執權  
層이 1961년에야 「社会主義 工業化」를 말했으며 또 그들의  
「社会主義 憲法」이 1972年末에 가서야 가까스로 구색을 맞추려  
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도대체 金日成이 말한 「社会主義的 改造」의 實質은 무엇이었던  
가. 金日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①「社会主義的改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農村經理의 協同化」  
인데, 「1958년 말에 里 단위로 協同組合들을 統合하고 里  
人民委員長이 協同組合 管理委員長을 겸임」하게 하였다는 것  
— 이것은 行政的 強力조치를 뜻하며 經濟的 基礎가 欠如된  
組織事業에 불과하기 때문에 砂上樓閣과 같은 것이어서 앞으  
로 統制力이 이완되는 날에는 곧바로 土地改革 당시처럼 獨  
立的 小農經理로 환언될 가능성을 지닌 셈으로 된다.

②「手工業의 協同化」를 「戰後 數年間に 성과적 으로 완성」했  
다는 것.

③「企業家·商人들을 生産協同組合에 망라」함으로써 그들을  
「社会主義 勤勞者로 改造」하였다는 것.

④그리하여 「社会主義的 生産關係는 唯一的 支配를 確立」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sup>24)</sup>

— 勞動黨 規約前文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우리나라 現実に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할 金日成同志의 위대한

主体思想을 自己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北韓의 「社会主義」를 보면 金日成의 「主体思想」쪽이 마  
르크스·레닌主義의 「科学的 社会主義」를 이른바 「教條主義」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歷史的唯物論의 本質과 基本命題를 公式化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人間은 自己生活의 社会的 生産에  
있어서 그들의 意思에 依存하지 않는 일정한 必然的인 再生産에  
즉 그들의 物質的 生産力의 일정한 發展段階에 相應하는 生産關係  
에 들어선다. 이 生産關係의 總體는 社会的 經濟的 構造 즉 現  
實的 土台를 形成하는 것이며, 그 土台 위에 法律的 政治的 上部  
構造가 서며 또 일정한 社会的 意識의 諸形態가 이 土台에 相應  
한다. 物質的 生活의 生産方式은 社会的 政治的 精神的 生活過程  
一般을 制約한다. 人間의 意識이 그들의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社会的 存在가 그들의 意識을 決定한다.  
社会的 物質的 生産力은 그發展이 일정한 段階에 도달하면 이때까  
지 그 生産力이 그 내부에서 發展되고 있던 現존 生産關係와 矛  
盾되게 되며 또는 이 生産關係의 法律的 表現에 불과한 所有關係  
와 矛盾되게 된다. 이 關係는 生産力의 發展을 위한 形態로부터  
桎梏으로 변한다. 그때에 社会革命의 時代가 到來한다」<sup>25)</sup>고.

바로 그 基本命題를 金日成은 倒置한 꼴이다. 또 아무리 「事  
前行爲」(前章參照)의 革命이라도 執權후에는 下部構造(土台)의 整備  
를 促成하고 나서 새上部構造를 「社会主義」라고 부르는 것이

蘇聯의 先例였는데 北韓의 경우는 그것도 無視하다 시피 했던 것이다. 무릇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生産關係는 生産力發展에 相應해야 하는 것이지 強權的 「支配」에 의한 標榜만으로 變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金日成이 4차黨大會 報告에서 回顧했듯이 党内 異論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 경우에 그들을 「教條主義者들」이라고 불렀으며 「일부 同志들」이라고는 指稱하지 않았는데 미루어 肅清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그 무렵 蘇聯共産黨도 北韓의 「마르크스主義 逸脫」과 「蘇聯의 先例 無視」를 보다 못해 某種의 忠告 내지 「内政干涉」을 試圖했음이 後日에 밝혀졌다.

1963年 中·蘇紛糾 表面化過程에서 北韓의 中共接近이 浮刻될때 勞動党中央委機關紙 「노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남의 内政에 간섭하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은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에서 달성하는 兄弟黨들의 實質的인 成果에 대하여 關心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兄弟黨들을 의심하며 兄弟黨들이 自己의 「訓示」대로 움직이는가 自己의 經驗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가 않는가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지난 時期 일부 同志들은 우리黨의 社會主義建設事業에

대하여도 응당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個年計劃은 幻想」이라느니 「機械製作工業을 建設할 필요가 없다」느니 「農業協同化의 速度가 너무 빠르다」느니 「農機械가 없이 어떻게 農村經濟를 協同化할 수 있겠는가」하는 등 남의 實情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是非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決定대로 獨自的으로 行動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손해를 받은 것은 없었다」<sup>26)</sup>

그런데 北韓의 「社會主義」建設을 에워싼 論爭은 統一問題와의 關聯에서도 熾烈했다고 한다. 金日成 자신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정전후 우리 당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과업을 제기하였을때 일부 사람들은 南北이 統一되어 全國的으로 反帝·反封建의 民主主義 革命이 승리할때까지는 北半部에서 革命을 더 전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社會主義的 改造의 「時期尙早論」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북반부에서의 社會主義 革命이 마치도 祖國統一의 위업에 모순되며 특히는 南朝鮮의 모든 愛國的 民主力量을 反帝·反封建 鬪爭에 동원하는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은 見解였습니다.

南朝鮮이 해방되지 않았고 南朝鮮에서 民主主義 革命이 승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北朝鮮이 한자리에서 담보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共和國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主義 建設은 北半部 社會發展의 억제할 수 없는 요구로서 뿐만 아니라 北半部 民主基地를 政治 經濟的으로 공고화해야 할 朝鮮 革命의 절박한 요구로서 제기되었습니다. 北半部에서 資本主義 要素를 근절하고 反革命의 지반을 總국 적으로 청산하며 도시와 農村에 社會주의 진지를 확고히 축 성하는 것은 朝鮮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sup>27)</sup>

— 그러나 次後의 事態發展은 다름아닌 金日成의 주장 자체가 「옳지 않은 見解」였음을 歷史的으로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北韓에서 이른바 「社會主義」를 한다는 無理한 強行軍은 韓國(南韓)에서 南과 北의 「異質化」문제를 浮刻시키게 될 것이다. 北韓의 實情이 民族의 傳統文化와 멀어 갈수록 南北間의 違和感이 짙게 되고 따라서 統一接近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金日成은 앞서 引用했듯이 「우선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수행함으로써 生産力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특히 技術革命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言說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修正정도도 아닌 顛倒라고 볼것인데 그점을 且置하고라도 그후의 事態進行은 金日成의 主觀的 期待가

전혀 어긋남을 말하여 준다. 1970年度에 접어들면서 南北韓의 經濟力 특히 工業生産力 比較는 韓國(南韓)측의 급속한 成長과 그 追越을 實証하였으며 北韓은 相對的 劣勢에 몰리게 된 것이다. 北韓執權層의 「技術革命」口號도 그 基盤이 欠如되었던 만큼 空洞化될 수 밖에 없었으며 勞動生産性 向上을 위한 「思想的 刺戟」方式의 動員도 限界點에 도달한 느낌이다. 北韓은 産業裝備의 老朽化와 더불어 技術的 落後性을 痛感한 나머지 일부 西方國들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자 애써왔으나 그 結果로 모처럼 建設된 合作 「플란트」조차 제대로 稼動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實情이라고 알려져 왔다.

農業을 보더라도 北韓에서의 급속한 「社會主義的 改造」는 生産力 增強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 北韓의 社會主義的 農業 協同化運動은 中共보다 1.2年, 東歐보다 4.5年 뒤늦게 着手되었으나 그 展開의 tempo는 매우 빨랐고 또 初期부터 가장 높은 形態로 強行되었다는데 特徵이 있다고 한다.<sup>28)</sup> 즉 農業協同化의 첫째 形態인 勞力協助班 組織이라든지, 둘째 形態인 土地의 統合과 共同經營 후의 勞動日 및 出資土地 따른 分配라는 過渡期를 거의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자기 「上部指示」에 의해 土地와 役畜 및 農機具 등 基本的 手産手段을 組合에 統合당하고 分配도 오직 勞動의 点数따라 배당 당하는 「最高度의 形態」로 動員당했다는 말인데, 이는 農村經理 集團化에 관하여 「스탈린」조차 강조해 마지 않았던 「自願性의 原則」을 위반했음이 틀림없다. 그나마

都市의 工業에 의한 뒷받침이 없었다. 1977年の 統計에 의하면 南韓의 農機械保有數가 6만 2천 6백대 였는데 北韓은 6만대에 그쳤고 헥타르당 施肥量도 南韓이 3백 79.7키로 인데 비해 北韓은 2백키로 水準이었다고 한다.<sup>29)</sup> 그 結果는 오직 強權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砂上樓閣的인 農村經理 集團化의 그늘에서 農業生産力의 發展이 遲遲不振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理想的 刺戟」이나 「靑山里 方法」(後述)이란 것에도 限界性이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이상에 보듯이 1961年の 勞動黨 제 4차大會는 「社會主義的 改造의 完成」이나 「社會主義 基礎建設」 「社會主義 制度의 確立」등을 謳歌했으나, 그것은 生産力 發展에 相應한 生産關係의 改造가 아니었으며 또 社會主義 工業建設을 先行시킨 農村經理 集團化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主義의 「指針」에 어긋났으며 蘇聯의 「先例」에도 배우지 않은 金日成의 성급한 獨斷的 決定으로서 그 後遺症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거듭된 經濟計劃의 차질로 나타났다.

원래 北韓은 休戰후의 「人民經濟復旧發展 3개년計劃」(1957~6)에 이어 「5개년計劃」(1957~61)을 策定했었다. 그런대로 3個年計劃은 蘇聯의 10億루블, 中共의 8兆円을 비롯한 東歐共產圈 各國의 資金 및 技術의 無償援助(合計 5億 5千 8百萬 달러 상당)導入에 힘입어 戰前 水準 회복과 약간의 新規工場 建設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나 5個年計劃부터는 차질이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北韓當局은 그 計劃을 2年 4個月 短縮하여

1959年 8월로 「수행」했다고 1961年의 4차党大会에서 어색한 語調로 報告했으나 그 내막은 失敗로 인한 「中斷」으로 관측된다. 「期限前 完遂」를 발표했음에도 60年을 이른바 「緩衝期」로 설정한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며 失敗의 糊塗에 바빴던것 같다.<sup>30)</sup> 蘇聯의 外面따라 外資導入이 如意치 않았으며 「社會主義 工業化의 土台」구축이란 勞力動員만으로 달성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차党大会는 또 「7個年人民經濟計劃」(1961~7)을 채택한다고 했다. 그 基本課業은 ①重工業의 優先的 發展 ②輕工業과 農業의 병행 發展 ③全面的 技術革新 ④文化革命과 人民生活的 向上이라고 제시되었다. 計劃의 施行은 1963年까지의 前3年間에 ①기존 重工業基地의 整備 ②輕工業 原料基地의 造成 ③消費材 生産擴大와 品質提高 ④農村經濟發展과 住民向上을 이룩한다고 했다. 이어 後4年에는 ①重工業基地의 확장 ②技術設備의 強化 ③人民生活的 向上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7個年計劃은 失敗作이었으며 1966年에 이르러 3年間이나 期限을 延長하여 1970年까지 완수한다고 하면서도 그 目標의 達成에 未達했던 것이다.

金日成은 4個年計劃의 3年延期에 관하여 1970年 11月의 제 5차党大会에서 다음과 같이 꾸밈 하였다.....



지난 몇해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이 노골화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 간의 복잡한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우리의 革命과 건설에는 커다란 난관과 애로가 가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전체 인민들을 마스·레닌주의 革命思想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특히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승리를 튼튼하게 하는 한편 인민 경제의 발전 속도를 일부 조절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인 큰 힘을 돌려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가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은 1966年 10월에 역사적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革命 대오를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사업을 개편하며 원수들의 격화되는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 노선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7개년 계획 수행을 3년 동안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sup>31)</sup>

— 이상 金日成은 7개년 계획의 3년延長이 不可避하게된 要因을 이른바 「美帝國主義者들의 侵略策動」이니 「國際共產主義 運動간의 複雜한 情勢」등 國際的 環境안에 轉嫁시키려 애썼다. 北韓의 体制的 矛盾에는 스스로 言示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하기야 1962년의 「쿠바」事態에 즈음한 蘇聯의 對美讓步  
따른 對蘇信賴感의 崩壞, 1962年 12月에 表面化하기 시작  
한 中蘇紛糾의 深刻性, 北韓의 親中共路線과 모스크바의 平壤  
不信, 越南戰의 擴大와 韓國軍의 越南派兵 實現氣運, 韓日會談  
의 進展등 客觀情勢의 激動을 지적할 수는 있다. 또 모스  
크바가 느끼는 北韓의 觀念的 社會主義 路線과 그 「自給自  
足」 指向에 대한 懷疑와 이로 말미암은 經濟·技術協力 拒  
否反應등이 平壤에 대해 커다란 打擊으로 되었을 것은 틀림  
없다.

하지만 北韓의 體制와 蘇聯의 對北韓關係는 함수관계에 놓  
여있으며 그들의 경우에도 內治와 外政은 相互依存性  
(Interdependence)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金  
日成集團은 緊張을 먹고사는 生理를 지니고 있어 그 體制的  
矛盾은 항봉 注意外轉의 手法으로 糊塗되어왔던 것이다.

金日成은 1966年 10月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國際  
的 緊張狀態를 誇張하면서 「많은 人的 및 物的 資源을 國  
防에 돌려야 할 것이며 이것은 나라의 經濟發展을 일정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人民經  
濟의 發展速度를 좀 調節하더라도 祖國保衛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應당 國防力을 強化하는데 더 큰 힘을 돌려야 합니

다」<sup>32)</sup> 고 말했었다. 하나 당시의 韓半島情勢에 관하여 戰爭危機 같은것을 浮刻시 키려는 사람은 金日成集團 외에는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다.

7개년計劃의 보다 큰 延長 理由는 計劃자체의 무모한 目標策定, 中央集權的 經濟管理体制의 非効率, 技術革新의 基盤과 大衆的熱意의 欠如, 思想的刺戟을 통한 勞力動員의 非効率性과 그限界到達 그리고, 蘇聯·東歐圈에 기대했던 借款 및 技術導入의 破綻등으로 풀이 된다.

7개년계획의 失敗를 비롯한 內憂外患의 交錯속에 北韓은 9년동안이나 党大會를 소집할 수 없었다. 1970년 11월에 이르러 비로소 제 5차 党大會가 소집되었다. 그 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은 「總結期間 社會主義 建設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成果는 社會主義 工業化의 歷史的 課業이 빛나게 實現되어 우리나라가 社會主義 工業國家로 轉變된것」<sup>33)</sup> 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허기진 北韓住民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工業國家」의 內實은 어떠한가. 金日成에 의하면 「工業과 農業 總生産額에서 工業의 몫은 1956년에 34%였던 것이 1967년에는 74로 높아졌으며, 같은 期間에 工業과 農業部門에서 창조된 國民所得에서 工業의 몫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습니다」고 했다. 強權에 의한 農村經理의 原始的 集團化후에 자행된 農産物의 源泉的 無料收奪과 그 運搬까지 農民이 책임져야 하는

條件에서 어떤 所得計算이 이루어졌는지는 且置하기도 한다. 그러나 「機械製作工業이 創設」되었다고 하면서 「5천톤급 大型船舶을 비롯한 大型機械들과 精密機械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적 機械設備들 뿐만 아니라 現代的 工場들의 設備를 綜合적으로 生産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든지 「올해 우리의 重工業은 1백 65억 키로와트時的 電力, 2천 7백 50만톤의 石炭, 2백 20만톤의 鋼鉄, 1백 50만톤의 化學肥料, 4백만톤의 시멘트를 生産하게 됩니다」<sup>34)</sup>고 한 자랑에 이르러서는 그 「工業國家」의 實相에 오히려 失笑마저 금치 못하게 한다. 國際經濟의 視角에서는 물론이고 오늘의 南과 北의 經濟力 對比에서도 그렇다.<sup>36)</sup>

그 5차黨大會는 또 金日成의 提議에 따라 「6개년計劃」(1971~6)을 채택했다. 이 基本課業은 「工業化의 成果를 公고 발전시키며 技術革命을 새로운 높은 段階에로 前進시켜 社會主義의 物質 技術的 土臺를 더욱 튼튼히 하며 人民經濟 모든 部門에서 勤勞者들을 합든 모든 勞動에서 解放시키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 경우 工業生産을 年平均 14% 增大시킬것을 予見한다고 했으나 71年과 72年의 工業生産 成長率 發表가 없었다. 그 후 75년 9월에 6개년計劃의 早期 達成을 「發表」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慣例上 이에 이은 새로운 長期經濟計劃을 公式적으로 승인해야할 제 6차 黨大會는 지금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金日成은 77年의 新年辭에서 輸送難 打開과 採取工業의 強化, 穀物高地의 占領, 日用品生産의 質的 提高등을 되풀이 강조했는데

이는 濃業生産의 뒷받침과 社会間接資本의 投資마저 허전한 條件에서 「千里馬運動」으로 強行되었던 6개년計劃의 失敗相을 우회적으로 自認한 꼴로 된 것이다.

78년 新年辭의 경우도 金日成의 經濟問題 言示은 鼓舞的인 것으로 되지 못하였다.

南·北韓의 經濟發展 競争은 韓國이 1969년을 分岐点으로 하여 1人当 國民總生産이 北韓을 凌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工業化 競争의 가름이기도 했다. 1974年の 韓國의 GNP는 약 172億弗로 推計되었으며 1人当 國民所得은 513弗에 달했으나 같은해 北韓의 GNP는 48億弗이고 1人当 GNP는 약 313弗에 不過하였다.<sup>37)</sup> 同年度에 韓國은 324萬의 鋼鉄을 生産했으나 北韓은 250萬萬톤에 그쳤다. 또 그해 韓國의 民間造船所는 26萬톤급 大型油槽船을 建造하였는데 金日成이 70년 11월에 자랑한 것은 「5천톤급 大型船舶」이었다. 시멘트와 化學肥料, 그리고 自動車와 電子機械등 工業部門에서 모두 韓國의 優位가 뚜렷하게 되었으며, 織物生産을 포함한 輕工業分野에서는 格段의 差異가 뚜렷하다.

北韓의 「社会主義 工業化」는 우선 南韓의 自由市場 開放體制에 比較하여 그 相對的 失敗가 歷然하다. 그들이 挫折을 겪게된 複合的 要因중에는 圖式的인 重工業優先政策과 輕工業의 次要觀, 社会間接資本施設의 落後性, 中央集權的 命令主義 經濟管理体系등 構造的 弱点이 포함되며 특히 閉鎖社会體制의 固執과 自給自足經濟의

追求에 따르는 國際經濟協力の 缺乏, 個人崇拜體制下的 위축된 勞働  
氣가 초래한 技術革新의 不振, 思想第一主義와 海外留學生派遣統制로  
말미암은 先進技術 導入上的 隘路造成을 들게된다. 그것은 北韓의  
金日成體制에 痼疾화된 構造的 矛盾이기 때문에 그 個人崇拜體制的  
生理的 退場없이는 新局面 打開가 不可能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원래 蘇聯의 「社會主義 工業化」에 보는 重工業優先主義와 自給  
自足體制에의 接近努力은 그들의 이른바 「資本主義 包圍」下的 獨  
立的 狀況속에서 廣大한 資源을 開發, 動員하여 하루속히 強大國으  
로서 발돋움하려는 指向을 反映한 것이었다. 그런데 北韓은 立地  
條件과 國境環境이 判異함에도 蘇聯의 圖式을 그대로 換倣하려 했  
던 것이니 「스타트. 라인」에서의 狀況判斷부터 無理가 隨伴되었다.  
蘇聯은 뒤늦게나마 北韓이 제 1차 5개년 計劃에 進入하려 할때  
相應한 「忠告」를 주면서 「社會主義的 分業」方向으로 이를 誤導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50年代 後伴期는 「모스크바」가  
「스탈린 格下」運動에 着手한 무렵이었고 北韓의 小「스탈린」體制  
는 「크레믈린」의 「호루시초프」등 「現代修正主義」의 新執權層을  
政治적으로 不信한 나머지 그들의 經濟的 「忠告」마저 뿌리쳐 버  
렸다.

그후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에 보는 獨善的 無理. 強行은  
「아이로니컬」하게도 焦燥와 不安, 失敗와 挫折이 短期的으로는 體  
制的 弱화 대신 오히려 그 硬化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관측케  
한것이다. 結局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過程은 南·北韓의

「異質化」를 浮刻시켰을 뿐더러 蘇聯과의 溝渠도 深化시킨 꼴로 되었다. 그 閉鎖社會體制와 붙은 「民族的 自衛心」에 비추어 最小限의 近緣意識을 느낄 수 있는 對象은 歷史·地理的 要因마저 겹쳐 있는 中共 외의 倅것이 없게 된 꼴이다. 이점에서 北韓의 對中共傾斜는 뿌리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 그 中共도 「毛沢 東以後」에 이르러서는 커다란 變化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 凡在本行开立存款账户的存款人，均可向本行申请开立支票账户。

2. 支票账户的开立，须由存款人填写支票账户申请表，并提供必要的身份证明文件。

3. 支票账户的开立，须经本行审核合格后方可办理。

4. 支票账户的开立，须由存款人提供有效的担保。

5. 支票账户的开立，须经本行审批合格后方可办理。

6. 支票账户的开立，须经本行审批合格后方可办理。

7. 支票账户的开立，须经本行审批合格后方可办理。

8. 支票账户的开立，须经本行审批合格后方可办理。



第三章 主体思想斗 自主路線，  
唯一思想体系斗 形成過程

• 雜記手書 自叙 宋 葉子 〇  
墨韻如雲 字林 卷一 〇

### 第三章 主体思想과 自主路線, 唯一思想体系의 形成過程

北韓共產政權이 1960年 後半期부터 獨特한 「唯一思想体系」라는 用語를 사용하며 그 內容으로서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를 標榜할적에, 이는 얼핏보아 民族主義的 뉴앙스를 感觸케 하는바도 없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蘇聯과 中共을 포함한 共產圈의 어느나라 어느한 理論家도 北韓의 그러한 標榜을 「民族主義」 또는 「부르조아思想」이라고 批判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金日成이 스스로 변명했듯이 「唯一思想의 真髓를 이루는 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主体思想」이라는 말이만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마르크스主義 자체가 「主体性」을 拳論해온데다가 코민테른도 各國 運命의 第一次的 責任은 各國黨에 있음을 強調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金日成은 「唯一思想体系」나 「主体思想」을 자주 言及하면서도 구태여 獨目的인 理論構成을 提示할 必要가 없었으며 또 그러한것은 지금껏 발견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와같은 標榜을 유난히 浮刻시킨 歷史的背景과 北韓이 처한 主·客觀的條件 나아가서 그 實踐樣相과 北韓의 政治文化에 끼친 刻印을 相互關聯的으로 考察하면 이 局面에서도 「異質化」傾向을 展望하게 된다. 어차피 金日成은 「主体」, 「自主」등 標榜으로 中·蘇紛糾에 즈음한 世稱 「양다리 걸치기」機會主義外交를 合理化하려 했으며, 또 強大勢力에 대한 抵抗意識이 基調로 되어있는 新生國의 民族主義的 情緒에 呼

訴하면서 國內外的으로 心理戰 效果를 노렸고, 共產主義理論에 어두운 일부 外部世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思想路線이란 強權을 背景으로 일단 特定社會에 普及되고나면 당초에 執權者가 타산했던 政治的 意圖와는 달리 그 社會의 歷史와 環境 및 政治文化에 어울리는 方向으로 独自の인 行動論理를 구성해 나가는 運動生理를 지니게 되는 법이다.

北韓에서 제창되는 「主體」라는 말을 英文에서는 흔히 <national identity> (民族的 自体確認)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北韓當局 자신은 이러한 表現이 共產圈내에서 「民族主義的 偏向」처럼 誤解될까 두려워하는데서 對外文書에서는 어색하나마 <Chu-Che>라고 표記하려하며 이에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例事로 삼고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哲學用語로서의 「主體性」(Subjectivity, Subjectivität)이란 비록 共認된 定義는 없다해도 대체로 「自体確認에 입각한 能動性」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그것은 「運動의 主體」를 문제 삼았다. 이 경우에 近代市民 社會에서는 運動의 主體를 「理性的 人間」으로 생각했고, 實存主義의 경우는 個人을 歷史의 主體로 定位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主義의 唯物論은 歷史도 物質의 運動인만큼 社會發展의 各段階에서 「가장 進歩的인 階級」이 歷史的 運動의 主體로 된다고 한다. 그러한 階級的 觀點에서는 個人의 主體性이 排除된다. 말하자면 階級的, 集團的인 主體性만을 浮刻시키는 셈이

다. 하나 「레닌」이후로는 革命的 實踐이라는 現實認識으로 인하여 「民族」문제가 점차 부각되었다. 또 「코민테른」은 「一國一黨主義」를 規約 제 3 조에 규정하였는데 이는 各國革命을 統制하는 立場에서 組織的規律을 강조하는 동시에 各國革命의 成敗에 관한 責任을 모스크바가 아닌 各國의 共産黨에게 부담케한다는 意圖도 깃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先次的 責任에 어울리는 独自の 行爲의 요구를 은연중에 배태케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더욱이 모스크바로부터 示達되는 指示가 各國革命의 利益보다도 蘇聯의 國益을 앞세우는 듯한 印象이 짙을 적에 獨自路線의 指向은 가일층 고무되게 마련이었다. 蘇聯政府가 1934년에 中東鐵路를 偽「滿洲國」政府에 亮渡한 處事가 中國共産黨의 獨自路線을 부채질하게 된 것도 그 實例중의 하나이다. 또 日本의 경우는 2次大戰敗戰이후 마르크스主義者들 간에 이른바 「主體性 論爭」이 야기되었는데 이는 戰前의 日本마르크스主義의 理論과 實踐에 걸친 依他性에 대한 反省의 結果였던 것이다. 日本 共産主義者들의 「主體性 論爭」이 北韓에 새로운 刺戟을 던졌으며 그것이 平壤指導層의 意識의 深層에 沈澱·蓄積되었을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北韓의 경우 金日成이 최초로 「主體」를 提唱한것은 1955년 12月 28日이다. 時期的으로 蘇聯共産黨 제 20차 大會를 2개월 앞두고 있었는데 「모스크바」의 그大會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格下運動」을 벌일 것이라는 示唆的 情報과 여러가지 前兆가 繼起되던 무렵이었다. 그 影響의 波及을 事前에 슬기롭게 對處하

는것이 「北韓의 小 스탈린」에게 있어 死活的 関心事였던 時点이다. 金日成은 그때 勞動党的 宣傳・煽動 工作者들 앞에서 한 演說「思想事業에서 教条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할데 대하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參席者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革命도 아닌 바로 朝鮮革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朝鮮革命이야말로 우리 党 思想事業의 主体입니다…… 우리 人民의 鬪爭 歷史와 그 傳統으로 人民들을 教養하여야만 그들의 民族的 自負心을 북돋아 줄수 있으며 광범한 群衆을 革命鬪爭에로 고무할수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人民軍 休養所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씨비리 草原의 그림이 붙어 있었읍니다. 그 風景은 아마도 로씨야 사람들의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러나 朝鮮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錦繡江山이 더 마음에 듭니다」<sup>38)</sup>

이 演說은 「8.15 解放」이후 당시에 이르기까지 北韓을 휩쓸고있던 對蘇 事大主義와 蘇聯文物崇尚의 風潮에 대한 一大警鍾이며 轉換의 信號였다. 그러나 이러한 革命遂行의 「形式」과 宣傳・煽動의 手法을 간단히 「民族化」 傾向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었다.

원래 各국 共產主義者들에게 공통적인 「社會主義 文化」觀은 스탈린의 圖式에 따라 「內容에 있어 社會主義的이고 形式에 있어 民族的인 文

化」라는 것으로 要約되어 왔다. 이 경우에 弁証法的 論理에서는 內容의 形式에 대한 優位가 前提된다. 하기야 形式의 內容에 대한 反作用도 없을수 없겠으나 그점은 次要視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民族的 自負心」 역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위배된다고는 간주되지 않으며 각국革命에서 大衆操作의 手法으로 자주 援用되어 왔던 것이다. 예컨대 레닌은 1914년에 「大 รัสเซีย人의 民族的 自負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啓蒙된 大俄罗斯人(프롤레타리아들은 民族的 自負心의 感情에 鈍感한가. 絶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言語와 우리의 祖国을 사랑한다…… 우리는 民族的 自負心에 충만되어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노예적 과거와 노예적 現재를 유난히 증오하는 것이다<sup>39)</sup>」.

한편 中共의 毛沢東은 일찍이 1938年 10月 다음과 같이 강조했었다……

「中國共產黨은 國際主義的인 마르크스主義者이지만 마르크스主義는 반드시 民族的 形式을 거쳐야만 비로소 實現될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의 中國化는 모든 表現에서 中國의 特性을 띠게 되어야 한다. 外來風潮를 廢止하되 新鮮하고 활발하며 中國의 庶民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아할(中國老百姓好聞樂見的) 中國의 作風과 中國의 氣風으로 代替시켜야 한다. 國際主義的 內容과 民族

的 形式을 결부시켜야 하는 것이다<sup>40)</sup>」.

이상의 引用에 비추어 보더라도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錦繡江山」論은 理論上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蘇聯이나 中共을 놀라게 할 까닭이 없었다. 다만 北韓의 大衆에 대해서는 그것이 解放后 지속되었던 對蘇事大主義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만큼 놀라운 信號임에 틀림이 없었다. 동시에 大衆操作上 北韓에도 뿌리깊었던 世稱 「殖民地 民族主義」感情에 애필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로써 金日成은 一石多鳥의 效果를 제산한 셈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 「主体」思想의 強調은 무엇보다도 國際的 環境變化에 대한 能動的 対応策으로 發想되었음이 분명했다. 우선 그 時点이 1955년 12월이었다는 것은 바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格下運動의 本格的發起를 서두르고 있던 前夜에 해당된다. 蘇聯共産黨 第20次大會는 1956년 2월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해 4월 平壤에서 열린 勞動黨 제3차大會는 黨規約을 改正하면서 그 제1조에서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의 民族的 獨立과 解放을 위하여 日本 및 기타 植民主義者들을 반대하여 鬪爭한 朝鮮人民의 革命的 傳統의 繼承者」임을 自負한다고 했다. 그런데 2차大戰后 적잖은 共産黨들이 「独自の 道」이라든지 「自主路線」을 표방한 經濟를 보면 한결같이 經濟建設의 方式 보다는 共産圈내의 對外政策 특히 蘇聯이나 中共과 같은 共産大國과의 새로운 關係圖式을 주로 念頭에



문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北韓의境遇 그 國際環境 變化의 生活事態에서 劃期的이라고 볼 것은 蘇聯에서의 스탈린死亡(1953年)과 흐르시초프路線의 대두였다. 그해 9월 12일 「흐르시초프는 스탈린의 가장 충실한 弟子」라던 말렌코프를 누르고 蘇聯共産党 제1書記로 選任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모스크바에서는 스탈린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 施策에 對한 批判과 是正의 목소리가 漸高되어 北韓의 「小 스탈린」 勢力을 不安케 했다.

당시의 金日成勢力의 절박한 課題는 다음 2가지 것으로 測定되었다. ①蘇聯共産党的 「스탈린 批判」과 個人崇拜 배격에 따른 모스크바의 새 影響의 北韓 波及 防止, 이를 위한 思想的 豫防注射 실시 ②蘇聯의 無償經濟援助가 1955年으로 斷絶되는데 對備하여 1957年부터 着手할 제1차 5個年計劃에서는 「自主的인 生産鬭爭 動員」을 強行해야 하는 自力更生 路線의 策定, 이와같은 政策的 需要를 감안할 적에 金日成의 「主体」思想 提起는 그들나름으로 新局面 開拓을 위한 能動的 環境適應이며 苦肉之計라고 봄직했던 것이다. 「主体」를 強調하자니 「朝鮮人民의 革命的 傳統」을 力說해야 했고 또 이過程에서 그 「傳統」의 體現者로서 金日成을 美化하고 그에 대한 個人崇拜를 助長해야만 했으며 아울러 歷史의 偽造마저 서슴치 않게 된 셈이다. 그 「主体」思想을 經濟建設에 의 思想的 動員武器로 삼고자 하는데서 勞動党 中央委員會의

1956年12月 全員會議는 「自力更生」 口號하에 「千里馬 運動」을 展開할것을 決議하였다. (後述)

그러나 金日成의 「主体」路線에 대해서는 党内 反발이 적지 않았음이 後日에 判明되었다. 反對者들은 그 路線이 金日成의 個人獨裁 強化에 連結될것을 正確히 豫測했으며 또 對蘇關係를 惡化시키고 北韓이 共產圈內에서도 「民族主義的 偏向」을 가진 「異端兒」로 간주될것을 우려한것 같다. 아닌게 아니라 約10年이 經過한 後에 勞動黨 中央委員會 機關紙는 다음과 같이 回顧하였다.

「1955年에 우리 黨은 모든 分野에서 敎條主義를 反對하고 主体를 確立할데 대한 鬭爭을 계통적으로 展開했다. 이것은 宗派分子들의 맹렬한 反對에 부닥쳤다. 1956年에 그들을 黨의 自主路線에 正面的으로 향겨에 나섰다.....우리나라 宗派分子들은 例外없이 修正主義者들이었으며 敎條主義者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事大主義者들이며 民族虛無主義者들이었다」

그런데 金日成體制에서 말하는 「宗派分子」란 그에 對한 個人崇拜을 反對하는 黨員들에 對한 指摘이고, 「敎條主義者」란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純粹性을 고수하려는 党内 理論家들을 가리키며 또 「修正主義者」란 親蘇的 傾向을 지닌 사람들을 비난하는 用語이다.

드디어 1956年2月 흐르시초프를 비롯한 蘇聯共產黨의 새 指導部는 20차 黨大會에서 「스탈린」을 본격적으로 格下시켜 놓았으며 또 平和共存, 平和革命論을 浮刻시키는데 이르렀다. 「스탈린 批判」

의 骨子는 그 가혹한 独裁者의 個人崇拜와 流血肅清 等 社会的 民主主義 위배 官僚主義와 權力集中, 教条主義와 權力追從의 思考 및 行動樣式에 대한 批判 등 多方面的이었는데, 이는 蘇聯 뿐만 아니라 蘇聯 影響下에 있었던 各국의 執權共産党的 存在樣式에 대한 再檢討 促求에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 스탈린型 權力構造를 모방했던 北韓의 金日成体制의 境遇 만약에 「主体」思想이라고 일컫는 事業對備가 없었던들 그 「解放者의 나라」로부터 밀어닥치는 커다란 衝擊을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서 金日成一派의 「主体」思想은 차후에 잇따른 衝擊, 즉 中·蘇분규에 즈음한 対応策으로도 꽤 많이 活用된 셈으로 되었다.

中共의 毛沢東体制 또한 本質적으로 스탈린型的 權力構造였기 때문에 北京은 蘇聯共産党的 스탈린格下運動에 대해 맹렬한 반발을 表示했다. 마침내 당시의 中共은 蘇聯의 路線을 가리켜 「現代修正主義」나 「對美宥和」라고 批判했으며, 이에 応酬하면서 모스크바는 北京을 가리켜 「教条主義」「冒險主義」「分裂主義」라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中·蘇분규는 최초로 「이데올로기」論争이었다가, 다음에는 國家利益의 상극으로 번졌고, 결국은 과거 數世紀에 걸친 敵對的 歷史意識을 現代에 되살리는 가운데 不可相融적으로 對決하는 共産圈내의 새兩極化 現象을 빚게 되었다. 나중에 1976년의 毛沢東 死亡後 中共의 화국봉, 등소평体制은 蘇聯의 「社会 帝國主義」 또는 「霸權主義」 威脅에 對処하고자 美·中共 合作과 對西方國接近에

더욱 拍車를 加하게 되었으며 또 實用主義 現代化路線을 追求하고 자 蘇聯이 오히려 無色해질 정도로 「現代修正主義」의 길을 치닫게 된 꼴로 되었다. 그러한 事態進行에 대해 北韓은 처음 스탈린主義 體質을 같이하는 中共便에 가담하였다가 차후에는 그 「主體」思想을 看板삼아 中·蘇 双方에 양다리를 걸치는 機會主義 外交路線을 合理化하면서 그때그때 實利를 追求하여 나가게 된 것이다.

1961年 5月 16日 韓國에서 軍事革命이 成功함을 보자 北韓은 그것을 「美帝 使喉下의 軍事판소政權의 樹立」으로 단정하면서 마치 「北進」의 前奏曲인양 宣傳하는데 열중하였다. 이어 金日成은 그 해 7월 모스크바와 北京을 巡訪하였는데 그 結果는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共간의 이른바 「友好協力 및 互相協助에 関한 條約」이라고 부르는 두개의 雙務的 軍事同盟 締結로 나타났다. 그러나 金日成의 「양다리 걸치기」外交에도 限界點이 있었다. 中·蘇분규가 深刻化함에 따라 그 当事者들은 北韓에 대해 「도대체 당신은 누구 편인가」를 묻게 된 것이다. 1962年 12月 체코슬로바키아와 東獨에서 잇따라 開催된 共産黨大會에서는 中共非難에 열을 올리는 한편 中共을 두둔하는 北韓에 대해 분명한 態度를 밝히라고 要求하는데 이르렀다. 機會主義 外交의 馬脚이 드러날 판국이었다.

드디어 1963年에 접어들면서 『勞動新聞』은 「社會主義 陣營을 擁護하자」라는 論說을 통해 明白히 中共을 支持하는 한편 蘇聯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 이는 中共으로 하여금 그후 오래도록 평양側에 감사하며 義理를 느끼게한 重要한 要因중의 하나로

되었다. 그 論說은 中共을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고수하고 革命的 立場을 堅持하는 兄弟黨」이라고 추켜세우는 한편 蘇聯의 흐루시초프路線을 가리켜 「敵에게는 더욱 接近하고 親善과 好意를 表示하면서도 도리어 繼續的 兄弟들과 革命的 同志들에게는 원수처럼 대하는 참을수 없는 現狀」을 빚었다고 규탄한 것이다<sup>42)</sup> 이어 北韓 自身の 누적된 不平을 말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援助를 빙자하여 兄弟黨, 兄弟國家의 內政에 干涉하며 自己의 一방적인 意思를 強要」했다고 暴露하였다. 「더우기 소위 個人迷信 反對運動을 다른 黨들에게 내려찍이려 하며 그것을 干판으로 하여 兄弟黨 兄弟國家들의 內政에 干涉하고 이 나라들의 黨指導部를 전복하기 위한 活動을 敢行하는 것은 絶대로 용허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56年の 蘇聯共産黨 20차大會 이후 모스크바가 벌인 內政干涉과 그해 8월에 金日成을 깜짝 놀라게한 勞動黨 內部的 高位黨幹部들에 의한 金日成 逐出工作을 결부시킨 분노의 표명이라고 觀測되었다. 그때 延安派인 崔昌益과 蘇聯派인 朴昌玉을 비롯한 重鎮幹部들이 北韓의 「小 스탈린」에 의한 「個人迷信體制」를 顛覆시키려다 失敗한바 있었다.

당시의 北韓이 中共편이 傾斜하게 된 原因은 다음과 같이 分析된다.

① 蘇聯共産黨의 스탈린 批判과 그 先例를 接近시키기 위한 內政干涉 試圖

② 아시아의 後進社会에서 執權한 北勞党和 中共黨은 스탈린主義를 調整해야할 革命的 段階와 立地條件이 같았다는 것。 그것은 우선 緊張을 먹고 살아야만 思想 組織的 動員이 可能했다는 政治生理로 부터 풀이된다。 그들의 당시 口號는 「反美鬪爭」이었는데 흐르시초프는 對美宥和와 平和共存을 力說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共產後進國의 스탈린主義的 政治風土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局面을 지적할 수 있다。

(A)先進國 水準으로 生産力을 急速히 發展시키며 經濟的, 自立을 達成하고 아울러 國防建設에 優先順位를 設定하기 위한 重工業 優先主義, 따라서 住民들의 生活必需品 生産인 輕工業의 次要視 (B)外資導入 없이 工業化에 소요되는 內資를 捻出해야 하며 아울러 農業의 後進性을 克服하려는데서 強制的으로 시행되는 農村經理의 集團化 (C)그러한 施策에 부수되는 命令生活과 強制動員에따른 民衆의 不平·不滿을 抑制하기 爲한 警察國家体制의 強化 (D)後進社会·新生國 民衆들에게 보편적인 反植民主義 感情을 이용하여 부단히 對外的 緊張狀態를 造成하고 이를 統制의 正当化 口實로 삼는다。 (E)後進社会의 權威主義的 英雄崇拜心理에 편승하여 團結과 統制의 象徴으로서 特定 指導者를 神格化한다。

③ 共產圈도 例外가 아니었던 國際政治에서의 「大小關係」와 國際經濟에서의 「南北問題」의 浮刻

④ 中共과 北韓간에 存在하는 歷史的, 地理的, 文化的, 人種的

類:帶意識

⑤ 金日成 指導體制에 보는 人的 機成에서 두드러지는 青少年 期的 教養 및 黨生活 背景이 中國的 이 었다는 것。

金日成 選集에서 中國의 方言, 俗談, 故事의 引用은 자주 發見되나 러시아의 것은 거의 없다。

⑥ 蘇聯의 對北韓 經濟援助가 1957年부터 斷絶된데 비해 韓國에 對한 美國의 經援은 바로 그 해에 「피크」를 이루었다는 事情 -

⑦ 蘇聯에 對한 安保上의 信賴感 動搖, 1959年 中印國境紛爭에 즈음하여 蘇聯이 非共產國인 印度를 支援했으며, 또 1962年 「쿠바 危機」때는 美國의 要求에 屈服했다는 것。

⑧ 흐루시초프路線을 「現代修正主義」라고 단정한것。

⑨ 蘇聯에 對한 中共 非難이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위배 했다는 것 등에 걸친 教條主義的 反발。 그러나 此後의 事態進行은 北韓의 中·蘇紛爭 對應策도 「理想과 現實」이라는 두가지 契機 사이를 흔들리처럼 動搖했으며 흔히 機會主義로 흔들렸음을 觀察케 했다。

새로운 環境變化에 適應해야할 새로운 實踐的 要請이 提起되면서 이를 端的으로 表現하는 새 用語가 製作되는 것이 例事이다。 北韓의 境遇 「主体」思想에 이은 것은 「自主」路線이었고 후일 그 모든것이 「唯一思想體制」라고 命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미 본바와 같이 「主体」思想은 흐루시초프路線의 北韓波及을 막으려는 思想的 豫防注射였으며 아울러 「自力更生」을 다짐하려는 經濟建設의 새 方向의 시사였으나 동시에 그것은 國際政治에서 中共傾斜를 의미했다. 그후에 提起된 「自主」路線이란 蘇聯에 의한 內政干涉 中止와 새 抱撰工作, 自力更生の 限界線 到達, 對蘇 微笑를 통한 「양다리 걸치기 外交」 또는 蘇雙方에 대한 等距離 外交의 復活을 뜻하였던 것이다. 「自主」路線은 1964년에 싹텃으나 公式적으로 表明된것은 1966년의 일이다.

흐루시초프가 1964年 10월에 失脚하자 뒤이어 蘇聯의 제 1人者로 登場한것은 브레즈네프였다. 모스크바의 그러한 權力者 變動에 對해 北京과 평양은 얼핏 새 期待를 걸어 봄직도 했으나 蘇聯의 基本路線 自体에는 별로 달라진바가 없다는 事實을 알게되는 데는 많은 時間의 經過가 必要없었다. 그러나 「過去의 짐」을 덜려는 새로운 움직임에 하나의 契機는 부여할만도 했다.

蘇聯政府는 1965년부터 매우 精力的인 「積極外交」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 一環으로 「코시긴」首相은 2月11日 越盟(베트남)의 首都 하노이를 訪問한데 곧이어 평양을 訪問했다. 中共을 孤立化시키기 위한 北韓 再抱撰工作이라고 觀測되었다. 2月14日字로 發表된 金日成, 코시긴 共同聲明은 「親善的 友誼」의 強化를 말하면서 「帝國主義者들은 反對하여 完강히 鬪爭하는 同時에 國際緊張狀態의 緩和와 各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들 간의 關係에서 平和共存 原則을 確立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等 結論적 表明이었



다.

그런데 北韓은 이 時期를 前後하여 中·蘇분규 対応策을 再省察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① 中·蘇분규가 처음에 理念論争이었다가 점차 國際利益의 상극으로 移行하는데 따라 北韓도 그들 나름의 實利를 打算해보는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② 韓國軍의 越南派兵과 裝備現代화가 浮刻되는데 따라 北韓도 베트남支援을 위한 「共同鬪争」에 나서야 했고 또 「人民軍」의 裝備現代화가 要請되었는데 그러자면 蘇聯과의 關係改善이 必要했다.

③ 이무렵 北韓의 産業技術裝備 老朽화가 問題되어 日本商社 相對의 폴란드導入 交渉이 試圖되기도 했으나 韓國側 抗議로 挫折되었는데 그럴수록 北韓이 産業施設을 更新하려면 中共이 아니라 蘇聯 東歐圈의 支援이 要望되게 마련이었다.

結局 北韓의 軍需 및 經濟關係 使節團이 빈번히 모스크바를 訪問하게 된것이다. 이에 대한 蘇聯의 肯定的 反應은 그다지 迅速하지는 않았으나, 北韓은 최소한 中·蘇에 대한 等距離外交를 摸索하는 過渡的 狀況에 延하게 되었다.

그러한 微妙한 情勢속에 1965年4月 共産党(PKI)이 運營하던 「알리 아르함」 社会科学院에서 「政治学 講演」을 베풀었는데 평양當局은 이를 10여個國語로 翻譯하여 世界에 流布시키려 했다. 金日成 演說의 한 句節은 다음과 같다.

「主体를 確立한다는 것은 革命과 建設의 모든 問題를 獨自的으로 自己 나라의 實情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解決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黨은 修正主義를 反對하고 맑스 레닌 主義의 純潔性을 고수하기 위하여 絶絶히 鬪爭하는 동시에 敎條主義와 專大主義를 反對하고 主体를 確立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하여 왔다.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 이것이 우리 黨이 일관하여 堅持하는 立場이다」 43)

그러나 中·蘇분규에 對한 過渡期的 觀望과 中立的 姿勢는 그해 5月부터 모스크바에 傾斜하는 氣味를 느끼게 했는데 이는 原則보다도 實利計算의 結果였던 것이다. 5月5日 蘇聯의 對獨戰勝 20周年 紀念式典에 參席한 北韓의 軍事代表團에게 모스크바는 모종의 軍事援助 協定을 선물로 안겨준 것으로 觀測되었다. 잇따라 12日에는 北韓의 科學技術代表團이 모스크바를 訪問하였다.

드디어 北韓은 蘇聯의 援助에 對한 期待 可能性이 成立되자 中共편이라는 印象을 불식하면서 蘇聯에게 外交的 反對給付를 提供하였다. 우선 그 機會主義的인 對外政策을 是是非非 立場으로 秒思하면서 「自主」의 標榜을 유난히 浮刻시키려 했다. 이러한 기미는 당연히 中共의 疑惑을 샀는데 勿論, 北京은 「內政干涉」非難을 自招하지 않으려 애썼으며 北韓에게 機會主義 外交의 合理化 口實을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

1966年 8月12日字 『労働新聞』의 長文 社説은 그 모든 經緯와 背景事情을 微妙하게 反映하였다...

그 社説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歷史發展의 特殊性으로 해서 事大主義의 影響을 받았다. 解放後 여러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革命事業에 參加하게 되었으며 黨隊列의 構成도 複雜했다」고 썼다. 이는 事大主義의 主要한 向方을 中共傾斜에 돌리려는 布石이라고 分析되었다.

이어 「最近數年間に 國際共產主義 運動은 자기의 그릇된 路線과 見解를 다른 兄弟들에게 強要하여 이것을 接受하지 않는다고 해서 壓力을 加하고 內政에 干涉하는 等 참을수 없는 現象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썼을 적에 그 主要한 非難對象이 中·蘇 어느쪽인지는 明白치 않았다. 하나 곧이어 「우리는 內政干涉을 反對하고 일관하게 自主性을 確固히 堅持함으로써 나라의 革命運動을 正確히 領導하고 있으며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團結에 寄與하고 있는 日本共產黨의 正當한 立場을 全적으로 支持한다」고 했으며 그 文面은 中共 非難을 의도했음이 明白해진 것이다. 당시 日本共產黨은 中共의 이른바 「內政干涉」에 거센 反발을 表示하며 自主를 標榜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社説은 또 「美帝를 反對하는 鬭爭에서의 共同行動과 統一路線은 修正主義를 反對하는 鬭爭과 矛盾되지 않는다」고 했다. 44) 이는 北韓의 양다리 걸치기

外交에 관한 어색한 自家辯明이었다. 당시 中共은 蘇聯을 겨냥하여 「修正主義, 反對」를 외치고 있었으며, 한편 蘇聯은 越南戰에 즈음하여 「共同行動과 統一戰線」을 標榜하면서 中共의 逸脫을 非難하고 있었던 것이다.

北韓의 「自主」宣言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는 몇칠後 평양에서 盛大하게 舉行된 8.15 解放 20周年 紀念式典에서 明白히 드러났다. 北韓의 官營 大衆媒体들이 브레즈네프書記長과 코시긴首相의 祝賀文을 대대적으로 宣傳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그 20年前 北韓에 進駐한 蘇聯軍司令官이던 치스차코프 豫備役大將이 老兵代表團을 이끌고 셀레핀副首相과 더불어 祝電에 參加해 왔다. 대대적인 「朝蘇親善」캠페인(北韓에서는 露語에 따라 감빠니아)이 벌어지는 가운데 中共代表團은 뒷구석에 밀려 보잘것 없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北韓의 對蘇 再接近은 完全한 中共疎遠을 意味하지는 않았으며 그럴수도 없었던 것이다. (後日에 가서는 그 逆도 眞理임이 느껴졌다. 게다가 蘇聯은 비록 北韓에 對하여 借款供與 形式的 援助를 再開하기는 했으나 그 規格과 內容이 만족스러운 것으로는 되지 못했던 것이다.

1966年 10月 5日 朝鮮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가 소집되었다. 원래 共產黨의 代表者會議란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中央委員會가 緊急한 重要한 案件을 討議, 決定한다고 소집하는 熱誠的 黨幹部들의 總會合이다. 北韓의 境遇 第1次 黨代表者會議는 1958年 3月 6日

에 소집되었었는데 그때의 主題는 「自由化」運動을 推進하려던 金枬奉, 朴義玩, 徐揮, 金乙圭 等を 中央委에서 逐出한 肅清騷動을 正当化하기 爲해서 였다. 그런데 1966年의 党代表者會議는 「着雜한 國際情勢」에 對한 対応策 講究와 이로 말미암은 「國防力」 強化를 口實삼은 7個年計劃의 失敗自認 내지 3年 延長을 合理化 시키려는 것이었다。

金日成은 基調報告에서 越南戰의 深刻性を 浮刻시킨 다음 「國際 問題들에서 原則을 버리고 美帝와 妥協하는 길을 絶대로 許用하지 말아야 한다」고 은연중 蘇聯을 牽制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큰 모욕적 非難은 中共에 돌려졌는데 「美帝를 反對한다고 큰 소리만 치고 美帝의 侵略을 저지시키기 爲한 國際的 行動을 取하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이다. 더우기 反帝力量이 단합해서 美帝 侵略者들에게 打撃을 주기 위한 實際的인 政策을 取하는데 難關을 造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強調한 것이다。

北韓 自體의 中·蘇분규 対応策에 關해서는 「鬪爭을 통해서 團結을 追求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緊張을 먹고 살아야하는 金日成體制의 生理를 아울러 勘案할적에 越南戰支援 이상으로 北韓 自體의 經濟建設失敗 等 難局을 打開하기 爲해서 對南冒險이라도 勘行하여 中·蘇 雙方을 끌어들이려는 心算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스크바와 北京의 世界政策이 평양에 의하여 左之右之될 까닭은 尠無했던 것이다。

결국 金日成은 「自主性이 保障되어야 매개 党이 自己나라의

革命을 더 잘하고 世界革命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團結도 強化할수 있다」고 무념할수 밖에 없었다. 「大國主義 義와 宗派主義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이편 저편으로 갈라놓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어느편에도 들지 않는다.」<sup>45)</sup>는 附言을 잊지 않았는데 그 直前에 中共에 傾斜했다가 떠러져나와 中立을 標榜한 셈이었다.

나아가서 그는 經濟建設을 약간 犧牲시키더라도 「國防力」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서 美國이 아시아에 對한 援助總額의 40%를 南韓에 投入하고 있으며 또 80% 이상을 國軍裝備 現代化에 돌리고 있다고 強調했다. 金日成의 그 報告에 뒤이어 당시 제1副首相이던 金一은 「7個年計劃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난관과 障礙」가 造成되었다고 하면서 ① 「社會主義 陣營의 統一團結이 弱化되고 兄弟나라들 간의 經濟·文化協助도 正常的으로 進行되지 못하였다는 것과 ② 「戰爭의 危險이 증대」한것에 對處하여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併行」시킬 必要가 提起되었다고 報告했다. 이러한 口實로 그들은 7個年計劃(1961~7)의 3年 延長을 決議했던 것이다. 그 境遇 北韓은 中共으로 부터의 離脫과 蘇聯에 대한 微笑의 代價로 1967年부터 3年동안에 걸쳐 모스크바의 借款을 分割公與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充足한 經濟援助는 아니었기 때문에 「主体」思想과 「自主」路線을 經濟建設에서 「自力更生」으로 풀이하면서 「千里馬運動」과 차후의 「速度戰」 등에 더욱 拍車를 加하게 된것이다.

드디어 그러한 思想事業에서의 여러가지 表現을 總整理 体系化할 必要가 提起된것 같다. 1955年の 「主体」思想, 1966年の 「自主」路線 宣布에 이어 1967年 부터는 「唯一思想体制」라는 用語가 公式化되었다. 金日成은 그해 11월 11일의 演說을 통해 「政治活動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党的 唯一思想体系를 세우는 일이다. 党的 唯一思想이란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国防에서의 自衛의 原則을 관철하는 우리 党的 思想」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金日成은 「唯一思想의 진수를 이루는 것은 맑스 레닌 主義的인 主体思想이며 우리 党的 唯一思想体는 主体의 思想体制」이라고 풀이하였다. 46)

이 「唯一思想」의 具体的 表現, 그 實踐的 課題는 다음해인 68年 1月 당시 人民武力部長이던 崔賢의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되었다... 즉 「모든 黨員들과 勤勞者들 軍人들과 勞農赤衛隊員들은 항상 우리 党的 思想。金日成 思想의 革命思想 外에는 그 어떤 다른 思想도 모르는 철저한 党的 唯一思想으로 武装하고 自身을 더욱 革命化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首領의 思想意志대로 思考하고 行動하며 그의 敎示를 無條件 擁護 관철하여 어떠한 風波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一片丹心 金日成同志를 首班으로 하는 党中央委員會를 堅決히 擁護하고 목숨으로 保衛하며 首領과 生死運命을 같이하여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7) 이쯤되면 北韓의 「唯一思想」이 곧 金日成思想이고 特定個人을 유치하게 神格化한 個人崇拜思想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이에 1967年 3月에 開催된 勞動黨

의 第4期 15次 中央委 全員會議은 이른바 「金日成 總秘書 同志의 思想으로 黨을 統一 團結」시킬 것을 決定했었다。 또 그 全員會議 終了後의 中央委 指示文은 強調하기를 「党内에는 總秘書同志의 思想 以外の 다른 思想은 없다。 왜냐하면 總秘書同志만이 진정한 共產主義者이고 共產主義 建設은 오직 總秘書同志의 영도에 依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개 黨員들은 總秘書同志의 意思대로 團結되는 것이 重要하며 이것이 곧 黨의 思想體系다」고 했으며 同時에 「歷史研究室을 잘 꾸미고 革命傳統 回想을 体系的으로 갖추고 공부하라」고 했었다。 48)

나아가서 1970年 11月 第5次 大會에서 改正 採択한 勞動黨의 規約 前文은 「革命遂行과 黨建設事業에서 黨의 唯一思想體 確立을 基本原則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朝鮮勞動黨은 맑스 레닌主義와 우리나라 現實에 맑스 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同志의 위대한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도 못박아 놓았다。 또 「朝鮮勞動黨은 朝鮮共產主義者들이 抗日 武裝鬪爭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革命傳統의 직접적인 繼承者이다」고 했다。 결국 北韓에서의 「唯一思想體」 普及過程은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體制 그리고 이를 위한 일련의 歷史偽造와 결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래 共產黨에 있어서 唯一思想이란 마르크스 레닌主義 以外에 다른것이 있을수 없고 또 그러한 思想的 共通性的 基盤위에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가 唱導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北韓



에서 金日成의 思想을 가리켜 「唯一思想体」라고 부른다면 이는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異端이 아닌가。 또 그것은 理論上 「階級」史觀에 立脚하는 共產圈에서 容納될바 아닌 「民族主義的 偏向」의 表現은 아닌가

北韓은 共產圈内部의 그러한 「誤解를 防止하고자 「우리나라 現實에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同志의 위대한 主体思想」이라는 修辭를 使用하고 있다。 여기에서 北韓의 「唯一思想体」는 아이로니컬한 굴레와 制約性을 면치 못하게 된다。 즉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란 「体系」化하고 싶겠지만 体系化할수 없게 되는 셈이다。 理論的 体系化 대신 그들이 便法으로 着想한 것이 個人崇拜를 基調로 삼는 이른바 「朝鮮人民의 革命的 傳統」에 關한 歷史偽造 作業이다。 그들에 의하면 「8.15 解放」마저 聯合軍의 對日戰勝의 結果라기 보다는 金日成이 영도했다는 抗日武裝 鬪爭의 勝利가 가져왔다고 한다。 또 個人崇拜가 그 家族의 美化에 번져나가 이를테면 1866年 大同江에서의 沙曼 号擊沈은 그의 曾祖父의 功勞이고 1919年의 3.1運動은 그의 父親에 의하여 영도되었다고 하는 식이다。 그러한 個人崇拜와 歷史偽造는 北韓住民의 心性을 卑屬化와 非合理性으로 歪曲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하게 마련이다。

이상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北韓의 「主体」思想과 「自主」路線은 애당초 發想動機에서 民族主義와는 因縁이 없었으며 또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테두리에 制約된 關係로 独立的인 理論体系 構成이란

發見되치 않을 뿐더러 있을수도 없었다. 「体系」라는 標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代替한것은 非마르크스의인 個人崇拜와 國史偽造의 試圖였다.

그것은 中·蘇분규와 國際政治의 多元化, 經濟建設의 蹉跌과 党内 「宗派」勢力의 도전 等 内外情勢 激動에 즈음한 後進社会 弱小 共產政權의 政治的 自衛本能에따른 고민의 表現이며 機會主義的 環境 適應方策이고 大衆操作技法이던 것이다. 金日成 自身 1966年10月 다음과 같이 告白했었다 ...

어떤 사람들은 우리 党을 비롯한 맑스 레닌党들에 대하여 「中間主義」「折衷主義」「機會主義」 등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無原則한 妥協의 路」를 扞하고 있으며 「두 絶상 사이에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自己의 絶상이 있습니다. 49)

그가 「自己의 絶상」을 찾으려면 共產主義의 굴레를 벗고 民族 和合의 方向을 設定해야 마땅했지만 이것은 그에게 좀처럼 期待할 바도 되지 못하였다. 그렇더라도 「唯一思想体系」의 標榜은 現實 政治라는 視角에서 効用이 없지않았으며 失敗作이라고만 단정할 바는 아니었다. 안으로는 北韓住民들에게도 뿌리깊은 일종의 民族的 情緒에 微妙하게 먹혀드는바 없지 않았고 밖으로는 第3世界 非同 盟圈에 그럴사하게 呼訴되는바 不無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標榜아래 歷史偽造가 推進되었기 때문에 根本的인 취약성을

면의 못한다。

다만 共産圈 民衆속의 일깨워진 「自主」意識은 政治文化에 깃들  
인 民族의 情緒에 연결될 수 있고 「金日成 以後」에 가서는 獨自  
의인 運動法則을 展開할 可能性도 排除되는바 아니다。 정녕 主体  
와 自主, 自立, 自衛의 指向을 体系的으로 展開하려면 마르크스 레  
닌主義의 制約을 벗어난 民族主義의 開放的 自体確認에 이르러야  
할것이다。

第四章 領導作風과 群衆路線의 虛實  
經濟建設에 反映된 政治第一主義

吳道 半疑 不疑 前 不疑 不疑 不疑 不疑  
疑 一 疑 不疑 不疑 不疑 不疑 不疑

#### 第四章 領導作風과 群衆路線의 虛實、 經濟建設에 反映된 政治第一主義

각국 共産黨의 個性的 特徵은 그 思想的 標榜과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一般的 真理를 나라의 구체적 實情에 創造的으로 適用」했다고 하는 政策路線 만으로 判別되는 것이 아니다. 政治文化와 黨建設期の 指導的 人的構成이 남긴 刻印 그리고 環境適應의 特殊條件을 아울러 考察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集中的 表現으로서의 領導作用과 群衆路線의 實踐形態를 檢討하고자 한다.

比較研究의 見地에서 中國共産黨의 경우를 볼적에 그 體質의 特徵은 毛沢東의 發起下에 1942년부터 本格化되어 온 「整風運動」(또는 「三風整頓」)과 그 이전부터 강조되어 온 「群衆路線」의 傳統으로 틀이 잡혔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리고 黨生活經歷을 中共黨에서 개신한 北韓의 金日成은 그 選集에 명백하듯이 中國의 故事와 經驗은 자주 引用하지만 러시아의 것은 殆無하다는 점을 想起할 필요가 있겠다.

원래 中共의 整風運動은 作風(工作氣風)과 思考方式을 黨中央의 領導下에 統一的으로 再整備·強化한다는 趣旨下에 展開한 것으로 그들의 集團的 個性의 形成에 크게 作用한바 있다. 毛沢東은 1942년 2월 「三風整頓」을 말하면서 ① 學風(學習의 姿勢)에서는 主觀主義를 退治하고 ② 黨風(黨生活 및 工作方式)에서는 派

閥主義를 反對해야 하며 ③ 文風(文章表現과 宣傳方式)에서는 이른바 「党八股」를 없애라고 했다. 「八股」란 본시 明나라의 官吏登用試驗에서 쓰이던 「八股文」을 지적한 것으로 그 文体는 形式的修辭에 치우쳐 生氣발랄한 獨創的 內容이 空虛하다고 알려져 있다. 「党八股」의 경우는 左翼然하는 形式的이고 無意味한 文章을 비꼬는 새 造語였다. 毛沢東은 外國文獻 引用을 뺀내는 教條主義를 배척하면서 中國에 알맞는 群衆路線과 「實事求是」를 강조하였는데, 後者は 事實에 입각하여 真理를 찾으라는 뜻이다.

나아가서 그 整風運動은 처음에 黨員 再教育運動을 통한 幹部의 質的 向上과 全党的 同志的統合을 目標로 삼았으나, 中共黨 執權후에는 일반 大衆에 대한 「思想改造」運動에서도 指針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整風의 구체적 方法은 中共黨의 公式出版物인 『整風文獻』<sup>(50)</sup>의 読書와 解説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선 그文獻을 읽고 나면 集團的으로 「作風」문제를 놓고 批判과 自我批判을 벌이게 하면서 「그릇된 偏向」을 지적하고 나서는 그 「思想根柢」를 階級的 見地에서 따지고 폭로해 나갔던 것이다. 行動과 思考를 劃一化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整風運動은 다분히 中國的인 것이지만 그 主眼은 共產黨의 領導方法에서 「群衆路線」(따라서 反官僚主義)을 貫徹하려는 것으로 歸着된다. 그리고 이에 관한 問題提起는 일찌기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강조되었던 것이다.

레닌은 「人民을 믿고 生氣發瀾한 人民的 創造力의 源泉을 펴낼

수 있는 者만이 승리하고 權力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sup>(51)</sup> 고 했다. 이를 받아 스탈린은 「說得의 方法은 榮勳階級에 대한 共産党的 指導의 基本的 方法이다」<sup>(52)</sup> 고 말하기를 했으나, 그후 1956년의 스탈린 批判에서 폭로 된바에 의하면 그의 말과 實踐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毛沢東의 경우는 前述한바와 같이 1942년에 「整風運動」을 發起한데 이어 1945년의 中共黨 제 7 차大會에서는 「群衆路線」을 강조하였다. 大衆의 創意를 존중해야 하며, 강제로 내려 덕이려는 「命令主義」와 다른 한편 計劃的 指導를 포기하고 群衆의 意識에 따라가려는 「追尾主義」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發議에 따라 中共黨은 1946년의 유명한 決議에서 領導方法을 圖式化하였다. 즉 「모든 工作은 반드시 群衆속에서 일어나오게 하고 또 群衆속으로 파고들게 하여야 한다. 즉 群衆의 散漫하고 系統性 없는 意見을 集中·研究하여 그것이 系統的인 意見이 되게 하며, 다시 群衆에게 선전·해석함으로써 群衆의 意見으로 만들고 또 群衆으로 하여금 堅持케 하며 行動에 옮기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群衆속에서 集中하여 수시로 改正하고 또 다시 群衆으로 하여금 堅持해 나가게 하여야 한다」<sup>(53)</sup> 고 역설했던 것이다.

金日成도 그러한 中共方式에 鄉愁와 매력을 느꼈음인지 「우리도 中國 黨에서와 같이 整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整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党性 鍛鍊이고 思想 教養입니다」<sup>(54)</sup> 고 하였다. 그는 또 본시 中共黨의 用語인 「作風」이라는 말을 北韓



에 수입하면서 「作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事業行程에서 나타나는 일꾼들의 思想과 方法의 綜合的 表現입니다」(55)고 詩句解釋을 달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中共黨의 「領導方法」을 導入하는 일은 政治文化와 더불어 榮動黨의 成長過程이 中共黨과 판이했던 만큼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金日成은 北韓에서 발호한 官僚主義 폐풍의 緣由자체는 學術的으로 究明함이 없이 黨幹部들의 領導「作風」만 나무라면서 官僚主義란 「黨과 群衆을 이탈시키는 要因」이며 「反人民的 統治方法」이므로 이를 퇴치하여야 하며, 각급 幹部들은 「大衆의 利益을 위하여 투쟁」하는 「群衆觀点」(56)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릇된 領導方法인 官僚主義의 表現形態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① 「登用되면 자기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인정하고 自高自大」하는 傾向
- ② 「主觀的 固執」. 즉 「다른 同志들의 의견을 들어 보거나 또는 下部實情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
- ③ 「功名主義와 地位慾」. 즉 「上部에는 아첨하고, 下部에 대하여는 억압」을 일삼는다는 것.
- ④ 「命令과 號令의 方法으로 事業」한다는 것.
- ⑤ 「勢道를 부리는 것」
- ⑥ 「黨 指示文」의 濫發로 政府機關의 實際를 代替한다는 것.

⑦ 檢閲에서의 「偵探式·警察式 方法」.

⑧ 上部 指示에 대한 盲從, 즉 「革命者的 自主性を 잃어 버리고 雇傭者的 根性」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

⑨ 批判의 抑圧

⑩ 「功榮」本位の 機會主義

⑪ 創發的 意見의 默殺

⑫ 事業에 熱誠이 없는 것 등 (57)

이와 같은 北韓版 官僚主義 領導方法의 緣由는 어떻게 分析되는가. 金日成에 의하면 ① 「封建的 부르조아의 思想殘滓」 ② 「幹部들의 많은 부분은 革命的 經驗이 적고 大衆을 革命的으로 옹기 지도하는 능력과 領導方法을 体得하지 못한 靑少年 黨員들로써 구성」되었다는 것 ③ 「党的 幹部政策의 缺陷」 ④ 「党이 「그릇된 事業作風을 반대하여 철저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지도·방조하는 事業을 부족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58) 그래서 中共黨처럼 「整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이 여러 世紀에 걸친 歷史에 뿌리를 가진 政治文化에 관한 原因療法을 探求하지 못했음을 且置하고라도 「부르조아의 思想殘滓」를 부각시키려한 것은 現實認識 자체의 歪曲과 偏見을 말하여줄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조아 國家體制」라고 부르는 先進民主主義國家에서는 견제와 비판, 議會政治와 言論自由가 보장되는 條件에서 北韓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어마어마한 官僚主義의 表現形態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으며, 비록 官僚主義에 관

한 論難이 있다해도 그 樣相은 北韓에 보는바와 같은 專制的 恐怖 雰圀氣와는 質的으로 判이하기 때문이다. 問題의 核心은 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歴史的 眼目에서 보다 중요시 될것은 北韓의 榮動党的 生高基盤이 中共党이라든지 기타 소위 「自力解放」을 자랑하는 党들과 달랐다는 사정이다. 中共党은 그런대로 1921년 創党 당시 불과 57명이던 黨員들이 제 1차 国共合作(1924~7) 내지 「10年内戰」(1927~36), 제 2차 国共合作(1936~45) 및 「8年抗戰」(1937~45)을 경과하는 동안 1945년 4월에는 黨員數 1백 21만, 掌握人口 9천 5백 50만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 나름의 「群衆爭取」위한 가혹한 시련의 통과라고 볼직한 일면도 없지 않았다. 하기가 그후 「3年人民解放戰爭」(1947~9)을 거쳐 49년 10월 1일 執權후로는 共產独裁下 特有的 官僚主義 발호로 두통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그것과 비교할 적에 朝鮮榮動党(北韓共產党)은 他律的 兩断解放 따른 蘇聯軍 進駐下에 급격히 組織되었고 外国武力을 背景으로 執權한 党이다. 즉 群衆속에서 성장한 党이 아니며 自己힘으로 執權한 党도 아니었다. 그 党幹部들은 갑자기 登用되어 일반적으로 共產主義에 대해 好感을 가지지 않았던 北韓住民들 위에 君臨한 꼴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執權후에는 共產党式 統治組織에 특징적인 「피라미드」權力構造에 더하여 스탈린主義的 個人崇拜가 北韓 官僚主義의 温床으로 되고 말았던 것이다. 金日成 자신의 「領導作風」에 보

는 恐怖雰圍氣 造成과 民主主義 彈圧이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한 것도 사실이다.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北韓의 實情을 自体暴露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종파분자(宗派分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주어도 당을 의심하고 당에 속을 주지 않습니다. 류 축운 같은 사람은 왜 차기를 상(相)을 시켰는가 하는 것까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최창익과 김웅에게 『어째서 당신들이 의심병이 그렇게 많은가?』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김웅에게는 『당신이 참모장으로 있지, 전선 사령관을 했지, 무엇 때문에 우리 당이 당신을 신임하지 않는가 해서 밤낮 의심하는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노여워 하는가, 당에서 회의가 긴장한가, 자기 문제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옆에서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자기 문제가 아닌가 해서 눈이 동글해 집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해도 자기 옆구리가 질려서 후다닥 땀니다. 종파 분자들은 모두가 다 이 모양입니다」<sup>(59)</sup>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수정주의(修正主義)를 퍼뜨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것이 들어 왔고 또 들어오고 있으며 벌써 반당파(反党派)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김두봉이 상임위원회가 당보다 높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

하는 것인가? 상임위원회가 당의 명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취가 『당이 직맹(職盟)을 명도할 수 없다. 당원보다 직맹원수가 많으니까 직맹이 당보다 큰 조직이다. 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직맹원들이기 때문에 직맹의 명도를 받아야 한다. 직맹은 당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이다. 당의 명도를 거부하는 사상입니다」(60)

「사법 기관에서는 소위 인권을 옹호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 당과 혁명을 반대하는 기독교 신자 리만화와 같은 적대분자들을 석방하였고 적대 행위를 한 적지않은 수감자들을 석방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61)

引用文에 보듯이 가장 무자비한 肅清으로 얼룩진 金日成의 領導作風과 黨의 高位幹部들마저 일상적인 不安狀態와 恐怖霧圍氣를 면치 못하게 한 法秩序의 유린이야말로 말로 철저하게 反民主的인 北韓版 官僚主義의 典型이며 幻覺劑였던 것이다.

事態를 더욱 惡化시킨 것은 金日成의 領導作風에서 또한가지 두드러진 「急性病」과도 관련이 있는 急進的 「社會主義 建設」과 이 行程에서 부각된 이른바 「千里馬運動」 내지 「速度戰」의 強行이었다. 그것은 北韓當局이 묘사하는 「群衆路線」이 아니라 官僚主義 體制下의 大衆操作 (mass manipulation) 으로 推進된 것이다.

北韓의 現行「憲法」 제 13조에 의하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千里馬運動은 社會主義 建設의 總路線이다. 國家는 千里馬運動을 끊임없이 深化 發展시켜 社會主義建設을 最大限으로 다그친다」는 것이다. 또 그 12조는 「國家는 모든 事業에서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大衆의 意見을 존중히 하며 政治事業, 사람과의 事業을 앞세워 大衆의 自覺的 熱誠을 불러 일으키는 위대한 靑山里 精神, 靑山里方法을 관철한다」고 했다.

이는 다른 共產國 憲法과 비교하여 北韓의것에 독특한 규정이라고 볼지하다. 또 그것은 共產圈 比較 研究者들로 하여금 蘇聯의 「社會主義競爭」이나 「스타하노프 運動」을 中共의 「群衆路線」으로 推進하려는 것 같은 印象을 받게 하는바 있다. 어차피 그 究明은 北韓共產主義의 實態와 徵表를 파악하기 위한 必須的 要請 중의 하나로 提起된다.

그런데 蘇聯의 「社會主義 競爭」은 그 제 1차 5個年計劃(1929 ~ 33)에 즈음한 生産增進運動에 起源을 갖는다. 勤勞大衆의 自發的 積極性을 煽動, 宣傳하여 勞動生産性을 向上시키는 全社會的 競爭을 組織, 動員한다는 취지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部門에서 個別的인 「先進的 模範」을 發見·育成·創造하여 그 「先進的 經驗의 水準」으로 모두가 자체의 勞動生産性과 生産量을 높여야 한다는 競爭을 벌이게 한다는 것이다. 蘇聯共產黨은 그 社會主義 競爭을 發起·推進하면서 「突擊隊 運動」이라든지 한 炭鉞勞動者를 英雄化한 「스타하노프 運動」등을 組織함으로써 제 1차 5

個年 計劃을 4년 3개월 간에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그 競争은 生産物의 質을 높이고, 生産能力을 보다 잘 이용하며, 生産 原価를 引下하고, 資材와 資金을 節約하며, 農作物의 收穫과 蓄産物의 生産性を 높인다는 등에 걸쳐 여러 가지 指標를 내걸었다. 競争의 活動的 形態도 個人간·作業班단위, 工場과 工場, 企業과 企業, 協同農場과 協同農場, 国营農場과 国营農場 등 多樣했다. 그리고 技術革新과 發明 내지 合理化 提案에서 卓越했다고 認定되면 우선 그 勤勞者에게 卹給한 物質的 賞与를 주었고 勳章 授与가 이에 따랐으며 이른바 「社會主義 勞動英雄」이라는 称号가 부여되었다.<sup>(62)</sup>

이 경우에 蘇聯의 原型은 「勤勞者가 자기의 勞動의 成果에 대하여 개인적인 物質的 關心을 갖는 것이 生産을 發展시키는 決定的 刺戟」이라고 認定했으며 「支拂이 勞動의 量과 質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勤勞者는 熟練度を 높이고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기 위한 刺戟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거했던 것이다.<sup>(63)</sup> 레닌도 일찌기 「人民經濟의 여하한 큰 部門이라도 개인적 關心에 입각하여 건설되어야 한다」고 했었다.<sup>(64)</sup>

물론 北韓도 1957년 제 1차 5個年計劃을 개시함에 앞서 蘇聯의 1929년 先例를 그들 나름으로 研究, 導入하려 했다. 하나 北韓의 경우는 또하나의 學習源泉이 있었으니 그것은 中共의 제 1차 5個年計劃(1953~7)의 經驗이었다.

그런데 北韓은 蘇聯이 革命前부터 列強이던 것과는 달라서 中国

과 類似한 地에 놓인 開發途上 後進社會였다. 이른바 「社會主義的 改造」의 物質的 條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戰後 北韓이 中共보다도 不利했다.

결국 北韓은 한편으로 蘇聯의 先例에 보는 圖式을 形式的으로 導入하면서 예컨대 「突擊隊 運動」을 「千里馬 運動」으로 번역하고, 다른 한편 勞動生産性의 向上方式과 農業經理의 集團化등에 걸친 實質的 推進方法은 中共의 經驗을 模倣한다는 折衷方式을 택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形式보다는 實質이 重要했으니 따지고 보면 「折衷」의 내용도 中共의 模倣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金 日成의 領導作風에 보는 「急性病」으로 말미암아 人民經濟의 計劃 化가 中共보다 한발 늦었음에도 中共이 1958년에 「人民公社」設 立을 本格化한 것과 때를 맞추어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完 成되었다고 宣言하는 판국이 었다. 그 無理強行으로 말미암은 北 韓住民들의 苦痛을 且置하고라도 經濟的 後遺症의 꼬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셈이다.

그러면 「社會主義的 改造」過程의 中共 方式은 蘇聯方式과 어 떻게 다른가. 가장 重要한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있어 中共은 蘇聯方式에 뚜렷한 「物質的 刺戟」을 배격하면서 「思想的 刺戟」 을 前面에 浮刻시키는 동시에 「群衆路線」으로 參與意識을 高취하 여 勤勞者들의 自發的 積極性」을 昂揚시키려 했던 것이다. 中 共은 그 方式이 1959년 이후의 經濟的 蹉跌을 빚게되자 일시 劉少奇·鄧小平등의 實用主義 路線의 抬頭를 보게 되었으나, 毛沢東



은 1966년의 「奪權鬭爭」展開와 併行하여 「無産階級 文化大革命」이란 것을 發動하여 종전의 思想事業 重視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하기에 中共도 1976년의 毛沢東 死亡後로는 華国鋒·鄧小平指導体制下에 다시 實用主義의 復活을 보게 된 느낌이다. 그러나 北韓은 金日成 個人崇拜体制를 지금까지 堅持하는 가운데 中共의 毛沢東 方式이 기본상 지금까지 踏襲되어 온 셈이다.

中共은 毛沢東 主導下에 展開된 「文化革命」過程에서 「思想優先·政治第一」을 標榜했으며 또 「破私立公」이나 「闖私批修」의 方針을 強調했었다. 그들의 見解에 의하면 物質的 刺戟을 통한 勞動生産性的 向上이란 資本主義的 方法인데도 蘇聯의 現代修正主義가 이를 답습한다는 것이었다. 中共에 의한 흐루시초프 修正主義에 대한 非難의 한 句節은 다음과 같았다.

흐루시초프는 物質에 의한 刺戟을 선전하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모두 金錢관계로 환원하여 個人主義와 私利私慾의 思想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肉體勞動을 卑賤한 것으로 보게시키려 했으며 他人의 勞動의 成果를 수탈하는 기초 위에 구축된 향락을 다시금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게 하였다. (65)

北韓도 中共의 그러한 見解에 同調하듯이 平壤의 第一放送(對內用)은 1969년에 자주 「文化革命」을 떠들어 오다가 1970년에는 金日成이 그 用語를 제 5차 黨大會에서 유난히 강조하였다.

원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勞動이 報酬를 目的삼지 않고 「生活의 제 1차적 欲求」로 되는 것은 共產主義의 最高段階에 이르러야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말했지만, 中共과 北韓은 그러한 思想을 성급하게도 社會主義建設 段階에서 강조한 셈이다. 아시아 共產主義者들의 「思想優先」精神主義는 두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生産力 發展의 後進的 條件 때문에 그 統治者들이 物質的 刺戟을 大衆에게 分配할 能力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東洋(東北亞)의 典禮主義的 精神文化에도 緣由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기야 아시아 共產主義者들은 大衆에게 物質的 刺戟을 주지 못하면서도 「社會主義 建設」은 無理強行을 일삼는 條件에서 이루어져야 할 名譽와 權力(이른바 「勞動英雄」稱号라든지 幹部職 登用등)을 分配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稀少價値를 지니어야만 刺戟이 될 수 있는 만큼 分配에는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그들은 「群衆路線」이라고 일컫는 大衆操作에 呼訴하는 꼴로 되었다.

무릇 共產政權 밑에서는 모든 生産手段이 「社會化」되었으며 개인의 營利活動은 엄격히 規制된다. 그리고 共產黨에 의하여 임명된 支配人이 中央에서 劃一的으로 策定한 計劃과 指示를 「唯一管理制」로 집행하고 보면 勤勞者들은 疎外意識을 면치 못하게 되며 生産意欲의 低下와 技術革新에 관한 情熱의 상실은 不可避的인 것으로 되고 만다. 드디어 그들은 복종만하는 消極的인 被雇傭者, 그나마 「經濟節約」이라고 이름하는 耐乏生活을 강요당하는 「勞動하는 道具」로 轉落하게 된다. 그 결과는 勞動生産性的 擔保로

나타난다.

그래서 蘇聯共産黨은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고자 「物質的 刺戟」을 앞세우고 다른 한편 中國 共産黨은 「思想的 刺戟」을 前面에 浮刻시키려 했다. 北韓의 경우는 「折衷」方式을 비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黨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정치활동을 든든히 先行시키면서 이에 경제적, 기술적 활동을 옹계 결부시켜 근로자들의 정치적 자각과 意識水準을 높이면서 그것과 物質的 關心을 옹계 결부시키는 것, 이것이 社會主義 建設에서 大衆을 動員하는 우리 黨의 기본 방법이다」<sup>(66)</sup>

「지금의 政治經濟學 教科書에는 計劃化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條件에 관해서는 쓰고 있지만 計劃化의 활동에 있어서 群衆路線을 관철한데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群衆路線에 입각한 새로운 經濟學 教科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sup>(67)</sup>

引用의 前段은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기 위한 折衷方式을 示唆하는 듯 하지만 中共方式이라 해서 物質的 刺戟을 度外視하는 것이 아니고 蘇聯方式이라 해서 思想的 刺戟을 無視하는 것은 아니므로 重點과 基調가 문제되며 결국 北韓의 것은 中共의 종전 類型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政治經濟學에 관해서도 모스크바 刊行物의 번역판을 나무라고 있다.

요컨대 金日成指導体制은 勞動生産性 向上을 위해 「思想的 刺戟」을 앞세우되, 「群衆路線」으로 勤勞者들의 参与意識을 높이려는 大衆操作 手法에 착상한 셈이다. 이 경우에 大衆操作 (mass manipulation) 이란 共產主義 「엘리트」에 의한 一般民衆의 自發的 服從을 調達하려는 心理的 動員의 技法을 말한다.

北韓의 現行「憲法」제 13 조가 「千里馬運動은 社會主義 建設의 總路線」이라고 했으며 「國家는 千里馬運動을 끊임없이 深化 發展시켜 社會主義 建設을 最大限으로 다그친다」고 강조한것은 思想的 刺戟에 群衆路線을 配合시킨 勞動生産性 向上의 試圖라고 볼이된다. 그리고 「千里馬運動」이라고 일컫는 社會主義 勞力競争을 農業에 적용한 것이 이른바 「靑山里 方法」이고 工業에 적용한것이 「大安의 事業体制」라고 指稱되고 있다.

원래 「千里馬運動」이란 中國의 古代小說 『三國誌 演義』에 등장하는 「赤兔馬」가 하루에 千里를 내달렸듯이 大躍進의 氣勢로 社會主義勞力競争에 떨쳐나서라는 組織的 呼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企劃은 1956년 12월에 열린 勞動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 결정되었고, 그 發動은 會議 직후에 벌어진 金日成의 降仙製鋼所 (平南道 江西郡 所在) 방문과 現地指導에 비롯된다.

運動發起의 背景事情에 관하여 北韓通을 自認하는 한 日本共產主義者는 그 무렵 「解放前 朝鮮共產主義黨의 여러 派閥과 蘇聯 및 中共에서 귀국한 일부 幹部들이 結탁하여 흐루시초프 登場으로 蘇聯에 나타난 路線을 北韓에 導入」하려 했으며, 또 5개년계획에

대한 蘇聯의 援助가 보잘것 없는 데다가, 「平壤市民들의 半數정도  
는 戰時 그대로의 地下洞窟生活」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썼다.  
그래서 金日成을 중심으로한 主流派는 消極的 防禦보다도 「大衆  
자신의 분기」를 선동하고 이에 의거하려는 積極的 方策을 구상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68)

千里馬運動의 組織方法은 「個別的인 模範의 創造를 全國에 一般  
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共產圈에 공통적인 方法이다.  
또 그 大衆操作 手法은 北韓의 경우 個人崇拜 「시스템」을 최고  
도로 활용하면서 作業現場의 선발된 勞動者를 직접 感動케 하며  
有利한 條件을 지어주고 그로 하여금 決死투쟁의 先頭에 나서게  
하고 곧이어 전체 大衆媒體를 總動員하여 全國이 呼応을 환기함으  
로써 「새끼 치기 운동」을 扞延시키는데 있었다.

金日成이 事前에 직접 선택한 特定「模範勞動者」로 하여금 特定  
職場의 特定作業班에서 千里馬運動을 전국에 호소케 하면, 각지의  
黨 및 社會團體 組織이 바빠지게 된다. 우선 모든 作業班 單位  
로 쫓기대회를 열고 높이 책정된 生産目標와 思想學習 내지 技術  
革新 등에 걸쳐 「쫓기 임무 조항」을 만들어 상급 社會團體에  
보고하여 「千里馬作業班」이라는 칭호를 부여 받도록 登錄하게 된  
다. 그후의 突擊作業과 勞力競爭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는 「入院  
중인 자도 退院하겠다고 했다」든지 勞力動員에 나간 학생들이  
「천 삼 뜨고 허리 펴기」운동을 벌였다는 데서 片鱗을 알아 볼  
수 있다.(69) 물론 그것은 일반 大衆에게 들씨워진 가혹한 重勞

動的 사실상 強要를 의미하다 싶이 했다. 그러나 作業現場에서 熱誠 黨員이 核心分子가 되어 自發的 献身性を 발휘하려한 점도 부인할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作業량을 초과 완수한데 대해서는 표창장과 기념수첩이니 메달 등이 수여되었으나 蘇聯에서 보는 바와 같은 物質的 刺戟은 거의 보잘 것 없었다.

그런대로 北韓指導層은 千里馬運動에 起死回生策을 찾은것 같고 5개년계획의 추진에 自信을 얻은듯이 보였다. 그들은 1958년 8월에 工業과 農業의 모든 분야에서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나 千里馬運動의 限界性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우선 農業 部門의 成長率은 工業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으며 農民들의 生産意欲은 集團化의 強行軍行程에서 형편없이 저하돼 있었다. 工業부분은 誤作品의 量産을 포함하여 成長率은 상당히 빠른 것 같으면서도 技術革新이 遲遲不振한 상태였다.

여기에서 金日成은 먼저 農業生産力의 확충을 위한 農民들의 思想的動員과 農協의 運營方式 改善을 결심하였는데, 그의 노력은 자신이 설정한 集團化와 思想優先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千里馬運動의 氣勢를 農村에 침투시키고자 「모델·케이스」로 平南道 江西郡 靑山里를 지정하였다. 그곳에는 農家 6백여호와 田畝 1천町步를 가진 農業協同組合이 있었는데 事前調査로 生産力 發展의 有利한 條件이 관측되었고 化學肥料와 農機具 등의 集中支援을 投入하면 「模範 創造」가 가능하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金

日成이 1960년 2월의 農閑期에 즈음하여 靑山里에서 착수한것은 農家の 戶別訪問과 각종 會合, 예컨대 作業班會議, 班長會議, 勞動黨 會議, 協同組合管理委員會 등의 직접 참가였다. 그는 幹部들에게 「指導를 現實에 접근시키라」 「呼出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現場에 나가라」 「作業班員들을 信賴하여 그 의견을 듣고 의논하고 나서 계획도 세우고 命令도 내리라」는 등을 訓示하여 官僚主義 退治와 群衆路線 登場을 강조했다고 한다. (70) 里의 人民委員長으로 하여금 單一化된 農協管理委員長을 겸임케 함으로써 農村 行政을 生産에 직결시켰다든지 能率評價組란 것을 作業班總會에서 선출케 하여 勞力点数 評價時에 情實이 介在하지 않게 하는 등 일련의 改革을 단행했다고도 한다. 또 「思想教養」을 높인다고 『拊日 빨찌산 回顧記』 따위를 많이 읽게 하고 토론시켰다는데 이는 逸話的인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靑山里 方法을 北韓에 보급시키고자 「模範 創造」를 위해 그 마을에 外部로부터 약 2백명에 달하는 「住宅建設隊」를 投入시켰다는데 이러한 特惠는 좀처럼 보급될 까닭이 없었다. (71) 한편 金日成은 마을의 老人代表 약 10명과 좌담하면서 「오늘 勞動時代에는 60이 還甲이 아니라 90이 還甲이다」고 力說했다는데, 그 實踐이 바로 「勞動人口의 95%가 農産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자랑의 내막으로 되었을 것이다. (72)

그후 金日成은 靑山里 方法을 工業管理에 적용한다고 1961년 2월 大安電機工場(역시 平南 江西郡 所在)에서 現地指導를 실시

한바 있다. 思想事業을 앞세우면서 群衆路線을 관철한다고 했는데 그때 創造된 「大安의 事業體制」가 오늘날 까지 「새로운 工業管理體制」라고 고집되어 왔다.

그 本領은 金日成에 의하면 「經濟機關, 企業所들이 모든 事業을 黨委員會의 集體的 指導밑에 進行하며, 政治事業을 앞세우고 群衆을 發動하여 提起된 革命課業을 수행하며, 윗 機關이 아래 機關을 도와주고, 윗 사람이 아래 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이 同志的으로 協助하고, 모든 職場 모든 工場 모든 部門들이 서로 밀접히 協力하여 協同生産을 發展시키며 客觀的인 經濟法則들에 의거하여 經濟를 科學的으로 合理的으로 運營」하는데 있다고 설명되었다.<sup>(73)</sup> 이것 또한 「政治第一, 思想優先」의 基調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오직 思想的刺戟과 群衆路線을 통한 參與意識 鼓吹로 工業生産의 停滯를 打破해 보려고한 試圖였다. 당시 蘇聯에서는 흐루시초프가 「資本家들 한테서도 배워야 한다」고 物質的刺戟과 合理主義的 經營方式을 제창하고 있었는데, 이에 同調할 수 없는 아시아 共產主義者들의 反撥의 一環으로서 金日成의 「大安의 事業體制」를 位置賦與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표현은 8.15 이후 蘇聯方式을 導入한바 支配人 중심의 「唯一管理制」를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개시되었다. 代案은 工場의 黨委員會로 하여금 工場管理의 最高機關이 되게 하고 群衆의 創意와 積極性을 발휘시킨다는 것이며, 生産計劃의 作成에서도 「勞



動者와 協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協議」란 形式的인 것에 불과했고 결국은 中央으로부터 下達된 生産目標 配當을 勞動者들에게 알리면서 「政治工作」을 강조한다는 꼴로 되었다.

정녕 勞動者의 企業 參與를 保障하려면 共産圈의 경우 최소한 유고슬라비아의 「自主管理」制度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中共도 1978년 華国鋒의 유고슬라비아 訪問 이후로는 工場管理方式의 再檢討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工場管理의 最高機關이 党委員會가 아니라 從業員들이 선출한 「勞動者評議會」로 되어 있는데 「産業權威構造의 民主化」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党이 勞動者評議會에 대하여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채널」은 選舉時의 組織的 活動과 當選者에 대한 지도, 勞動組合(職業同盟)을 통한 활동이며, 표면에 나서서 실시하는 일이 없다. 專門家の 役割은 尊重되며, 각 企業은 1965년의 經濟計劃이후 事實상의 自由市場經濟하에서 他企業과 競爭하게 시리 되어 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는 부단한 技術革新에 뒷받침되는 經濟成長의 本軌道進入을 나름대로 誇示할 수 있게 된 셈이다. (74) 北韓이 그 方式을 導入하려면 個人崇拜体制의 退場후에

「思想優先, 政治第一」부터 건어치울 필요가 있으리라고 관측된다.

그리고 北韓의 「大安体制」에서는 專門家の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技術革新 내지 經營合理化에 걸친 期待可能性이 事實상 봉쇄당한 꼴로 되고 만 것이다.

毛沢東時代の 中共과 더불어 北韓은 經濟活動을 非經濟的 要因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試圖에서 「思想優先」을 강조하며 「群衆路線」을 個人崇拜과 결부시켜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中共은 76年の 毛沢東 死亡後 「實用主義」方向의 路線修正을 浮刻시키는데 이르렀다. 北韓의 「千里馬運動」이나 「靑山里 方法」 내지 「大安의 事業體制」란것도 현재의 個人崇拜制에 지탱될 따름이어서 오래도록 固執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第五章 北韓憲法의 体制的 特徵

薄荷 肉桂 胡椒 丁香

## 第五章 北韓憲法の 体制的 特徵

이상 北韓에서의 「社会主義的 改造」의 強行과 뒤이어온(거꾸로 된 次序의) 「社会主義 基礎 建設」에 보는 理論과 實踐의 個性的 徵表를 考察해왔다. 어차피 「社会主義」段階를 표방하게 되었다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古典的 圖式에 따라 그 「土台」의 變遷에 어울리도록 「上部構造」에 속하는 憲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1859년의 『政治經濟學批判』序文에서 公式化한 歷史的 唯物論의 主要한 命題는 「生産關係의 總體는 社會의 經濟的 構造 즉 現實的 土台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 土台위에 法律的 政治的 上部構造가 서며 또 일정한 社會的 意識形態들이 그 土台에 適應하게 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勞動黨 제 4 차大會가 1961년 5월 17日字 決定書에서 北韓에서의 「社会主義建設의 勝利」를 規定하였다면 이 사실을 法的으로 鞏固化」할 「社会主義 憲法」의 出現은 머지않을 것으로 豫見할 수 있었다. 하나 「社会主義憲法」이라는 上部構造는 土台의 構築보다도 10년 이상이나 뒤지게 된 것이다. 그 緣由는 土台의 構築이 허술했거나 하자가 많았음을 짐작케 하고 남음이 있다.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제 5기 제 1 차會議가 「社会主義」를 못 박은 新憲法을 채택한 것은 1972년 12월 27일의 일이었다. 앞서 1948년 9월 8일 最高人民會議 제 1기 제 1 차會議가 채택한

중건의 「憲法」이 「人民民主主義型이었다면 이번 것은 「社會主義建設」과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定立을 法的으로 鞏固化한 셈이었다. 이에는 革命段階論에 따르는 理論的 連綿性이 있어야 했던 만큼 새것의 分析, 檢討는 중건 것의 회고, 批判을 필요로 한다.

北韓의 1948년 憲法은 蘇聯의 世稱「스탈린 憲法」(1936년)을 人民民主主義 段階에서 모방한 것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에 의하면 憲法이란 「이미 달성한 成果의 總和, 따라서 이미 사실상 獲得하고 戰取한 것의 記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75)</sup> 한편 綱領이란 아직 實現되지 않은 權利나 施設에 대한 指向의 表現이라고 한다. 그는 前者에 속하는 憲法의 典型的인 것이 1936년 蘇聯의 社會主義 憲法이며, 이와는 달리 資本主義國家의 憲法은 아직 실질적으로 實現되지 않은 關係를 表現하는 가닥에 진정한 憲法이 아니며 綱領에 불과하다고 했다.

北韓의 金日成은 스탈린의 그 말을 옮겨 놓을 참이었다. 그는 1948년 7월 9일 憲法實施에 관한 報告에서 그 憲法은 「北半部에서 이미 實施된 諸般 民主改革의 成果들을 法的으로 確固」<sup>(76)</sup>히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시에 一步 앞서 서울에서 발표된 大韓民國憲法草案을 가리켜 「내용없는 공허한 선언서」<sup>(77)</sup>라고 비방하였는데 綱領 정도로도 평가하지 않은 셈이다. 오직北韓의 憲法이 「이러한 秩序를 수립하려고 지망하는 남조선 人민들의 根本 이익을 반영」<sup>(78)</sup>한다고 강변하면서 北韓憲法에 對南用的 「綱領」의 意義를 부여하려고 試圖했었다.

그러나 北韓의 1948년 「憲法」은 애당초 制定經緯부터 하자가 있었다. 당시의 最高人民會議은 그해의 이른바 「8·25 南北 總選舉」로 구성되었다고 했지만 그러한 選舉는 南韓에서 전혀 실시된바 없었다. 또 그 最高人民會議은 소집되자마자 부랴부랴 49명으로 구성된 「憲法委員會」를 발족시켰는데, 이 委員會는 이미 北朝鮮人民會議가 1948년 7월 10일에 채택하여 北韓地域에서 실시 중이라고 했던 憲法을 이제부터 全國的 範圍에서 실시할 「統一的 民主主義 人民共和國憲法」으로 채택할것을 決議했으며, 이어 最高人民會議 本會議는 「異議없이」 이를 채택해 48년 9월 8일자로 「公布」한다고 했다. 그러한 經緯는 憲法草案을 토의할 時間的 餘裕도 없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우선 審議의 포기 내지 缺如를 測定케 한다. 이어 北韓에서의 「民主改革의 成果」를 法的으로 確固히 한다는 것이 「統一的」憲法으로 公布된다는 것은 共產主義의 政治 및 法律理論에 비추어서도 矛盾이 아닐 수 없었다.

또 그內容도 法體系上 지극히 混亂되고 散漫한 것이었다. 예컨대 31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北韓에는 少數民族이 存在하지 않는 만큼 이 規定은 蘇聯·中共憲法의 부질없는 模倣에서 派生된 拙作이었다. 또 제 3조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舉原則」을 規定하였는데 그 標榜



과 現實간의 괴리를 차지하고라도 같은 選舉原則에 관한 反復的表現이 69조와 12조에 거듭 발견되는 형편이었고 세련되지 않은 중복과 支離滅裂이 散見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1948년 憲法은 共産党에 의한 一党独裁의 過渡的 隱蔽手段에 불과한 어수룩한 拙速作品이었다.

그런대로 共産主義의 革命理論에 비추어 보면 北韓의 1948년 憲法은 蘇聯의 「스탈린 憲法」을 모방하되 社會主義로 향해가는 人民民主主義 段階의 「東歐의 類型」에 속하는 것이었다. 統一戰線의 실속없는 外樣을 비친 점도 東歐圈과 마찬가지로 었는데 그 戰略的 重要性을 감안하는 데서 모스크바는 北韓의 것을 마치 「行動하는 民主主義의 標本」인양 宣傳해 주었던 것이다. (79)

1972년 12월에 制定된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을 보더라도 그 制定過程은 非民主的이라기 보다 오히려 亂暴한 方向에서 特異한 것이었다. 蘇聯의 憲法은 1936년의 경우건 1960년의 것이건 나름대로 펴 長期間에 걸친 「全人民的 討議」에 붙인바 있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憲法 改正에 관한 討議가 1948년 이후 어떤 党大會나 最高人民會議에서도 단 한번도 附議되었다는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72년 10월 23일부터 27일에 걸쳐 소집된 党中央委 全員會議에 「憲法 草案」이 提示되었고 또 채택되었다. 이어 그것을 合法化하기 위한 節次도 拙速하기 그지 없었다. 그해 12월 12일 最高人民會議와 道(直轄市)·市(區域)·郡 人民委員會의 總選舉가 實施되었으며, 그 결과는

投票率 100%, 單一推薦立候補者들에 대한 贊成率도 100%라고 발표되어 世界로 하여금 苦笑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어 12월 25일에 소집된 最高人民會議은 憲法草案을 「審議」하여 27일에 滿場一致로 채택했으며 바로 그날부터 施行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新憲法 採択에서 발휘된 「速度戰」은 다른 共產國에서도 좀처럼 類似를 찾아볼 수 없는, 바이다. 철저한 個人崇拜體制下的 완전히 統制된 「뭇쉬·보턴」式 一絲不亂의 效率性에 대하여 못사 람으로 하여금 경탄과 한숨을 금치 못하게 하는 形편이다.

北韓에서의 政治的 「速度戰」은 그곳 個人崇拜對象의 個性의 表現인 동시에 드물지 않게 南韓에서의 事態進行에 대한 급속한 対応的 反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972년으로 말하면 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었고 南北 對話가 일단 本格化된 해였다. 그리고 이해 10월 17일 韓國(南韓)에서는 朴正熙大統領에 의한 體制改革의 特別宣言이 발표되었다. 이어 11월 21일 實施된 國民投票를 통해 維新憲法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社會主義建設의 勝利」를 黨大會水準에서 公式的으로 宣言한것이 1961년 5월 17일이었음을 감안할적에 그 「法的 鞏固化」作業이 憲法으로 나타나기 까지 무려 10년 이상 걸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성급한 社會主義建設의 土台에 脆弱性이 있음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背景에도 불구하고 1972년 憲法에

나타난 北韓의 社會主義統治構造는 여하 社會主義國家에 비해 매우 急進的이며 또 北韓만에 발견되는 特異한 個性이 유난히 浮刻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社會主義란 用語使用의 便宜上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이 말하는 「共產主義로 향해가는 낮은 段階」로서 「프롤레타리아獨裁」下的 生産手段의 社會的所有를 基調로 삼는 統制된 生産關係의 支配를 念頭に 두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西歐의 民主社會主義 내지 오늘의 社會民主主義에 보는 概念規定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해 一線을 劃한다.

우선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 나타난 獨特한 理念과 權力構造 그리고 社會經濟體制 등에 걸친 主要한 特徵을 概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指摘할것은 「自主」와 「主体思想」의 強調인데 그것이 個人崇拜와 結付되어 있다는 점이다. 憲法 제 1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고 했다. 한편 蘇聯憲法(1960년 12월 22일 개정)의 제 1조는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聯邦은 勞動者와 農民의 社會主義國家이다」<sup>(80)</sup>고 한다. 또 中共憲法(1978년 3월 5일 채택)의 제 1조는 「中華人民共和國은 勞動階級이 지도하는 勞農同盟을 기초로 한 프롤레타리아階級獨裁의 社會主義國家이다」<sup>(81)</sup>고 하였다. 이 경우 北韓의 것이 유달리 「自主」를 강조하였는데 얼핏보아 新生國의 弱小共產政權에 特徵的이며 外勢介入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反應하려는 民族的 情緒의 表現같지만 그것이 「主

体思想」강조를 위한 布石이라는데 留意해야 할 것이다. 또 「전체 인민」이라는 表現으로 「勞農同盟」을 대체시킨 듯 하지만 제 2조에 그 用語가 나오고 제 10조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으나 마찬가지로 격이며 고작해야 北韓 勞動者 成分의 복잡성을 反映하는 동시에 對南宣傳상의 고려를 담은 정도의 것이다.

제 2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勞農同盟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台에 依拠한다」고 했다. 「政治思想的 統一」이란 것을 「土台」보다 앞세웠는데 이는 「政治第一·思想優先」을 憲法에 까지 못박은 꼴이다. 이것과는 對照的으로 蘇聯憲法은 政治的基礎로서 勞動者代議員 「소베트」와 經濟的 基礎로서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를 말하고 있다. 思想을 前面에 浮刻시키고 나서 北韓憲法 제 3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고 했다. 바로 그 「빛나는 傳統」이란 北韓에서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를 고취시키는 口頭禪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제 4조는 北韓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의 主体思想을 자기 활동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北韓의 모든 教育·敎養手段은 그 「主体思想」이 바로 「首領의 思想」이니 「金日成思想」으로 풀이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個人崇拜 思想의 歸統은

제 6장 (제 89조 이하)의 「人民共和國 主帝」에 대한 유례없는 強大한 權限부여로 연결되었다.

「主席」은 「國家의 首班」이며 「國家主權을 대표」한다는 것으로 外國의 单独大統領을 連想시키며 또 48년 憲法이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로 하여금 集團的大統領制를 行使케 하던 것과 대조되나, 新設된 主席의 權限은 실로 萬能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政策決定機構인 中央人民委員會를 「직접 지도」하며, 게다가 政務院 會議 (종전의 內閣會議) 를 「소집하고 지도한다」고 했으니 首相 (總理) 職까지 실질적으로 겸유한 셈이다. 國防委 委員長으로서 軍을 장악하는가 하면 最高人民會議의 「法令」과 中央人民委의 「政令」 등을 公布하며 스스로 法律과 마찬가지로 「命令」을 내릴 수 있다. 기타 最高人民會議의 制裁를 받지않는 特赦權 行使라든지 條約의 批准 및 廢棄權, 總理나 各部長의 副署를 필요로 하지않는 國法上 行為등 類例를 갖지 못할 個人獨裁權限을 憲法에 明示해 놓았다. 神格화된 個人崇拜對象 아니고서는 향유할 수 없는 이러한 萬能的 權限은 그 어떤 後繼者건 좀처럼 引受할바로 되지 못할 것이다. 換言한다면 北韓의 72년憲法은 오직 金日成의 生理的 健在期間에 한해서만 通用될수 있을 따름이다.

두번째로 지적할 特徵은 黨과 國家의 一體化이다. 제 4조는 國家가 「勞動黨의 主体思想을 자기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했으니 黨의 主体思想에 투철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즉 非黨員은 國家公務員으로도 될수없게 규정한 셈이다. 뿐만이

아니다. 제 68조는 「公民은 集團主義 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이쯤 되면 일반公民도 黨員과 별로 다를바 없는 義務와 規律을 부과한 셈이다. 이러한 規定은 共產圈의 다른 憲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바이다. 게다가 中央人民委員會는 主席의 「직접 지도」하에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이며 政策決定機構이고 幹部級 公務員 및 軍事指揮官들의 任員權을 장악하는 「勤勞者 權力の 一體性」을 體現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人的構成은 主席이하 모든 中央人民委員들이 (오직 한명의 例外인 金日成의 外叔 康良煜 朝民黨首를 除外하고는) 그대로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들이다. 요컨대 黨政治委자 곧 中央人民委나 별도의 會合조차 필요없게 된 완전한 黨·政 癒着現象이 浮刻되는 셈이다.

셋째 特徵은 共產主義(「最高段階」)로 향한 漸次的 移行段階에 들어섰다는 蘇聯조차 무색할 정도의 全人民的 所有(國有化)의 強調이다. 즉 「社會主義 段階」에서 類例가 드문 協同團體 所有의 制限과 「個人所有」의 抹消定向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제 19조를 보면 「國家所有는 全體人民의 所有이다. 國家所有權의 對象에는 制限이 없다. 나라의 모든 自然富源, 重要工場, 企業所, 港灣, 銀行, 交通運輸 및 체신기관은 國家만이 所有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國家所有權의 對象에는 制限이 없다」고한 規定이 特異한 것이다.

또 제 20조는 「協同團體 所有는 協同經理에 들어있는 勤勞者들의 集團的 所有이다. 土地, 부림짐승, 農機具, 고깃배, 建物 등과 中小 工場, 企業所有는 協同團體가 所有할 수 있다」고 했으나 끝이어 제 21조는 「國家는 社會主義的 協同經理의 制度를 鞏固 發展시키며 協同團體에 들어있는 전체 成員들의 自願的 意思에 따라 協同團體 所有를 점차 全人民的 所有로 전환시킨다」고 했다.

요컨대 協同團體의 所有는 國有化를 前提로 하여 過渡的으로 일시 認定된다는 것이고, 그나마 協同農場員들은 부림짐승(役蓄)마저 「集團的으로」만 所有한다는 것이니 사실상 所有하지 못하는 격으로 되어있다. 다른 한편 蘇聯憲法 제 8조는 「集團農場이 占有하는 土地는 無償으로 그리고 無期限 즉 永世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個人所有의 領域은 어떠한가. 제 22조에 의하면 「個人所有는 勤勞者들의 個人的 消費를 위한 所有이다. 勤勞者들의 個人所有는 勞動에 의한 社會主義 分配와 國家 및 社會의 追加的 惠沢으로 이루어 진다. 協同農場員들의 터밭 經理를 비롯한 住民의 個人 副業經理에서 나오는 生産物도 個人所有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自然富源은 國有요, 役蓄 및 農機具는 協同組合 所有이므로 그 使用의 自由가 없는 條件에서 어떻게 「터밭 經理」와 「副業經理」가 가능할 것인가. 눈치를 보아가며 이른 새벽이나 밤중에 어떤 便法을 강구하리라고 짐작되지만 그러한 가운데 生産的 收益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는 거의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蘇聯憲法은 제 7 조에서 「集團農場의 각 世帯는 農業 아르제리 ( Artely = 協同組合構成體 ) 의 定款에 따라 集團農場의 共同經營으로부터의 기본 收入이외에 小区劃의 宅地附屬地를 個人的으로 사용하고 또한 宅地附屬地에서의 副業經理, 住宅, 蓄産用家蓄, 家禽 小農具를 個人的으로 所有한다」고 했으니, 蘇聯에 비교해 보더라도 北韓의 規制가 얼마나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제 4 장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도 北韓의 것은 規定內容과 實質에 있어 中共이상으로 苛酷한 制限을 느끼게 한다. 물론 北韓憲法도 文面上으로는 제 51 조 이하에서 平等權, 選舉 및 被選舉權, 言論 出版 集會 統社의 自由, 信仰과 反宗教宣傳의 自由, 申訴 및 請願權, 勞動權, 休息權, 社會保障權, 教育을 받을 權利, 科學 文學 藝術活動의 自由등을 羅列하기는 했다.

그러나 제 51 조에서 이른바 「公民은 政治, 經濟, 文化등 國家社會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누구나 다같은 權利를 가진다」고한 平等權 規定은 제 10 조의 「階級路線」規定 때문에 成分 差別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그 제 10 조는 蘇聯憲法에서 發見되지 않는 것이다. 뿐더러 제 61 조는 제 51 조와 矛盾되는 特權規定을 露出시키고 있다. 그 規定은 「革命鬪士, 革命烈士家族, 人民軍隊 後方家族, 榮譽軍人들은 國家와 社會의 極盡한 保護를 받는다」고 했다. 이 「極盡한 保護」가 곧 特權에 연결된다. 北韓의 世襲的 또는 社會專制主義的 特權階級の 出現을 合法化하는 不平等 規定이라고 보



지 않을 수 없다.

무릇 基本人權이란 憲法에 規定되었다고 해서 제대로 保障되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 北韓社會에 보는 住民들의 無權利狀態는 世上이 周知하는 바이다. 基本人權이 保障되려면 무엇보다도 「權力으로부터의 自由」와 「權力에 대한 牽制」가 필요하지만 北韓에는 바로 그 기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罪刑法定主義의 正當한 節次가 있어야 司法上的 保障이 가능하지만 北韓에는 그것도 없으며, 「党的 決定」이면 生殺與奪이 左之右之되는 데다가 「群衆路線」이라는 표방 아래 「人民裁判」이 橫行하기도 하는 實情이다. 근원적으로 말하면 財産權의 自由가 있어야 個人的 自主의 條件이 성립되며, 비록 그것이 없더라도 職業選擇 및 職場移動의 自由라도 있어야 하겠는데 北韓社會에서는 그 可能性이 封鎖되어 있는 實情이다.

다른 한편 中共의 78년 憲法 제 45조는 公民이 「마음놓고 見解를 밝히고 대담하게 意見을 발표하며 大辯論을 실행하고 大字報를 써붙일 權利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78년 11월 北京 거리에는 毛沢東의 權威를 헐뜯고 党主席 겸 首相인 華國鋒더러 最高權力을 鄧小平에게 移讓하라고 요구하는 大字報가 나붙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北韓의 경우는 規定은 고사하고 전혀 想像外의 일이다.

나아가서 東歐圈에 비교해 보더라도 北韓憲法에 言及안되었으며 따라서 保障되지 않은 基本權의 脱落이 주목을 끌게 한다. 우선

居住移轉 및 旅行의 自由에 관한 規定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裁判을 받을 權利와 罪刑法定主義에 관한 規定이 없다. 公務員에 대한 訴追, 彈劾에 관한 規定도 없다. 中共憲法조차 제 55조에서 「公民은 法律을 위반하거나 職責을 다하지 않는 여러 한 國家機關 및 企業·事業單位의 職員에 대해서도 各급 國家機關에 告發할 權利를 가진다. 公民은 權利를 침해당했을 때 各급 國家機關에 申訴할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告發과 申訴에 대해 壓迫을 가한다든지 打撃·報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規定했는데, 北韓에는 그러한 保障手段이 缺落된 形편이다.

이상 北韓憲法에 보는 權力構造와 住民의 基本人權의 対応關係 圖式은 政權이 住民에 대해 그토록 強力한데 비해 이에 대한 申訴 내지 牽制의 保障手段은 微弱하기 보다는 殆無의 狀態에 놓여 있음을 말하여 준다. 黨이 超憲法的 萬能獨裁機構로서 그 政權위에 鎮坐하고 있으며 또 그 黨 위에 거의 神格화된 個人崇拜의 기틀이 君臨하고 있는 實情이다.

北韓憲法에 보는 또한가지 特異한 特徵은 이른바 「教育學」에 대한 規定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39조는 宣言하기를 「國家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를 구현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투쟁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고 했다. 共產圈의 다른나라 憲法에 없는 規定이다. 애당초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憲法理論은 이미 革命으로 戰取한 成果를 法的으로 鞏固化한다는 것을 基調로 삼고 있지만

北韓憲法の 그 「새 人間」型 規定은 未來指向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體制의 鞏固化와 大衆動員의 기틀을 定式化한데 그치지 않고 住民들의 思考方式 자체를 劃一化하려는 野心的 意圖를 憲法에 까지 沒박은 셈이다.

北韓의 現權力體制가 그곳 住民들을 南韓住民들과 전혀 判別인 「새 人間」型으로 鑄造하려 한다고 할 적에, 이는 南北간의 가장 중요한 「異質化」 추세라고 관측되기도 한다. 과연 그러한 野心的 試圖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限界는 어느線에서 豫測될지는 다음 章에서 檢討할 問題提起이다.

## 第六章 「새 型의 人間」鑄造의 問題狀況

自由寺上人 法体 章六郎

## 第六章 「새형의 人間」鑄造의 問題狀況

무릇 「人間革命」이라든지 「民族改造에 관한 論議는 政治的 矛盾 혹은 社会的 混亂등 不条理를 是正하려는 問題意識에서 비롯된다. 民族獨立 혹은 社会革命을 推進하려고 할 때 社会成員들의 態度·行動·價值觀·思考方式 등에 問題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提起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人間革命 또는 改造의 方法에 관해서는 두가지 테두리가 指目된다. 하나는 教育·修養·信仰·國民的 覺星의 喚起를 基調로 삼는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레닌主義는 그 方法을 「觀念論的 人間革命論」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하려 든다. 金日成의 初期 見解도 이러했던바 그는 1945년에 말하기를 「과거 조선의 자본 계급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으며 『민족 개량』이니 『민족 자치』니 하는 구호를 내걸고 인민을 기만하였습니다」(82)고 역설했었다. 하나 그의 오늘날 시책은 論理的으로 알송달송하게 되었는데 이는 차후에 검토할 問題이다.

원래 마르크스·레닌主義는 歷史的 唯物論에 따라 社会革命을 첫째 條件으로 삼아 人間革命을 實現하려는 立場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르크스가 『政治經濟學批判』序文에서 公式化한 見解는 「人間的 意識이 그들의 存在를 規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社会的 存在가 그들의 意識을 規定하는 것이다」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거듭 「意識이 生活을 規定하는 것이 아니라 生活이 意識을 規定한다」<sup>(83)</sup>고 강조한 것이다. 人間은 주어진 位置에서 條件지어진 社会的 諸關係의 總和이기 때문에, 社会的 諸關係를 變革하여야만 비로소 人間の 質的 變革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端的으로 말해서 制度만 바꾸어 놓으면 人間도 달라지는가. 이에 대해 蘇聯共産主義의 指導者들은 어쩔 수 없는 實際 經驗에 입각해서 人間の 意識은 그 物質的 存在보다 뒤지게 마련이라고 告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生産關係가 定立된다 해도 意識은 낡은 것을 지니고 있어 革命후에도 人間革命의 促進이 필요하다는 투이다. 이러한 現實認識을 「存在에 대한 意識의 遲滯에 관한 學說」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에 오직 「先進的」指導者만이 그 學說이 보여 주는 普遍的 傾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看做된다. 그리하여 스탈린主義는 온갖 成果의 榮光을 오직 한사람 뿐인 「偉대한 領導者」에게 돌리려는 一面的인 主觀主義에 타락하고 만 것이다. 한편 뒤떨어진 大衆은 生命을 이어가기 위해 重勞動에 시달리면서도 얼마되지 않는 休息時間을 「思想學習」에 빼앗기는 가운데 獻身과 服從과 奉仕의 세 道德을 體得하라고 強要당하는 신세로 轉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學習」하며 따라갈 뿐이지 主体的 意思決定이 없는만큼 오로지 拍手喝采의 集團으로서 指導者의 命令대로 움직이는 手段的 存在 꼴로 내어 물리게 된 것이다.

하기야 오늘의 蘇聯은 「人間革命」을 위한 「思想敎養事業」을  
적 緩和하였고 漸進的 方向에서 合理化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  
러나 北韓의 現實은 지금껏 스탈린時代의 蘇聯, 毛沢東時代의 中共  
마냥 「人間革命」을 위한 「思想事業」의 速度戰이 고집되어 있음  
을 보여주는데, 그 強度와 規模는 兩大背景國의 지난 날도 무색할  
지경이다. 北韓은 「共產主義的 새 人間」의 育成을 위한 이른바  
「社會主義 敎育學」을 憲法 제 39조에 規定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人間革命論과 소베트敎育學의 단순한 導入에  
그치지 않는 變質된 特殊形態로 되어있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歴史的 唯物論에 입  
각한 經濟的 決定論으로 人間性 자체를 環境 특히 制度의 産物이  
라고 보았고 「人間の 本質은 그 現實에 있어서 社會的 諸關係의  
總和이다」(『포이에르바하論』)고 했다. 그리하여 社會革命을 수  
행해야만 비로소 人間革命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 革命을 先  
導할 動員對象 즉 「領導階級」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했는데, 그  
理由는 資本主義 發達에 따라 수요가 많아졌을 뿐더러 資質面에서  
組織性, 規律性, 革命性, 集團主義 등 美德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풀  
이한 것이다. 나아가서 社會革命이 성공하면 「全面的으로 發展한  
人格」(Vollseitig entwickelte Menschen)의 普遍的 形成이  
가능하리라고 하면서 「敎員은 生産의 體系 전체를 젊은이들이 재  
빨리 體得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그들이 社會의 必要와 各者의  
性向에 順應하여 한 生産部門에서 다른 生産部門으로 차례로 移行



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教育은 현재와 같은 勞動의 分割이 각자에게 刻印하는 一面的 性格을 解消시키게 될 것이다」(84) 고 했다.

그러나 人間觀의 經濟的 決定論은 人間의 目的指向性있는 自由에 대한 否認을 의미하게 된다. 또 社會革命이 곧 人間革命에 연결되지 않았음은 예컨대 오늘의 러시아인이 고골리가 描寫한 革命前 러시아인과 별로 달라진바 없다는 사실에서도 관찰되거나와 共產圈에서 그토록 「思想教養」에 열을 올리고 있는 實情에서도 反證되는 바이다. 게다가 마르크스主義는 프롤레타리아트의 道德的 品性を 美化하고자 애썼으나 그 政治的 意圖는 짐작된다 해도 理論上으로 명백한 矛盾이 있다. 왜냐하면 人間이란 社會的 諸關係의 總和라고 하는 터에, 資本主義制度가 人口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찬양할 여러가지 美德을 갖추게 하였다면 社會主義革命은 필요없다고 봐야 하겠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全面的으로 發展한 人格」이란 自由로운 雰圍氣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어서 오늘의 共產圈 實情은 그러한 理想과는 距離가 먼 것이다.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古典的 人間觀은 그 理論을 地球上에서 최초로 實踐했다는 蘇聯에서 벌써 原型대로 지탱될 수는 없었다. 판것은 차지하고라도 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道德的 品性에 관한 美化와 現實간의 괴리가 심했기 때문에 蘇聯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獨裁는 實質上의 共產黨獨裁로 轉化했고 결국은 스탈린에 의한 1人獨裁로 結着되었고 그過程에서 피비린내나는 党内肅清이 繼

起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權力の 世界를 떠나서 일반 住民들의 精神的 風貌를 보더라도 蘇聯의 權威있는 公式出版物은 「넓은 社會의 思想과 理論, 觀念과 感情은 비교적 강한 生命力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生産케 한 物質的 諸條件이 근본적으로 變化한 후에도 현저하게 오랫동안 持續된다」(85)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現實이다.

하기야 人間性的의 본바탕은 制度를 超越한 生命力을 가지고 있으며, 安定되고 平和로운 生活과 道德的 自由 및 精神的 獨立에 관한 正常人的 正當한 要求는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改變이 가능한 것은 오직 特定한 歷史時代에 外部로부터 強要당했거나 彩色되었으며 歪曲을 받은 附加的 要因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共産黨들은 教條的 信條體系 때문에, 비록 執權후의 實際經驗을 통해 存在가 意識을 간단히 規定하듯이 말한 마르크스의 公式이 通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해도 별도의 強化된 教育으로 人間革命을 기필코 그들의 意圖하는 方向으로 달성하고자 줄곧 애써왔던 것이다.

그런데 人間革命이란 우선 「바람직한 人間像」(理想像)의 設定을 필요로 한다. 被教育者의 장래의 모습을 생각지 않는다면 教育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共産主義者들이 그리는 理想的 人間像은 어떤 것인가. 蘇聯의 先例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北韓도 「主体思想」을 唱導하기까지는 蘇聯의 것을 模倣하는 데만 汲汲했던 것이며 오늘날도

그 刻印은 좀처럼 지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名称이야 어떻든 教育学의 体系構成도 基調에서 크게 다를바는 없다.

蘇聯의 公式出版物에 의하면 共產主義의 「새로운 人間」의 當爲像은 다음과 같은 徵表를 지니었다고 한다.

- ① 擄取와 抑壓에 대한 憎惡
- ② 樂天主義와 人民의 創造力에 대한 信賴
- ③ 祖國과 여러 人民의 權利의 尊重
- ④ 平和愛好와 國際協力
- ⑤ 社会的 利益에의 奉仕
- ⑥ 人間에 대한 配慮와 人間의 品位에 대한 尊敬
- ⑦ 高度의 意識性
- ⑧ 共產主義를 위한 鬪爭에서의 困難 克服 用意 등 (86)

그러나 이러한 徵表는 어디까지나 當爲이지 現實은 아닌 모양이다. 그들은 告白하기를 「과거의 殘滓는 社会主義的 生産樣式 속에 그 支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意識과 行動 가운데 지금껏 保存되어 있다」(87) 고 한다.

한편 「共產主義的 道德」에 관해서는 勞動에 대한 積極的 態度, 社会的 所有에 관한 주의 깊은 態度, 勞動에서의 連帶性과 相互援助, 祖國愛와 다른 人民 및 그 文化的 成果에 대한 尊重의 結合, 人間尊重과 人間에 대한 配慮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蘇聯學者들은 지난 날과 달라서 그들이 결코 「先行하는 모든 道德」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며; 예컨대 「正直, 誠實, 勤勉, 老人에 대한

尊敬」과 같은 全人類에 보편적인 價值는 繼承하는 바라고 한다.(88)

여러가지 徵兆는 오늘의 蘇聯에서 바로 그 「全人類的 價值」편이 「共產主義道德」이라는 特殊한 強調보다 住民들 속에 더욱 잘 받아들여 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톨스토이의 『復活』이 파제에프등 共產御用作家の 「青年近衛隊」보다 훨씬 愛讀되고 있다는 周知의 事實과 対応된다.

나아가서 蘇聯의 教育學者 및 心理學者들은 黨이 設定한 이상과 같은 「共產主義的 人間型」의 培養에 寄與해야 하는 課題에 항시 制約되어 있다. 그 教育學은 共產主義體制에 대한 美化, 레닌에 대한 崇拜와 大 러시아인의 民族的 自矜心고취, 階級意識을 前提로한 社會連帶, 集團主義와 組織的 規律등을 主題로 삼는다.(89) 그 心理學은 教育學과 不可分離의 關係에서 展開되는데 으뜸가는 主題는 社會的性格에서 「共產主義 道德」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人間の 社會的 性格을 決定하는 要因에 관한 研究는 自由 開放社會에서도 重視되게 마련이다. 이 경우에 주로 遺傳과

環境이 學論되며, 대부분의 教育學者들은 環境을 重視한다. 다른 한편 蘇聯의 教育·心理學者들은 遺傳을 거의 度外視하다시피 環境의 比重 특히 制度의 比重을 유난히 強調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딜레마에 빠졌으며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왜냐하면 社會革命後의 環境(특히 制度)의 變革에도 불구하고 그 社會의 人間心理는 좀처럼 改變되지 않았으며 爆發性 逸脫行爲는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그 緣由를 社会主義制度의 탓이라고 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蘇聯의 教育心理学은 人間의 社会的性格을 결정하는 要因으로서 「環境」과 「遺傳」뿐만 아니라 「自己訓練」이라는 것을 添加하게 된 것이다. 즉 自我批判과 修養, 레닌과 같은 肯定的 人間型의 模範에 대한 學習이니, 좋은 活動의 反復, 勞動과 軍隊服務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90) 이렇듯 「自己訓練」을 강조해야만 그 社会에서 거듭 많이 발견되는 否定的 人間型을 叱責할적에 責任을 社会制度 아닌 個人 各자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된다. 하나 그러한 立論은 그들의 歴史的 唯物性에 비추어 論理的 一貫性이 缺如되었고 政治色이 너무 짙은 것이다.

北韓의 경우도 그 「새型의 人間」論, 「共產主義 道德」教養, 그리고 이 培養에 奉仕해야 하는 教育学 및 心理学은 8·15 解放後 10여년에 걸쳐 모스크바 것의 直譯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55년말의 「主体」思想 提示부터 일종의 獨自의 摸索이 進行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標榜에 따른 制約과 蘇聯模倣의 刻印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모양이다.

金日成은 1961년 9월 제 4차 党大会 報告때만 하더라도 「教育分野에서 낡은 社会的 殘滓를 終局的으로 清算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 教育理論을 철저히 具現」할것을 다짐하면서, 教育의 理念에 관해서는 「새 世代들을 일반 基礎知識과 함께 現代的 技術을 소유한 文明하고 全面的으로 發展된 일군으로 育成하여야 합니다」

고 했다. (91)

그후 1970년의 5차黨大會 報告에 이르러서는 「全面的으로 發展된 共產主義的 새 人間」(92)의 育成에 대하여 「經驗은 共產主義 教養이 革命傳統 教養과 結附될때 그것은 生動하는 感化力을 가지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感動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革命傳統 教養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革命鬪爭의 試練을 겪지 못한 젊은 世代를 위하여 더욱 절실합니다」(93)고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革命傳統 教養」의 力說이 주목을 끌게 하는데 그 實質은 우선 革命傳統을 창조했다고 하는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로 나타났다. 바로 그 黨大會에서 「祝賀文」形式으로 된 北韓教員들의 「盟誓」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教育者들은 教育에서 勞動階級의 線을 더욱 똑똑히 세워 後代들을 知·德·體를 갖춘, 首領님께 無限히 忠直한 새型의 共產主義的 人間들로 키우겠습니다」(94)고 했던 것이다.

이 경우에 「理想像」문제의 具體化가 주목된다. 그 黨大會에서 채택한 黨規約 제1장 제4조는 黨員의 理想像에 대하여 「黨員은 高尚한 共產主義的 道德品성을 소유하고 組織과 集團을 사랑하며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위하여 個人의 利益을 희생할 覺悟가 되어 있어야 한다. 黨員은 항상 素朴, 率直, 謙遜하여야 하며 私利와 功名을 탐내지 말고, 黨앞에 率直하며 人間性이 풍부하고 文化的이며 社會秩序와 社會道德을 自覺적으로 遵守하여야 한다」고 썼다. 나아가서 黨員의 義務에 관해서 「唯一思想體系, 組織生活의 積極性,

學習氣風, 革命的 群衆路線, 勞動의 生活에서 大衆의 模範이 될것, 社會主義 祖國保衛, 革命的 警覺性, 批判과 自我批判 및 報告, 黨費의 納附」등을 規定하였다.

드디어는 일반 「公民」에 대해서도 「理想像」 또는 「새型의 人間」이 되라는 義務를 부과하게시리 되었다. 北韓의 1972년 憲法은 제 68조에서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的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共產圈에서도 類例가 없는 規定을 내세웠다. 黨員, 公民을 가릴것 없이 그 社會의 모든 사람에게 「새型의 共產主義的 人間」이 되어야 한다는 憲法上 義務를 부과한 꼴이다.

그러한 「새型의 人間」을 育成하려는 指向은 北韓에 獨特한 이른바 「社會主義 敎育學」에 관한 理論構成을 獨촉케 하였다. 드디어 1972년 北韓憲法 제 39조는 規定하기를 「國家는 社會主義 敎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투쟁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新 人間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이러한 規定 또한 共產圈내의 다른 憲法에 類例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北韓의 「社會主義 敎育學」의 主要한 內容은 「思想優先」과 「主體思想」을 浮刻시킨 人間革命的 指向으로 되어 있다.

金日成은 「靑少年 敎育에서도 그들을 革命的 思想으로 敎養하는 事業에 先次性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모든 靑少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며 國家와 社會의 財産을 아끼고 사랑하며 革命과 建設에 앞장 서 나가는 共產主義的 道徳品性을 갖추는 새형의 人間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北韓의 教授들에 의하면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要 求」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95)

나아가서 그 教授들은 「이러한 教育的 目的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首領님의 위대한 主體思想으로 武裝시키고 그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해야 한다」(96)고 말하는 형편인데, 이러한 平壤의 御用教授들에게 불쑥있는 理論構成이 있을 까닭은 만무한 것이다. 진부한 表現으로 「主體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나라 教育理論이나 經驗을 盲目的으로 따르거나 통째로 삼키는 그러한 事大主義와 教條主義를 범하게 되면 後代 教育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革命課業과 結附시킬 수 없고 主體的인 革命力量을 튼튼히 마련할 수 없다」(97)고 반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金日成大學의 그 講座는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學」이란 것이 70年代 初盤에 비로소 定立되었다고 말한다. 즉 「이時期(1961년부터 착수하여 3년 연장 끝에 1970년에 이룬 7개년 계획 기간을 말함……引用者註)의 또하나의 중요한 成果는 社會主義 教育學이 완성되고, 教育의 思想·理論水準이 훨씬 높아졌고 教授方法이 現實에 맞게 더욱 改善된것」(98)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社會主義 教育學」이 金日成의 構想에서 막연하나마 틀이 잡혀져 간 것이 1970년 11월의 5차黨大會 報告였고 그것이 72년 憲法에 성급히 規定되었다. 하나 金日成 자신에게 있어서도 모호



한 概念이었으며, 그 理論과 實踐에 관한 「指針」이 마련되는데도 상당한 時間의 經過가 필요했다.

金日成이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綱(提綱이라는 뜻……引用者註)』를 발표한것은 1977년 9월에 열린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 5기 제 14차 全員會議 席上이었다고 한다. (99)

그는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原理는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教育事業의 原則에 관해서는 「첫째로 教育에서 党性, 勞動階級性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로 教育에서 主體를 세워야 한다.

셋째로 教育과 革命實踐을 結合하여야 한다. 넷째로 社會主義 國家는 教育事業을 責任지고 組織 進行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새로운 것이 없고 다만 「主體」의 言及이 주목될 뿐이다. 「政治 思想 敎養은 社會主義 教育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世稱「政治第一, 思想優先」은 毛沢東時代의 中共이나 마찬가지 이다. 教育方法에 관하여 「學生들의 思考를 적극 開發시키기 위하여서는 討論과 論爭을 널리하며, 특히 問答式 方法을 善게 適用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北韓의 堯明일 수 없는데다가 그 「討論과 論爭」은 애당초 個人崇拜體制하의 黨路線 遵奉이라는 테두리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自由로운 思考力 開發에 연결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애당초 金日成의 教育政策에 관한 여러가지 見解나 言及을 整理하고 修飾하며 讚揚하는 것으로는 「學」(science)임을 주장할

수 없다. 一般化를 거친 体系構成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學」 定立過程에서 그곳 教育學者들의 研究的 寄與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소베트 教育學의 直譯版만도 못한 것으로 敘述의 支離滅裂은 차지하고라도 個人崇拜體制下的 劃一的이고 苛酷한 人間「改鑄」의 教條的 試圖이다.

하지만 그 試圖은 政治的으로 計算된 「典型」의 絶對化에 대한 歸依를 強要하는 까닭에 個人의 人格을 崩壞로 이끌게 된다. 야스퍼스는 共產主義 일반의 人間論에 관하여 「社會主義는 모든 사람에게 人格 實現의 機會를 준다고 해놓고 個人의 水平化를 통해 人格의 破壞者로 된다」<sup>(100)</sup>고 批判했는데, 北韓의 特殊形態는 그중에서도 가장 무자비한 表現이라고 할 것이다. 人間의 私的 領域이 內面에서까지 否認되며 또 그것이 個人崇拜體制下的 計劃의 絶對化로 強力히 推進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條件에서 자라나는 後代들의 自由롭고 自主的인 思考能力의 開花는 좀처럼 期待하기 어렵다.

만약에 北韓의 人間革命이 계속 組織된 強權과 思想教養의 劃一化로 推進되며 또 그것이 상당한 成果를 확보하리라고 假定한다면, 이는 制度問題이 상으로 南北간의 異質化를 深刻한 局面에 이끌게 할 것이다. 理想像의 設定에서 韓國(南韓)은 일반적으로 人格의 完成과 能力의 開發을 多方面的으로 이룩한 人間, 즉 個人發展과 友愛精神이 調和된 自主的 人間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基盤에는 人權擁護의 價值觀이 있다. 다른 한편 北韓에서 말하는

「共產主義의 새 인간」 또는 「새型的 人間」은 個人的 私的 領域과 人格의 獨自性 및 能動性을 事實상 全面否定하려는 指向이며, 北韓의 指導層은 革命의 道具로서 規格화된 人間の 量産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北韓의 現體制에 의한 人間革命 試圖에는 限界가 내다 보인다. 巨視的으로 社會成員의 態度 (attitude) 變化 또는 客觀的 條件에 대한 傾向的 反應樣式의 改變이란 生活環境의 變化가 傳統文化의 抹消를 동반하지 않는 가운데 漸次的으로 이루어져야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思想教養」의 劃一的인 速度戰으로 保障될바 아닌 것이다. 물론 北韓에 보는 個人崇拜 助長을 통한 歸依心理 造成과 排他的 信條賦與 다른 憎惡對象의 確定등 試圖는 一時的으로 그들의 體制鞏固化에 이바지 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個人崇拜 對象의 生理的 退場과 더불어 더이상 支撐하지 못할 것이 내다 보인다. 그점은 1953년 스탈린死亡후의 蘇聯, 1976년 毛沢東死亡후의 中共에서 일어난 事態進行에 비추어 보더라도 능히 測定할 수 있는 바이다. 北韓의 경우도 1950年代 後半期이후 個人崇拜 反對運動이 적지 않았고, 앞으로는 經濟的 難局의 打開策과 國際的 環境適應에 걸친 現實的 需要에 따라 「劃一的 規格化」에 대한 本格的 批判이 必然視된다.

人間型 問題에 浮刻되는 南北의 異質化를 同質化 回復으로 이끌어야 할 우리의 努力方向은 어떠한가. 가장 중요한 局面은 언젠가 現實的 日程에 오르게될 南北交流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의 相

互開放을 實現케 함으로써 北韓社會의 「새 型의 人間」鑄造의 條件  
인 情報的 閉鎖性을 打破하는 事이다. 劃一的인 規格化는 獨裁的인  
것이고 個性的인 多樣性의 保障은 民主的인 事의 徵表이다.



結 論

論

議

## 結 論

北韓의 現体制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우리나라 現實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적으로 適用한 金日成 同志의 偉대한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純潔性を 固守하기 위하여 果敢히 鬪爭한다」(黨規的 前文)고 標榜하고 있으나, 그 「社會主義 建設」과 「프로레타리아 獨裁」의 實態는 마르크스主義의 思想的 源流와는 꽤 동떨어져 있으며 또 「蘇聯의 先例」에 따르는 것도 아니라고 觀測되고 있다.

우선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은 마르크스의 歴史的 唯物論을 倒立시키듯이 意識으로 存在를 規定하며 上部構造로 下部構造(土台)를 支撐하는 꼴이다. 共產化 過程부터 問題되려니와 그것을 且置하고라도 執權후에 「社會主義的 改造」를 앞세웠고 뒤따라 「社會主義 基礎建設」이 착수되었던 것이다. 하기야 蘇聯의 社會主義 革命도 近代的인 工業化가 갖기 시작되었을 뿐인 農民主体의 나라에서 「엘리트」政党的 指導로 推進되었다는 점에서 원래 마르크스가 가장 先進的인 高度資本主義國家로부터 社會主義 革命이 발발하리라고 予見한 것과는 路線이 판이했었다. 그렇더라도 蘇聯의 레닌은 철두철미한 國際人이었고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理論的 遵奉의 熱意는 매우 強烈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北韓은 1958년부터 1962년에 이르는 동안 蘇聯·東歐圈에 派遣했던 約5千名의 留學生을 모두 소환해 버렸는데 이는 現代修正主義의 影響을 막는다는



취지였고 可謂 思想的 鎖國主義를 치닫는 격으로 되었던 것이다. 또 北韓은 中共이 毛沢東 時代に 「政治 第一 思想優先」을 標榜하다가 1976年 9月以後 實用主義·現代化路線을 치닫게 된 것도 아랑곳 없이 지금껏 勞動生産性 向上의 努力에서 「思想的 刺戟」을 先次的으로 固執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면서도 北韓의 「思想教養」은 脚色된 「革命傳統」의 神話로 지탱되는 個人崇拜와 密接不可離의 關係에서 展開되고 있다. 오늘날 北韓社會에서 이른바 「어버이 首領에 대한 無限忠誠」을 強調하고 있으며 「唯一思想으로 武裝하고 自身을 더욱 革命化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首領의 思想 意志대로 思考하고 行動하며 어떠한 風波 속에서도 조금도 動搖함이 없이 一片丹心 金日成同志를 首班으로 하는 党中央委員會를 堅決히 擁護하고 목숨으로 保衛하며 首領과 生死運命을 같이하여 싸워나가야 한다」(1968年 1月 18日 宇平壤放送)고 떠드는 것을 보면 可謂 「封建性 社會專制主義」를 방불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지경이다. 그러나 東洋傳統社會의 專制主義 體制는 ① 家庭을 基本的 構成單位로 삼았으며, ② 그 私有財產制가 保障되었고, ③ 家父長的 君主는 「一視同仁」을 標榜하였으나 오늘의 北韓에는 그 세가지가 모두 抹消되다싶이 하였다.

한편 北韓을 視察한 外國人들은 그 社會의 「強烈한 民族意識」과 더불어 排他的, 戰鬪的 一絲不亂體制에 대해 꺾 놀라운 印象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社會 팻시즘」같은 것을 連想케 하는바 없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 「全體主義」라는 概念

設定에 共產主義와 팻시즘을 함께 包括할 積에는 그 共通的 徵表로서 「唯一한 이데올로기, 1人에 의한 領導를 本領으로 삼는 唯一한 黨, 테러를 恣行하는 警察, 情報의 独占, 武器의 独占, 中央統制的 經濟」등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類似한 權力行使의 內面에 깃들인 相異한 社会的 目的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 라는 見解도 있다. 101)

그리고 팻시즘과 共產主義간의 差異에 대해 共產主義는 國際主義이고, 輸出되고 있으며 体系的 理論을 가졌고, 적어도 標榜되는 政治哲學에 관한 한 普遍的인 進歩的主義도 가졌다는 등 指摘도 發見된다. 102) 하나 北韓의 오늘날 實態는 그 閉鎖性, 主体思想에 모든 理論構成의 支離滅裂相, 人文主義의 理念에 대한 背馳등 諸徵表에 비추어 共產主義를 標榜하는 勢力치고는 가장 팻시즘에 가깝다는 評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깥세계의 일부論者들은 가끔 北韓의 「民族共產主義」의 性向이라든지 「民族主義의 파토스」등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다. 그것은 北韓의 現體制가 1950年代 後半期에 「主体」(National Identity) 思想을 提起하였으며 1960年代부터는 「自主」路線을 強調한데 緣由한바 큰것 같다. 또 1970年 11月의 제 5차 黨大會때 北韓의 2百70万名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을 代表한다는 「青年, 學生, 祝賀團」은 金日成에게 맹세하기를 「훌륭한 民族幹部로 首領님의 믿음직한 革命戰士로 튼튼히 準備」하겠단든지 「하나를 배워도 朝鮮 革命을 위하여 배우고, 한 자를 익혀도 朝鮮 革命에 써먹을 수 있

도록 學習과 生活에서 主体를 세워 朝鮮 革命의 믿음직한 계승자  
 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發展된 朝鮮의 共產主義者, 朝鮮  
 의 革命家로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sup>103)</sup> 고 했다. 이쯤되면 얼핏보  
 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國際主義보다는 「民族主義」의인 氣味가  
 더욱 짙은것 같다. 北韓에서도 「民族文化」나 「古典保存」「國語  
 의 순화」「民族的 自矜心」이 자주 力說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러한 점에 현혹된 일부 사람들은 南과 北에 民族主義와 共產主義  
 의 兩分法을 適用할 時期는 이미 지나 갔다고 보면서 오직 韓國  
 (南韓)의 自由民主主義 指向과 北韓의 共產主義만을 對照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北韓의 「民族的」 氣味란 오로지 「形式」에 불과한것이  
 며 그들의 實質은 아니라는데 留意할 必要가 있다. 北韓의 「思  
 想敎養」과 教育体系에서 民族文化를 論할 적에는 언제나 스탈린의  
 定式을 뼈대로 삼고있는 實情이다. 스탈린은 「프로레타리아 獨裁  
 의 時期는 內容에 있어 社會主義的이고 形式에 있어 民族的인 民  
 族文化가 開花하는 時期이다.····· 民族文化가 發展할때라야만 後  
 進社會의 諸民族을 社會主義 建設 事業에 참으로 關与시킬 수 있  
 다」<sup>104)</sup> 고 했다. 하기가 그 스탈린은 1945年 對日戰勝後 명백  
 이 러시아인의 民族主義 感情에 迎合하는 發言도 서슴치 않았다.  
 즉 그는 「1904年의 露日戰爭에서 러시아軍이 敗北한것은 우리 國  
 民의 마음속에 무거운 記憶을 남겨 놓았다. 우리 國民은 希望을  
 가지고 日本에게 大敗를 들세우고 汚點을 씻을 날을 待望해 왔다.

..... 우리 늙은 世代는 40年 동안 그날을 苦待望했다. 이제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이다」<sup>105)</sup>고 했다. 弁証法的 唯物論에서는 內容의 形式에 대한 優位를 前提로 삼지만 늙은 스탈린의 경우는 망령을 부렸는지 혹은 「形式의 內容에 대한 反作用」의 影響을 지나치게 입은 것 같다.

그후 스탈린을 格下시킨 후루시초프는 1956年 蘇聯共産党 第20次大会에서 「各國의 具體的·歷史的·社會經濟的 諸條件과 特殊性에 副應하여」「社會主義로 가는 多樣한 路」이 있을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嚴格한 規制의 기틀이 明白했는데 그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로부터의 逸脫을 容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1968年 체코슬로바키아의 民族化, 自由化運動에 즈음하여 蘇聯을 비롯한 바르샤바 同盟軍의 侵略的 武力鎮壓을 正常化하려고한 브레즈네프의 「社會主義 共同體 防衛論」 또는 「制限主權論」으로 이어졌다. 어차피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標榜하는 이상 모든 共産党은 「階級의 利益은 모든 것에 優先한다」는데 同意해야 하며 또 共産党 機關紙의 題號 옆에는 「만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口號를 내어걸게 되어있는 것이다. 民族의 利益을 最大 單位인 동시에 最小單位로 생각하는 民族主義와 國民總和論에 대치되는 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임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勿論 共産主義는 프로레타리아 獨裁의 高집으로하여 自由民主主義와 대치되는 것이다.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30余年間에 걸쳐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標榜

하면서 그 特異한 形態로 國土의 절반을 統治하는 동안 北韓의 面貌을 傳統文化에 대비하거나, 南北社會에 비교하거나, 매우 判異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특히 南北간의 異質化 問題를 深刻한 局面에 이르게 하였다. 오늘의 北韓은 하나의 黨,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한 사람의 個人崇拜 對象에 의한 超憲法的 萬能獨裁 아래 社會專制主義 또는 社會軍國主義 社會를 방 불케 하는 實情이다. 하지만 北韓의 現体制의 運命은 巨視적으로 人間革命의 成敗 에 달려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中共의 毛沢東이 벌인 「思想改造」 事業이 그의 生理的退場과 더불어 失敗한 先例를 想起할수 있을 것이다. 毛沢東은 「破私」 즉 私心, 私權, 私利, 私情을 모두 없애려 했으며 또 「破四舊」 즉 傳統的인 文化·思想·風俗·習慣을 打破 하려했다. 그러나 오랜 傳統은 急激히 導入된 外來思想보다 뿌리 깊었고, 잘 살고 마음놓고 살려는 보편적 人間性은 毛沢東의 努力보다 강인했음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오늘의 北韓現實은 매우 深刻한 異質化의 諸局面을 觀察케 한다. 두드러진 特徵을 간추려 볼 때 우선 政治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變貌가 관측된다.

① 一當獨裁를 基幹으로하는 全住民의 組織化와 「學習綱」 編入。 金日成의 이론바 「政治第一, 思想優先」은 그것으로 推進이 가능하다.

② 徹底한 軍隊式 中央集權과 피라미드式 權力構進의 項點에 자리잡은 個人崇拜 體制。

③ 生計手段인 價值配分 내지 情報傳達 經路의 單一化。 이로 말미암은 「意見의 多樣化」의 物質的基盤이 一般住民水準에서는 상실되었다。

④ 警察國家體制와 唯一思想體系의 配合。

⑤ 그러한 複合要因따른 思想, 組織的 動員力의 相對的 強化。

⑥ 對內的인 「正統性」 宣傳效果와 對外的인 自主性 印象。 다만 北韓의 「正統性」은 歷史偽造를 수반한 「革命傳統」의 脚色에 立脚하는 個人崇拜를 基調로 삼고있으며, 또 그 「自主路線」은 원래 中·蘇紛爭件에 對應하는 機會主義 発想의 結果이므로 앞으로 兩大背景 間의 力学關係가 尖銳化하는 날이면 「強要된 選扨」에 直面할수 밖에 없으리라는 弱點을 지니고 있다。

어차피 北韓에서 社會主義를 標榜하는 金日成體制의 個人崇拜는 人權蹂躪과 民主抹殺을 同伴하는 反面에 그들의 政治的安定과 一元的 統制에 일단 有利하게 機能하는것 같이 보인다。 黨을 基幹으로하는 組織網과 全人民的 相互監視制, 批判과 自我批判의 기틀도 中共集權을 위해 効率적으로 機能하는 一面이 있다。 나아가서 主体思想 및 自主路線에 관한 「思想教養」은 大衆레벨에서의 正統性 樹立에 有利했을듯하고 또 植民地 내셔널리즘의 政治風土에 어울리는바 있었으리라고 測定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統治의 効率性의 代價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個人的 創意性を 마비시켰으며 規格화된 道具的 人間을 量産하였고, 政治文化에서 南北間의 異質化를 深刻化시켰으니 말이다。

다음으로 經濟面에서 北韓의 모든 生産手段은 国有化 혹은 協同組合所有로 轉變되었다. 傳統的 農業社會의 生産單位는 家庭이었으나, 이제 그것은 國家 또는 協同組合으로 代替된 것이다. 私有財産制는 無視당하고 自由市場經濟는 자취를 감추었다. 게다가 勞動生産性의 向上이 物質的刺戟 대신 思想的刺戟으로 宣佈·煽動되고있다. 이러한 條件에서는 生産力 擴充도 重勞動 動員에 限界가 있는 즉 早晚間 壁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限界는 벌써 到來한 느낌이다. 技術革新에 대한 意欲과 情熱도 위축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못사람은 「일 하지않은 자는 먹지 못한다」는 口號아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低賃金 勤勞者로 된것이다. 물론 經濟力의 集中은 政治權力의 集中에 연결된다. 온갖 生産活動의 經理(企業經營)은 中央集權的으로 計劃化 되어있다.

그러한 經濟生活의 異質化는 自由市場經濟속에 生活하는 南韓住民의 형편과 비교할적에 距離가 먼 價值觀의 變化를 낳게 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文化面의 異質化에서는 北韓住民들 사이에 보급된 權力指向的 價值觀이 注目を 끌게한다. 돈 보다도 힘이 崇尚되며, 社會的 地位가 보다 나은 配給과 俸給을 약속한다는 固定觀念이 판치게 된다는 것이다. 個性에 어울리도록 多樣한 價值를 追求할수 있는 自由로운 機動의 余地는 全近代社會보다도 縮小되었거나 抹消당하였다. 온 社會의 구석구석까지 政治化가 浸透한 條件에서 私的領域은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그대신 他人의 일이라고해서

对岸의 火災처럼 보지는 않는 일종의 紐帶意識같은 性向이 자랐으리  
라고 짐작할수는 있을것 같다. 하지만 언제건 作業基準과 生産目  
標에 쫓기는 기본이고 보면 進焦燥와 不安의 心理가 만연되는 법이  
고, 마음의 余裕라든지 多樣性에 대한 寬容은 기대할수 없게 된다.

民族性を 研究하는 社会心理学者들이 独逸人이나 日本人에 대하여 자  
주 지적하는 「集團歸屬속의 安心(Stability in group)」이란 원  
래 韓國의心性이 아닌데도 北韓住民들의 意識構造에서는 그점이 날  
로 두드러지게 될것이다.

이상 變貌하는 北韓社会에 特徵적인 注目할 諸局面을 推觀하였는  
데 그緣由는 ① 일찌기 自由와 民主主義를 體驗해보지 못한 社会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標榜아래 가장 철저한 中央集權과 個人崇拜가  
助長되었다는 것. ② 資本主義의 正常的 發展이 缺如된 社会에서  
가장 性急한 「社会主義」 建設이 強行되었다는 것. ③ 價値의 多  
樣化가 開花할수 없었던 社会에서 가장 權力指向的인 政治第+의 價  
值觀이 人工的으로 普及되었다는 것등 諸要因으로 分析된다.

그리하여 国土統一院의 研究報告 「南北韓 異質化 現況」(1977년)  
은 「오늘의 時点を 基準으로 内外与件을 살펴보면 우리 統一을 沮  
害하는 要素는 強大國이 関与하는 外的 要素보다는 現在休戰線 以  
北에서 民族 異質化라는 内外要素가 더욱 深刻한 問題로 登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르렀다. (106)

回顧하면 1876년의 開港이후 近百年에 걸친 民族的 苦難期에 韓  
國의 愛國者들이 追求해온 救國方策에서 最大公約數를 찾는다면 近



代化된 富強·獨立·福祉國家 建設로 要約할 수 있었다. 그것이 1945년 「8·15 兩斷解放」과 함께 우리 祖國의 南과 北에 異質的인 美·蘇兩軍이 進駐해온 條件에서 分斷쌍방은 서로 다른 近代化의 길을 모색하는 格으로 되고 말았다. 1948년에 大韓民國 政府樹立이 宣布되었는데 그후 韓國(南韓)에서 追求해온 近代化作業은 兪뎨 西歐化를 聯想케 하듯이 資本主義를 同伴한 自由民主主義를 基調로 삼았으며, 다만 指導的 人的構成에서 民族主義의 理念이 뚜렷했기 때문에 尙시 傳統文化에 대한 尊重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다른한편 北韓은 共產化의 길을 택했으나 蘇聯에서의 스탈린 批判과 中·蘇紛件의 進展속에 環境適応이 難如해 갈광질광하다가 主体思想과 自主路線으로 血路를 打開하려는 나머지 性急하고 奇形的인 「社會主義 建設」로 치달게 되었는데, 그 個人崇拜体制의 趣指는 비록 國史의 偽造를 同伴했다해도 北韓 역시 例外가 아니었던 「植民地 民族主義」의 政治文化에 호소하는 大衆造作에 힘입은바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政府樹立이후의 南北競爭에서 浮刻되는 重要한 局面은 正統性 문제와 더불어 經濟建設의 実績이었는데, 적어도 工業化를 主軸삼은 經濟力 培養에서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韓國(南韓)의 相對的 優越性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편 北韓의 實態에 보논은갖 不条理는 결국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標榜을 奇形的으로 實踐해온 個人崇拜体制에 凝結되는만큼 그 獨裁者의 生理的 退場후에는 결코 오래도록 지탱되지 못할 것이 내다보인다. 50年代의 蘇聯,

70年代의 中共에서 관찰된 先例도 있으려니와, 平壤의 경우는 個人崇拜가 모스크바나 北京이상으로 철저하기 때문에 비록 一時的인 硬直性이 強点처럼 느껴진다해도 巨視的으로는 바로 그것이 脆弱点으로 될것이 展望된다.

그렇더라도 金日成以後의 北韓 内部變化가 과연 바람직한 南北統一의 條件形成에 連結될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保障도 발견되는바 아니다. 예컨대 經濟分野에서 中央集權的 計劃化와 官僚主義的 過剩指示의 弊風이 완화된다든지, 그 閉鎖社會가 産業技術裝備의 導入을 추진하는데서 西方에 대해 종전이상으로 門戶開放을 느끼게 하거나, 中共의 毛沢東以後를 본받은 實用主義 現代化路線이 浮刻되면서 勞動生産性 向上을 위해 思想的刺戟 대신 物質的刺戟을 내세우는 등 일련의 變化를 觀測케 할 수는 있겠고, 나아가서 「紅」보다는 「專」(革命家보다는 專門家)가 尊重되는 人的構成의 新陳代謝가 있음직하지만 그러한 變動이 곧바로 合理的인 統一接近에 連結되리라고는 確言할수 없다. 이미 관찰한 南北 異質化 問題의 解消를 뜻한다고 速斷하지도 못한다. 도리어 北韓의 標榜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現實的으로 調定함으로써 이미 造成된 異質化를 安固化할 可能成마저 批除되는 바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北韓의 内部變化에 관해서는 ① 金日成以後의 偏差調定 ② 統一接近에의 合理的姿勢라는 두개의 段階를 區別해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統一接近이라는 觀點에서 北韓의 内部變化 可能性을 考察할 적에는

①自由化 ② 收斂理論 ③ 同質化의 세가지 경우를 想定할만하다.

그런데 共産圈의 世稱 「自由化」란 1956年의 폴란드와 헝가리 事變, 1956年 내지 58년에 걸친 北韓内部의 党幹部動態, 1968年의 체코슬로바키아 事態등 既往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拋棄나, 自由民主主義의 採択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종전의 共産圈 「自由化」運動은 예외없이 共産党 高位幹部와 그 權力周邊의 인텔리들에 의하여 發起되었던 것인데 대체로 스탈린式 恐怖 反對보다 많은 体制内 民主主義의 發揚 壁에 부딪친 中央集權的 統制經濟의 地方分權化 蘇聯등 大國支配의 拒否 西方과의 交流擴大를 통한 實利追求 自主的 外交路線 法秩序와 人權擁護에의 開眼 등 이른바 「人間의 얼굴을 한 社會主義」을 追求하였으며 그 論 는 初期마르크시즘 약간 깃들인 휴머니즘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대로 共産圈内 住民들의 苦痛을 덜어준다는 肯定的인 意義를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分斷國家의 경우는 体制數의 解消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또 그 경우에 交流의 活潑性에 관한 期待可能性이 成立될 수 있겠으나 이것 또한 쌍방에 걸친 條件 나름이다. 요컨대 自由化에 이은 進一步한 變化가 統一接近을 위해 촉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收斂理論 (Convergence Theory)은 美國을 비롯한 自由開放 社會 學者들이 주로 拳論하는 바이고 蘇聯·共產圈學者들은 公式的으로 질점을 하고있다. 그 要旨는 資本主義社會와 共產圈의 社會主義는 비록 經濟의 下部構造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등)가 다르다 해도 먼 앞날을 내다 볼 적에는 社會生活과 住民의 意識構造가 서로 類似한 것으로 되어 결국은 收斂되리라고 한다. 資本主義社會의 變質要因으로는 所有와 經營의 分離에 따르는 經營者國家論, 經濟의 自由放任主義를 止揚하고 計劃性을 導入하며 國家의 役割을 增大시키는 混合經濟論, 社會政策의 拡張에 따르는 福祉國家論등이 引用된다.

다른한편 共產圈의 社會主義社會의 變質要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諸局面이 指摘된다.

◇ 近代化가 進展되면 工業化過程의 技術崇尚이 마침내 合理的 思考方式을 자라게하고 따라「狂信과 絶對的 信念의 終언」을 초래 하리라는 것

◇ 消費生活이 豊饒하고 便利하게 되는데 따라 이에 遂行하는 制度와 統制를 排擊하게 되고 마침내 政治活動의 民主化가 促進된다.

◇ 教育水準의 普遍的 向上과 인텔리의 大量輩出은 自主的 思考方式을 成長케 하고 教條的인 이데올로기教育을 外面하도록 만든다.

또 技術的 專門化는 필연코 知的 自由主義 내지 言論自由에 관한 要請을 強化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첫째武器

로 삼는 党的 統制가 弱화된다.

◇ 勞動生産性を 持續적으로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思想的 刺戟 대신 物質的 刺戟을 주어야하고 또 住民들 속에 보다 많은 報酬에 대한 關心이 普遍的으로 高揚되는데 따라 社會의 意識構造가 革命 당시와는 判異하게 된다.

◇ 資本主義社會에서 勞動者의 要求에 讓步하는것 처럼 社會主義社會에서 인텔리들의 要求에 대한 讓步가 蓄積돼 나가면 결국 經濟面의 社會主義와 政治面의 自由主義가 共存하는 서로 닮은 새 社會를 出現케 하리라는 것 등이다.

- 이상은 갈브레이드 (John K. Galbraith) 나 「벨」 (Daniel Bell), 그리고 듀베르제 (Maurice Duverger) 등 여러 學者들의 收斂理論의 骨子를 要約한 것이다. 듀베르제의 경우는 東方의 自由化 西方의 社會化에 보는 求心作用 같은 것을 拳論하기도 했다. 그러나 收斂理論은 추세에 관하여 말한것이지 方策을 論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러한 추세가 觀測된다해도 이러한 方向의 體制的 差異의 解消는 不知何歲月적인 約束에 속하는 問題이다.

우리의 경우 南北韓한 異質化가 問題視되는 것은 統一接近을 위한 同質化가 促求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北韓만이 아니고 韓國(南韓)도 8.15의 時點에 담보만 거듭한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同質化의 方向은 두가지로 想定할 수 있겠다. 하나는 南北간의 對話와 交流의 本格化를 통한 새綜合에서의 一體性이다. 다른 하나는 民族的 主體意識에 立脚하는 「뿌리 찾기」의 進展이

다. 물론 그 두가지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민족의 理念이 專統을 향한 求心作用의 原理인데 비해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階級의 理念은 分展을 향한 遠心作用의 原理라는 점이다. 하기야 北韓의 경우에도 「主體」思想과 「自主」路線 提起 이후 그곳住民들의 意識構造 속에 깃들이게 된 이데올로기의 內在的 運動法則 같은것을 觀測할 수는 있다. 원래 特定한 이데올로기는 執權者의 思想的支配 手段으로서 提示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일단 社會的으로 普及되고 그 政治文化에 어울리게 되면 執權者의 當초 意圖나 打算에 拘碍되지 않는 內在的運動을 개시하게 된다. 北韓의 「主體」思想과 「自主」路線을 보더라도 그 獨裁者의 意圖는 個人崇拜體制의 維持와 機會主義外交의 合理化라고 推定되지만 民衆속의 內在的 運動은 民族主義 復活의 思想的素地를 展望케 하는바 있다. 우리는 民族理念의 보금자리에서 그러한 方向의 嚮導作用을 自體確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註 釈

1. 共産党宣言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1948.)

結速語.

2. 스탈린,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

英文版 (J. Stalin, Marxism and the National and Colonial Question, 2nd ed, 1936, p13).

스탈린의 民族文化에 관한 이 간결한 定義는 마르크스主義者들간 에 定評이 있고 흐루시쇼프에 의한 格下運動이후에도 깊은 자국 을 관측케 하였다. 본시 그의 創案이 아니라 그 理論的先驅者들 의 여러가지 言及을 集約的으로 表現한 것이었다.

3. 레닌, 「民族問題에 관한 테제」, [全集] (日訳本, 第 15 卷, p. 251).

4. G.P. 프란쾅프, 「社会思想의 歴史的 발자취」, 모스크바, 1965年.

日訳本, p. 299.

5. 「레닌全集」, 第 29 卷, p. 425.

6. 마르크스, 「政治經濟学批判」, 1859, 序論.

7. R.N.C.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New York, 1954, Ch. 6.

8.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60.

9. 「레닌, 共產主義에서의 左翼小兒病」, 日訳 (國民文庫版), p. 247.
10. 蘇聯科学院哲学研究所, 「마르크스主義哲學의 基礎」, 모스크바, 1958,  
第 16 章
11. 渡部学 (編), 「朝鮮近代史」, 東京, 1968, pp. 245 ~ 6
12. 筆者, 「北韓政治機構論」, 서울, 1964, p. 47.
13. 「김일성 선집」, 제 1 권, 1963 年版, 평양, p. 15.
14. Ibid. p. 80.
15. 「蘇聯共産党歷史」, 모스크바, 1959, 序文.
16. 毛沢東, “人民內부의 矛盾을 正確히 處理하는 問題에 관하여”  
1957 年 <「毛主席語録」> (1966 年 北京版, 4)
17. 極東問題研究所 (編), 「北韓政治論」, 서울, 1976, p. 566.
18. 事前行爲 (Anticipation) 에 관한 理論的 究明으로서 탁월한  
研究는 Eduard Heimann: Communism Fascism, or Democracy,  
New York, 1938 특히 第 4 部 第 1 章 第 1 節 參照.
19. 김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평양, 1961, p. 3 ~ 5.
20. Ibid.
21. 朝鮮事情研究会, 「朝鮮의 經濟」, 東京, 1956, pp. 81 ~ 2.
22. 김일성, 前掲書, p. 16.
23. Ibid, p. 17
24. Ibid, pp. 10 ~ 15
25. 「마르크스 經濟學批判」, 前掲, 序論.



26. 『로동신문』, 1963年 10月 28日字 論說.
27. 김일성, 前出 報告, p.18~9.
28. 高昇孝, 『現代朝鮮의 農業政策』, 東京, 1971, p.69.
29. 文化會報部, 『統計資料手帖』, 서울, 1977, p.99.
30. 兪完植, 金泰瑞 共著 『北韓30年史』, 서울, 1975, pp.157~162.
31. 김일성, “조선 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1970년 11월 2일자 국제문제 연구소(편) 『월간 공  
산권 자료』, 12상권, 서울, 1970, p.18~9.
32.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966년 10월 5일자.
33. 김일성, “5차黨大會報告”, 前出, p.19.
34. Ibid, p.22.
35. Ibid, pp.20~1.
36.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經濟現況比較』, 서울, 1976 参照.
37. Ibid, pp.19~21.
38. 『김일성 선집』, 제4권, 평양, 1960, pp.326~30.
39. 레닌, “大로씨야人の 民族的 自矜心에 대하여 (1914년) 『레닌全  
集』, 第21卷, pp.93~95.
40. 毛沢東, “論新段階, 1938”, 中共黨文獻으로는 그 6中全會에서 채  
택한 <『論宣傳的民族化』>로 되어 있다.
41.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자.
42.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자.
43.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

- 조선 革命에 대하여'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共和国 알리·아르함 社会經濟院에서 한 講義).
- 44 . < [로동신문] > , 1966년 8월 12자 社說 < "自主性을 옹호하자" >
- 45 .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 1966년 10월 5일자
- 46 . [北韓 30年史], 前出, p.259.
- 47 . 평양 방송, 1968년 1월 18일자.
- 48 . 公報部, [韓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서울, 1968, p.435.
- 49 .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Op Cit.
- 50 . 中共執權후에는 北京의 新民主出版社로부터 < [整風文獻] > 이 重刊되었는데 그 収録內容은 毛沢東의 論說외에 레닌, 스탈린, 데미트로프등의 文獻도 포함하였다. 한때 劉少奇의 < [論共產黨党的 修養] > 같은 것도 포함되었으나 이것은 그에 대한 肅清후 삭제되었다.
- 51 [ 레닌全集], 제 22 권, p.48.
- 52 . [스탈린 全集] 제 8 권, pp.51~2.
- 53 . 中共中央政治局 "加強群衆領導工作的決議", 1946년 6월 1일자
- 54 . 김일성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 할데 대하여, 1955년 [김일성 선집] 제 4 권, p.346.
- 55 . Ibid, p.250.
- 56 . 金日成이 中共党的 領導 < 作風 > 을 北韓에 導入하려고 강조한 < 群衆觀點 > 論은 1972년의 이른바 < 社會主義 憲法 > 제 10 조에서 < 群衆路線을 貫철한다 > 는 表現을 보게 하였다.

- 57 . 김일성, "관료주의를 퇴치할때 대하여, 1955". [김일성 선집], 제 4권, pp.241 ~ 5 .
- 58 . Ibid .
- 59 . 김일성 "조선 로동당 제1차 대표자 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3월 6일자" [김일성 선집], 제 5권, p.385 .
- 60 . Ibid, p.389 .
- 61 . Ibid, p.391 .
- 62 . 蘇聯科学院 經濟学研究所, 「政治經濟学」, 모스크바, 1958. 日訳本, 1959. pp.780 ~ 783 .
- 63 . Ibid, p.759 .
- 64 . 「레닌 全集」, 제 33 권, p. 47 .
- 65 . 穴戸 寛, 「人民戰爭論」, 東京, 1969, p.207 .
- 66 . 「金日成 二卷選集」(2) (日文版) p.603 .
- 67 . 김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 1962"
- 68 . 藤島宇内 (編), 「現代朝鮮論」, 東京, 1966, pp.133 ~ 4 .
- 69 . <「北韓總鑑」>, 서울, 1968, p.385 .
- 70 . 蘇島宇内, 前出書, p.151 .
- 71 . Ibid, p.158 .
- 72 . 「北韓總鑑」, 前出, p.388 .
- 73 .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 중앙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1968."
- 74 .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89. 소베트교육학의 軌跡에 관해서는 筆者의 論文<北韓의 教育理  
88. Ibid, pp. 924 ~ 9.
87. Ditto
86. 「마르크스主義 哲學의 基礎」, 前出, pp. 975 ~ 6.
85. 「마르크스主義 哲學의 基礎」, 前出, p. 949.
- 제 4권, SS. 375 ~ 6.
84. Engels, "Grundsätze des Kommunismus," 「마르크스 엥겔스全集」  
Philosophie in Ihren Repräsentaten, 1846, Vorwort.
- 
83. Marx-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Kritik der Deutschen  
월 13일자 「김일성 선집」, 제 1권, 1963年版, p. 3.
82. 김일성 "새조선 건설과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하여" 1945년 10  
81. 朝日新聞(東京版), 1978년 3월 8일자.
80. 國土統一院 「蘇聯總齋 부록」, p. 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p. 282.
- 
79. Sigmund Neumann (ed), Modern Political Parties, The  
78. Ibid, p. 250.
77. Ibid, p. 246.
- 성 선집」, 제 2권, 1953, p. 683.
76.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憲法 案자에 관하여" 「김일  
11版, p. 243.
75. 스탈린 "蘇聯憲法 草案에 관하여" 「네인主義 諸問題」 모스크바版  
London, 1970, Ch. 5.

- 念">参照. 北韓研究所(編), 『北韓教育論』, 서울, 1977, p.49f.
90. P.N.Gonobolin, Psikhologiya Moskva, 1973. 日訳本, 東京, 1975  
pp.202~203.
9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Op Cit, pp.35~6.
9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Op cit, p.27.
93. Ditto, p.61.
94. Ditto, p.334.
95. 極東問題研究所(編) 『金日成勞作解説講坐(金日成放送大学講義録)  
II, 서울, 1974, pp.347~384
96. 極東問題研究所(編) 『労働党政策史講坐』, II, 서울, 1974, pp.  
70~71.
97. Ibid.
98. Ibid, p.85.
99. 평양 방송, 1977년 9월 7일자.
100. Karl Jaspers, 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1949,  
S.237.
101. W.Hofmann, Stalinismus und Anticomunismus, Suhrkamp  
Verlag, 1967, 序論.
102. J.A.C.Brown, Techniques of Persuasion, London, 1963, Ch5.
103. 로동신문 1970년 11월 11일자.
104. 스탈린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第2版, 1936.p.210.
105. 스탈린, 「위대한 조국 애호 전쟁에 대하여」, 모스크바, 1946,  
韓國文版. The New York Times, Sep, 3, 1945.
106. 平和統一 - 研究所 『統一政策』(季刊), 第3卷 第4号, 1977, p.188f.